

2010년 중앙대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다문화시대의 성찰

다문화현상 분석과 다문화교육의 실제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2010년 중앙대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다문화시대의 성찰

다문화현상 분석과 다문화교육의 실제



일시 : 2010년 3월 13일 (토) 10시

장소 : 중앙대학교 본관 3층 정보문화통신관

주최 : 중앙대학교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주관 :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후원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연구재단

목 차

한국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홍원경 / 3
동화, 정복, 번역 :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김주리 / 19
'境界'의 보편성과 특수성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김효석 / 41
'일방적 소통'에서 '상호 통섭通涉적 소통'으로의 소통의 전환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김선희 / 61
다문화 현장이 갖는 딜레마 :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구수연 / 81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 동화를 중심으로	이소현 / 99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적 접근	정성미 / 117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고도구어 분석	손경미 / 131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1부

제1주제

한국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발 표 자 : 홍원경(남서울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를 중심으로

홍원경(남서울대)

I. 서론

2000년대 들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한국소설에서도 구체적인 실례 속에 주제나 배경면에서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재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소설은 그들이 한국에서 적응해가는 과정 속에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문제가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원정의 『한국인』²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폭력성을 형상화하여 극단적인 차별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종석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차별에 대해 비판적인 지식인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손홍규는 「이무기 사냥꾼」에서 한국인들의 차별에 대한 응징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부도덕성을 묘사하여 그와 관련된 한국사회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김재영의 「코끼리」에서는 네팔사람 아버지와 조선족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해경의 「물 한모금」에서는 한국인들의 차별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의 대응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 작품¹⁾ 대부분은 사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²⁾이 새로 제정되어 공포된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 발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한 그들을 문제로 다룬 한국소설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될 것

1)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소설들이다.

고원정(2000), 『한국인』2, 해냄.

고종석(2004 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과라 21』, 문학동네.

손홍규(2005 여름), 「이무기 사냥꾼」, 『문학동네』.

김재영(2005), 「코끼리」, 『코끼리』, 실천문학사.

이해경(2006), 「물한모금」, 『뜸새』, 창비.

2) 산업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한국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장기 체류가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는 데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다(김은미·양용경·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192쪽). 따라서 당시 대부분 3년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추방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기존의 소설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제문제 가운데 그 일면만을 부각시킨 데 반해서, 본고에서 논의할 박범신의 장편소설 『나마스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설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볼 것이며, 특히 주인공 카밀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인가도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박범신의 경우 『출라체』(2008), 『고산자』(2009)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과 삶에 대한 작가의 시선이 이후 '산'(山) 과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총체적 삶을 보여주고 있는 『나마스테』도 예외는 아니다. 유한한 삶에 대한 극복과 인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들을 소설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마스테』에 등장하는 세 개의 서사공간³⁾ 가운데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카일라스'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주인공 카밀에게서 볼 수 있는 양가성에 대한 의미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II. 소설에서의 서사공간

작가에 의해 창조된 서사공간은 작품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서사공간은 지형학적인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내재적인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작중 인물들의 인식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서사공간'은 다분히 지배적인 개념⁴⁾으로서 다른 요소로부터 전경화시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마스테』에서 '카일라스'는 주인공 카밀의 인생행로라 할 수 있는 고향 마르파 - 카트만두 - 서울로 이어지는 길이 '카르마'의 과정임을 인식시켜주는 원천적인 서사공간인 셈이다. 즉 카일라스는 현실과 이상의 결합을 견고하게 하는 서사공간으로, 주인공으로 하여금 표면적 세계에서 벗어나 심층적 세계로 향하게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나마스테』에서는 카일라스 산이라는 핵심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작가는 창작 내내 '불멸의 얼음산 카일라스'가 언제나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3) 『나마스테』에서는 크게 세 개의 서사공간 즉 네팔에 있는 주인공 카밀의 고향 마르파를 포함한 카일라스 산과 카트만두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4) 야콥슨에 의하면 작품은 기법들의 체계이며, 위계 질서가 나타나는데, 이 질서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법이 이른바 지배소가 된다고 하였다(이승훈, 『현대비평이론』, 태학사, 2001, 77쪽).

누구나 자본주의 세계통합 국면에 놓여진 우리의 삶이 미치광이 삶은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미 독종이 돼서 신으로 가는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도 우리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중략) 연재하는 내내 내 눈앞엔 언제나 불멸의 얼음산 카일라스가 흘러다녔다. 문명은 본래 서열과 층차가 없다. 필요한 것은 티베트말로 모귀,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끈질기게, 상주불멸의 본성과 같은 카일라스를 품는 일이다. 그것을 히말라야에선 마야라고 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것.⁵⁾

소설에서 집중적으로 묘사된 '카일라스'는 물론 히말라야 설산 너머 티베트의 광야에 위치한 만년빙하의 얼음산이라는 사실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인간 삶의 척도로서의 신성한 영혼의 의미를 가장 효과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상징적인 산이나 다름없다. 우리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각박한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빈부의 차별 없이, 욕망과 집착에 따른 온갖 번뇌와 망상을 다 씻을 때 '순정한 본성만 떠오르게 된다는 영혼의 심지'가 바로 카일라스를 의미한다. 즉 이 공간은 인간과 자연 전체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넘치는 산임을 말해준다.

네팔 사람 카밀에게 있어 '카일라스 산'에 대한 종교적인 숭배는 절대적이다. 그 산의 가르침인 자비로운 사랑은 그에게 있어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그 산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카일라스 산에 대한 그의 애착심은 소설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

내게는 티베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할아버지 젊었을 때 강자, 한국말로로는 오체투지로 카일라스를 한 바퀴 돌았대요. 가슴에 품은 거지요. 죽음도 삶도 없는, 성스런 산의 기운이 내 안에 흘러요. (중략) 내 속, 내 안 어디에, 세상의 중심, 카일라스 산 숨어 있었을 거예요.⁶⁾

『나마스떼』에서는 세 개의 서사공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공간에서 전개된 내용을 분절적으로 읽기보다는 통합적으로 해석할 경우, 각각의 공간에서 등장하는 중심인물에 대한 사전적 지식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 소설 전체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주인공 카밀에게서 볼 수 있는 역할 변화의 양가성⁷⁾으로 설명할 수 있다. '꿈을 좇아 끝끝내 장열히 산화하고 마는 주인공 카밀의 고향은 히말라야 빙하가 흘러내리는 칼리간다크강이 흐르는, 안나푸르나 연봉들 사이의 아름다운 마을 마르파. 카밀은 협곡 사이의

5) 박범신, 『나마스떼』, 한겨레신문사, 2005, 398쪽.

6) 위의 책, 85쪽.

7) 양가성이란 '두 개의 논리 또는 이데올로기가 변별력을 가지고 구분되는 것을 부정하고 이들의 가치가 무차별화되는 것'을 말한다(김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63쪽).

위태로운 길을 따라 더 넓고 곧은 도로망이 뻗은 카트만두로 왔고, 문명의 하늘길 쫓아 서울까지 흘러나왔다.’ 그의 인생행로 가운데 고향 마르파에서 카밀은 양가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상 사과향기가 배어있는 어머니와 함께 보낸 그곳에서의 카밀은 행복한 아이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직후 아직 어린 카밀이 아버지와 함께 오게 된 카트만두에서는 고향에서 나타난 카밀의 양가성이 상실되고 만다. 그곳에서 카펫 공장 사장님의 딸인 새엄마와 결혼한 아버지는 돈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는데, 이에 반기한 카밀은 자연히 반항적인 심대를 보내게 된다. 여자들에게 무서운 건달로 소문난 카밀은 방탕한 삶을 지속한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 여직원들에게 짐승같은 행위를 일삼던 카밀은 그녀로부터 ‘포허르 깨따(네팔말로 더러운 놈)’라는 치욕스런 말을 듣게 된다. 그 때 카밀은 ‘번개가 치는 것처럼 바르도⁸⁾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는 카밀의 카르마가 사비나의 카르마로 엮어 들어가는 순간을 의미한다. 사비나를 통해 카밀은 자신의 카르마와 바르도를 인식하게 된다. 사비나는 어머니가 카밀에게 가르쳐준 모귀⁹⁾를 인식시켜준 운명의 여인으로, 카밀에게 본래 티베트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일깨워 준다. 즉 카밀은 사비나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 속에 숨어있던 카일라스 산이 보이는 양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카밀의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강자(네팔말로 오체투지)로 한 바퀴 돌았던 그 곳, 다시 말해 삶도 죽음도 없는, ‘고통 속에 카르마를 쓸어버린 성스런 카일라스’가 자신의 몸속에 흐르는 것을 카밀은 느낄 수 있게 된다. 술도 더 이상 마시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관계도 끊은 카밀은 오로지 아버지의 카펫 가게 일에만 전념한다. 그렇게 해서 카밀은 사비나의 한국행 비용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그러나 사비나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카밀은 사실 코리안 드림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는 아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카밀은 고통스런 한국생활로 인하여 회의에 빠지게 된다.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논리가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된 한국사회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 ‘산성화한 사람들이 단단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구조화된 세계’이다. 카밀은 결코 그 구조의 중심에 편입될 수도 없으며, 그 구조로부터 자신의 순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만다. 이처럼 사는 게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카밀은 카일라스 산으로 떠난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맑고 에메랄드처럼 파란 마나사로바 호수가 있는 카일라스 산으로 그는 마음의 고향을 찾아간다.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공포된 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합동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희생자가 발생하기

8) 티베트말로 바르(bar)는 사이, 틈, 도(do)는 매달린이라는 뜻으로 위험한 어떤 뜻, 과도기를 의미한다.

9) 모귀는 티베트말로 간절한 그리움, 존경, 헌신을 의미한다.

시작하자, 카밀은 강제추방반대 농성에 적극 참여한다. 이처럼 자신을 헌신하며 모귀를 실천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준 힘의 원천은 바로 카일라스를 향한 그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그의 양가성은 이러한 데 기반을 두고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모두…… 저만 아니고, 모두들…… 자기 자신만을 위해 농성, 안 해요. 지금은요. 우리가 투, 투쟁하는 거, 외국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한국,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과도 관, 관계 있어요. 못사는 사람들 계속 못살면, 좋은 나라 안돼요. 못돼요…….”¹⁰⁾

”저, 신, 신념, 있어요. 지금까지, 농성하면서요, 저, 잘 모르고 잘못 살아왔다, 생각했어요. (중략) 여기서 제가 맡은 역할, 꼭 해야만 돼요. 이런 기분 생전 침인 걸요. 용, 용서하세요. 농성 끝나면, 말씀대로 할게요.”¹¹⁾

신성한 카일라스 산에 대한 카밀의 신념은 그가 숭상하는 티베트 불교에서 한 성인의 잠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이 세상의 어떤 기쁨도 다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농성의 현장에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꽃은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의 희생에 대한 분노의 불꽃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헌신하고 싶은 불이었다. 즉 농성에 합류한 후 그는 현실적 문제와 종교적 신념을 마음속으로 합일시킨 셈이다. 이처럼 『나마스테』에서 주인공 카밀은 두 개의 서사공간(카트만두와 서울)의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핵심적인 서사공간(카일라스)의 이상세계로 들어가 자신의 고향을 다시 발견함으로써 양가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삶의 구심점이 되는 카일라스 산을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밀은 한국인들의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농성장에서 混在된 상태다.

카밀은 물론 농성 지지파 수장이었다. 이제껏 잘 꾸려지던 공동체가 삐걱삐걱 균열이 갔다. 밤마다 토론이 벌어졌지만 뒷맛은 늘 좋지 않았다. 카밀에게 동조하던 사람들조차 2월이 되자 대부분 현실론에 동조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중략) “아네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카밀이 비장하게 소리쳤다.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카밀은 한 삶, 한 사람, 오랫동안 고통을 나누어온 동지들을 핏발 선 눈으로 바라보았다.¹²⁾

코리아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으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폭압적인 인간사냥’을 규탄하기 위해 일터가 아닌 광화문 부근의 성당에서 데모를 하게 된다. 그들에게 서울은 더 이상 꿈의 실현을 보장해줄 공간이 아니라 절망과 분노로 가득찬

10) 『나마스테』, 311쪽.

11) 위의 책, 312쪽.

12) 『나마스테』, 349~350쪽.

투쟁의 공간으로 바뀌고 만 것이다. 그러나 투쟁 기간이 지속 될수록 그들도 서서히 지쳐만 간다. 결국 현실의 벽을 뛰어넘지 못한 채 그들은 자진 해단식을 한다. 새로운 법 실행을 통한 한국정부의 강경책에 그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농성이 완전히 해체된 후 카밀은 '온갖 카르마를 쓸어갈 만트라'를 잊으며' 카일라스의 신묘한 산소리'도 잊고 만다. 그에게서 양가성은 사라지고 만 것이다. 해단식마저 불참한 그는 어느날 고층호텔의 옥상 외벽에다가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현수막을 내려뜨린 채 투신하고 만다.

III.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직장과 그 주변 사회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공간은 직장과 그를 에워싼 지역사회이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나마스테』에서는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총체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해석 과정 속에서 오래된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피부색에 대한 편견들의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설에 나타나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도자 하는데, 특히 주인공 카밀을 비롯한 그의 동료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인가도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에서 카밀과 그의 동료 덴징과 구름, 사비나, 로리와 펠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로 인하여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치열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한국에서 불법체류자¹³⁾로 남게 되어서 하루하루 위태로운 삶을 연장해 갈 뿐이다.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으로 인한 강제추방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궁지로 몰아가면서 일단 자살을 유발시키는데, 이에 충격을 받은 카밀은 동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단속과 연행'하는 것을 철폐할 것과 강제추방반대를 옹호하는 농성장의 선두에 서게 된다. 즉 항상 일에 있어서 '모귀(헌신)'을 우선시 하는 카밀은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추방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농성장에서 首長이 된 것이다. 사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카펫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일을 도우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해온 카밀은 코리안 드림¹⁴⁾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13) 불법취업자들은 여러 가지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정부 당국에 의한 색출과 고발, 그리고 강제출국의 위협을 항상 안고 일하게 된다(석현호·정기선·장준오,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1998, 112쪽).

14)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취업을 선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금전적인 것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인 노동자가 '돈을 벌기 위하여' 한국에 왔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민족·출신

과는 애초부터 다른 부류이다. 그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자 가족생계의 젖줄인 셈이다. 이같은 코리안 드림을 목적으로 한국에 가있는 연인 사비나의 소식이 끊기자, 카밀은 곧바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연인을 만나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카밀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법체류 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로 전락하고 만다. 연인을 다시 만난 그는 고국 네팔로 돌아가려 하지만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 당할 상황에 직면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을 간과할 수 없게 된다. 즉 코리안 드림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도 아닌 모호한 입장에 서있는 카밀이 결국 농성에 참여하게 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별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서 차별은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선적으로 한국인의 배타적 민족의식에 있다. 즉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 요인 가운데 하나가 민족주의적 배타성¹⁵⁾, 즉 피부색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네팔 사람 덴징의 한 친구는 '한국 사람만 되면 욕 안 먹고 사람대접 받을 줄 알'고 한국 여자와 결혼하여 귀화까지 한다. 그러나 한국사람 누구도 그를 한국인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회사 진급에서도 그는 누락된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사용자뿐 아니라 동료 한국인 노동자로부터도 명령을 받는 위치에 있다.¹⁶⁾ 심지어 덴징의 친구는 아내의 친정집에서도 외톨이 신세가 된다. 즉 귀화는 그에게 법적권리 몇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아닌 것이다. 이런 차별의 요인이 국적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의 피부색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된 덴징의 친구는 결국 네팔로 돌아가고 만다. 이처럼 덴징 친구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은 자기보다 잘 사는 서구 선진국 출신의 얼굴이 하얀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긴 하지만, 자기보다 못사는 후진국에서 온 얼굴이 대체로 까만 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준다. 더구나 아직도 한국을 단일민족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¹⁷⁾

카밀의 동료 덴징과 구룽 그리고 로리 또한 자신들을 차별한 공장주와 동료 한국인들에 대한 원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들에게는 한국인들 어느 누구와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한편 소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바라본 한국사회, 다시 말해 카밀을 비롯한 외국

국을 불문하고 공통된 사실이다(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27쪽).

15) 경제적 필요성과 민족주의적 배타성, 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수입 정책이 결정되었다(위의 책, 150쪽).

16) 위의 책, 265쪽.

17) 김은미·양옥경·이혜영,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111쪽.

인 노동자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문화적 갈등’¹⁸⁾이라는 분석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소설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언어소통의 문제가 있다. 카밀과 같은 네팔 사람 텐징은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말이 ‘암마’였다. 공장에서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누구든 자신을 ‘암마’라고 불렀기에 텐징은 그 말이 인사말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회장에게 실수를 한 적도 있었다. 한편 구룡은 주인이 자신에게 ‘줄라 말 많은 놈’이라고 한 데서 시작되어 붙여진 ‘줄라’라는 별명이 처음에는 좋은 말인 줄만 알았다고 한다. 이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비하하는 차별적 언어행위이다. 다시 말해 언어적인 문화적 차이가 문화적 차별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생활방식에 빨리 적응해간다. 주인공 카밀과 그의 동료 구룡과 텐징, 그리고 로리와 그의 아내 펠르는 이 같은 한국인들의 차별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입장에서 있게 된다.

반면에 소설에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고용주나 관리자가 바라본 외국인 노동자, 다시 말해 카밀이나 그의 동료들, 그리고 사비나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나 관리자의 의식은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편 소설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회적 거리감¹⁹⁾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사회적 거리감은 흔히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와 같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황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 그들이 외국인으로 한국 생활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일반적인 상호작용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자신들이 접촉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개인적인 속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집단적 속성으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다. 다음 인용문을 통해 카밀의 이런 성향을 알 수 있다.

이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 앞으로도 계속 가난한 아시아 나라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라고, 가난뱅이라고, 피부색 틀리다고 편, 편견, 가져봐. 우리 애린이 컸을 때 나처럼 고통받을 거야.²⁰⁾

18) 문화적 갈등이란 개개인이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므로 인하여 겪게 되는 문제들로서, 언어소통의 문제, 가치관,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겪게 되는 문제, 그리고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19) 사회적 거리감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을 말한다.

20) 『나마스테』, 338쪽.

TV를 통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강제추방하기 위한 단속반이 조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동료 구름이 결국 음독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른다. 본래 심성이 착하고 정이 많은 카밀은 이 소식에 큰 충격을 받는다. 카밀은 술에 취한 채 한국인 아내 신우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왜…… 구름이…… 여기서…… 손…… 손가락도 잘……리고…… 죽어야 해요?
자기 나라…… 대……대한민국…… 그렇게 잘났느냐구요. 우리…… 네팔리 사
람…… 한국 사람보다 못…… 못하지 않아요. 다 착……해요. (중략) 한국…… 싫
고…… 누……나도 싫고…….”²¹⁾

카밀의 이런 말에 그녀 또한 큰 충격을 받는다. 카밀과 그녀 사이에는 '건너뗄 수 없는 견고한 성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네팔 사람 카밀이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카밀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민족)과 가족(사랑)은 서로 배타적인 경우가 될 수 있다. 사실 한국을 싫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밀은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한국 사람들, 학바(카밀의 동료)를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생각해요. (중략)
우리 네팔 사람처럼 가난해왔고, 침략 받아왔고, 돈 벌러 팔려가 왔고, 그러니 우
리 같은 사람들 심정 잘 알 테니 뭐든지 이해해주겠구나, 생각하는 거 당연하지
않으냐구요. 그런데 학바 회사 관리부장, 말하는 거예요.
너희 같은, 종자가 다른 놈들 보면 무조건 화가 나. 패고 싶어.
미안해요, 누나.²²⁾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들 간에도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카밀의 경우는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카밀은 한국 사람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국생활이 고향처럼 아주 편안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카밀은 한국인 아내 신우가 자신을 극진히 보살펴주는데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항상 고향 마르파와 어머니, 카일라스 산 그리고 옛연인 사비나를 생각한다.

카밀은 어린 시절 고향 마르파에서 빙하가 흘러내리는 강과 설산, 사과밭을 너무도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 그 때 카밀은 고향 마을 뒷산에 있는 사원에서 마니차를 온종일 돌린 적이 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비는 일종의 기도 행위다.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그의 정성이 물거품이 되며 어머니는 닷

21) 『나마스테』, 242쪽.

22) 위의 책, 84~85쪽.

새 만에 돌아가시고 만다. 그 이후 고향을 떠나 도시 카트만두로 온 카밀은 아버지의 재혼과 함께 반항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가족의 위기를 자초한다. 새엄마한테 꿈쩍 못하는 아버지는 돈만 추구하기에 그 야속함이나 섭섭함을 심하게 느낀 카밀은 새로운 가족 전체가 혐오스러운 것이다. 새가족과 단절된 공간 속에서 외롭게 지내오던 카밀을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준 운명적인 사람은 바로 그의 동창생 사비나이다. 그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여태껏 희생해온 여자다. 카밀은 그녀를 통해 '죄악을 씻고 속죄하여 새로 탄생하는 카르마' 즉 바르도의 순간을 경험한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카밀과 신우의 관계는 무언가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있다. 특히 그들 부부간의 거리감은 신우가 카밀에게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3D업종을 기피하는 한국인들로 인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들로 그동안 대체하여 왔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법의 문제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 당하는 신세가 된다. 원래 코리안 드림이 목적이 아닌 카밀의 경우 자신에게는 이런 불합리한 법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와 한국인의 배타적 민족의식에 반기한 그는 결국 농성에 적극 참여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그와 동료들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는커녕 도외시한다. 이처럼 한국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그들은 종교나 사회봉사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농성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강제추방반대 농성의 실패와 동료의 피해를 더 이상 보다 못한 카밀은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의 이런 결정을 아내 신우나 옛연인 사비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카밀은 한국인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카밀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극진한 한국인 아내가 있기에 한국사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한국인들의 차별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한계에 이른 것이다.

한편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호막이 없는 직장 내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다반사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들에게 부여되는 직무'에 집중된다. 그들의 직무는 누군가가 반드시 하기는 해야 되

23) 한국인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 및 밀접한 사적 관계를 가지는 관계적 거리는 일반적으로 (외국인을) 대할 때보다 훨씬 더 거리를 두는 성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김은미·양옥경·이혜영,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50-53쪽).

지만 생상과정에서 소위 '힘들고 지저분하며 위험한' 일이 많다.²⁴⁾ 소설에서 한국인에 대한 카밀 동료들의 거리감은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들이 경험한 좋지 못한 사건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이를테면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속성을 말한다. 따라서 그들은 카밀과 함께 강제추방반대의 농성에 참여하면서도 소극적 자세로 조심스럽게 행동할 뿐이다.

코리안 드림을 위해 한국에 온 사비나는 공장주와 직장상사의 횡포로 농락당하고 만다. 즉 한국인 직장상사와의 굴욕적인 성관계를 통해 그녀는 죄책감에 빠진 나머지 카밀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으려 한다. 또한 사비나는 신우의 집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거리감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집단적 속성으로 이해하려는 성향이 있다. 소설에서 신우나 그녀의 오빠에게서 이런 성향을 볼 수 있다.

오빠가 탁자를 소리나게 쳤다.

"건방진 놈이네, 야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뿐 아니라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²⁵⁾

특히 카밀의 아내 역할에 충실한 신우는 카밀이 마치 한국생활이 편안해서 자신이 외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된 그녀는 카밀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돈벌이 욕심에 제 나라도 등지고 여기까지 떠밀려 온 주제에……라고, 나는 생각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암튼 카밀에 대해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²⁶⁾

그는 그저 철없고, 유순함을 가장한 가난한 나라에서 온 청년에 불과했다. 멍청하고 자신감이라고는 없는. 네팔이 어떤 나라인가. 세계 최빈국이 아닌가.²⁷⁾

신우는 오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카밀과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우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카밀이 신우에게 거리감을 보이는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옛 연인을 잊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신우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내버려두면서 여태껏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다. 사실 카밀에 대한 신우의 헌신은 그녀 자신을 위한 행복 그 자체였던 것이다. 즉 사랑이라는 구실로 카밀을 그녀 자신의 城 안에 가두려 한 집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카밀에 대한 사랑이 한계에

24)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265쪽.

25) 『나마스태』, 311쪽.

26) 위의 책, 54쪽.

27) 위의 책, 54쪽.

이른 신우는 집단적 속성을 보여주기에 이른다. 즉 카밀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신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전형적인 편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박범신의 『나마스테』에 나타난 외국인 노동자의 재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소설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 않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직장과 그 지역 사회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공간은 직장과 숙소, 그를 에워싼 한국사회이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여러 형태로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른 사람 즉 혈통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면 線부터 긋기 시작하는 모순된 한국 사회의 희생자이기도 하다. 『나마스테』에서는 이러한 희생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소설에 대해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이 구체적으로 재현된 경우, 특히 외국인에게 이중잣대를 보여주는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피부색에 대한 편견들의 실체가 소설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인공 카밀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서사공간의 측면에서는 카일라스, 카트만두, 서울의 세 서사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간과 주인공의 현실인식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분명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신념 위에서 주인공 카밀은 외국인 노동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방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세계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서 카일라스라는 이상세계의 마음의 공간을 한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총체적 삶을 보여준 『나마스테』에서는 물론 작가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 모두 즉 한국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입장에서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 연합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실 소설에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편견과 고정관념을 버린 한국인과 피해의식에서 벗어난 외국인 노동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한국 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뜻을 모아 지혜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고원정, 『한국인』2, 해냄, 2000.
- 고종석,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과라 21』, 문학동네, 2004 봄.
-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신문사, 2005.
- , 『출라체』, 푸른숲, 2008.
- , 『고산자』, 문학동네, 2009.
- 손홍규, 「이무기 사냥꾼」, 『문학동네』, 2005 여름.
- 김재영, 「코끼리」, 『코끼리』, 실천문학사, 2005.
- 이혜경, 「물한모금」, 『틈새』, 창비, 2006.

2. 논문 및 저서

- 강진구,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양상」, 중앙어문학회, 『語文論集』제 41집, 월인, 2009.
- 김은미 · 양옥경 · 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 김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 석현호 · 정기선 · 장준오, 『外國人 勞動者의 勞使關係와 社會的 適應』, 집문당, 1998.
- 설동훈,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성규탁 · 한동우 · 김재엽, 『國內 外國人 勞動者의 問題와 對策』, 집문당, 1997.
- 오경석 외,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 현실과 쟁점』, 한울아카데미, 2007.
- 이승훈, 『현대비평이론』, 태학사, 2001.
- 이현정, 『우리의 미래, 다문화에 달려 있다』, 윈앤윈북스, 2009.
- 전숙자 · 박은아 · 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그린, 2009.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1부

제2주제

동화, 정복, 번역

: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발 표 자 : 김주리(동덕여대)

동화, 정복, 번역 : 한국 근대 소설 속 혼혈 결혼의 의미

김주리(동덕여대)

I. 서론

이효석이 1940년 국민신보에 연재한 일본어 소설 <푸른 탑>은 제국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조선(피식민)인 안영민과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제국) 여성 요코의 혼혈 연애와 결혼을 그리며 내선일체 이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피식민 남성과 제국 여성의 결합이라는 서사와 교차되고 있는 것은 조선의 귀족이며 ‘백장미’로 집약되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민소희의 실연과 유럽행이다. 요코와 영민의 굳건한 결합으로 인해 영민을 유혹하는 데 실패한 소희는 미국 영사 ‘스미스’의 딸 ‘엘렌’과 동행하여 숙원이던 유럽 여행에 나선다. <푸른 탑>의 마지막 장면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영민과 요코가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해 온 “불손한 해협”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외국인 남자와 맑고 귀여운 한복차림의 여자, 사람들의 눈을 끄는 귀여운 두 사람의 한 쌍”, 엘렌과 민소희를 발견하는 것이 된다.

선실을 나와 많은 사람에 섞여 트랩을 내려선 영민들은 수십 미터 앞의 화려한 색채를 알아차리고 문득 피곤한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았다. /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

요코는 무심코 인과 중에 우뚝 서서 정직하게 탄성을 쏟았다.

“미국 처녀다. 틀림없이.” / 영민과는 다른 방향을 보며 요코는, / “나는 이쪽의 한복을 입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옷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이에요.”¹⁾

배에서 내린 요코와 영민은 각기 다른 존재를 향해 아름답다는 탄성을 쏟는다. 즉 피식민인 영민에게는 미국 처녀 엘렌의 서구적 아름다움이, 제국 여성 요코에게는 조선 처녀 민소희의 토속적 아름다움이 먼저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피식민인의 시선은 서구 제국의 보편적인 미(금발백안)를 향하며 제국의 시선은 식민지의 색다른 미(한복)를 향한다. <푸른 탑>의 서사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피식민 청년 영민은 제국 여성을 미를 동경하며 아내로서 수입하고, 피식민 여성 소희는 자신의

1) 이효석, <푸른탑>, 정창희 역, 『새롭게 완성한 이효석 전집』4, 창미사, 2003, 418-419면

미를 발견하는 제국을 향해 그 미를 전시하기 위해 떠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영민과 요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세계는 일본인 요코가 고운 한복을 지어 입고 이를 영민에게 전시하기 위해 ‘왕가 일족의 유원이었던’ 비원을 찾는다는 것으로 나아간다. 한복을 입은 요코의 아름다움을 확인하면서 영민은 “요컨대 우리들은 서로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어요. 혈액형도 같았고, 지금 신체의 모습도 같아요. 다른 것은 다만 단체뿐이에요. 전통만이 달랐어요.”(421)라는 말로 최종적으로 서로간의 이질성이 결정적인 것이 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차이보다 동일성에 주목함으로써 그들은 손쉽게 내선간 혼혈결혼의 완전함을 그려 보인다.

제국 여성과 피식민 남성의 결혼이 제국 여성의 한복 입기라는 형식으로 손쉽게 동화, 융합되는 것이라면, 한복을 입은 채 색다른 미로서 전시되기 위해 떠나간 민소회는 무엇에 기대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가 만약 미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혼혈 결혼은 영민-요코의 결혼과 어떻게 다른 것으로 자리매김될까? 제국 여성-피식민 남성의 연애나 결혼과 제국 남성-피식민 여성의 연애나 결혼이 같은 의미로 서사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 과연 제국 여성에 대한 피식민 남성의 응시와 피식민 여성에 대한 제국 남성의 응시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이러한 질문들은 (서구) 제국과 (동양) 피식민인 사이의 결합을 고찰함에 있어 젠더적인 차이와 시선의 위계라는 문제를 중시하도록 한다.

식민지 시대 소설 속에서 혼혈 결혼이란 식민지와 제국, 보는 자와 보이는 자, 남성과 여성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가운데 서사화되고 있다. 인종적, 민족적 이질성을 기반으로 한 혼혈 결혼은 1912년 이인직의 <빈선랑의 일미인>을 출발점으로 해서 염상섭의 <남충서>, <사랑과 죄>, <이심>, 김동인의 <여인>, 이효석의 <벽공무한>, 임영빈의 <사랑의 모험> 등으로 이어지며 1940년대 초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내선(연애)결혼을 다룬 소설들(채만식의 <냉동어>, 이효석의 <아자미의 장>, 정비석의 <껌질>,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그들의 사랑>, 최정희의 <환영속의 병사>, 한설야의 <피>와 <그림자>, 김사랑의 <빛 속으로> 등)로 나아간다.²⁾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혼혈 결혼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는 1940년대 일본어 창작 소설들을 주로 다루면서, 내선 연애, 결혼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에 대한 협력이나 저항을 읽어내거나³⁾ 내선 연

2) 서양인과의 연애, 결혼을 다룬 소설과 일본인과의 연애, 결혼을 다룬 소설을 뭉뚱그려 논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서양인과의 혼혈 결혼이 조직적인 요구로서 제출된 것이 아닌 반면 내선 결혼의 경우 내선 일체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텍스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내선결혼을 다룬 서사가 1940년대에 고유한 것이 아닌 이상 혼혈 결혼에 대한 분석을 굳이 내선 결혼에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다. 본고가 지향하는 것은 이질적인 동시에 위계화된 두 (민족) 정체성의 결합 과정에서 젠더와 시선의 위계가 어떤 방식으로 차이를 가로 지르는지를 모색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3) 이상경, 『일제말기 소설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층위』, 『친일문학의 내적 논리』, 역락, 2003, 121-152면

에, 결혼을 가능케 한 욕망의 세부를 들여다보며 내선 결혼을 통한 식민/제국, 젠더 위계의 균열을 밝히거나 내선일체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드러내는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⁴⁾ 본고에서는 내선일체 이데올로기라는 강요된 수사와 무관하게 이질적인 두 (민족, 국가) 집단의 구성원이 연애, 결혼으로서 결합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민족(국가) 정체성의 근거를 달리하는 개인의 결합이란 측면에서 혼혈 결혼이 식민/제국, 동양/서양 서로간의 차이를 어떻게 지우는 지, 차이의 병치(정복)나 차이의 거세(동일시), 차이로서의 소통이 식민/제국, 젠더적 위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서사화되는지 분석할 것이다.

II. 동화 : 피식민 남성의 세계주의와 교양의 환각

<푸른 탑>과 같은 시기에 한국어로 창작된 이효석의 장편소설 <벽공무한>에서는 금발백안의 러시아 미인 나아자와 조선인 문화브로커 천일마의 ‘세상에서 제일가는 연애’⁵⁾로 불리는 혼혈 결혼이 그려진다. 천일마를 비롯한 피식민 문화 지식인에게 ‘세상에서 제일가는 연애’란 ‘예술과 함께’ 수입해 오는 것, 곧 서구적인 교양과 외모의 소유자인 금발백안의 미인을 옆에 끼고 귀국하는 행위가 된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어 제각기 자기나라의 말로 떠들어대는 하얼빈의 댄스홀이 피식민 동양 남성과 제국 서양 여성의 만남과 연애를 가능케 하는 장소로 설정되며, 언어가 아니라 댄스 스텝이 금발백안 미인과의 연애를 가능케 하는 자질로 그려진다. 댄스 스텝의 공유야 말로 ‘국제인의 자격’과 결부된 까닭이다.

나아자와 말할 때, 일마는 물론 영어나 혹은 러시아어의 토막말로써 말과 감정이 지금과는 판연히 달라지는 것이었으나, 그런 국제인의 자격으로 조금도 서투른 법 없이 나아자와는 이상하게도 조화가 되었다. 몇 번 밖에는 만나지 않은 사이 연만, 친밀한 구면인 듯한 느낌이 난다. 음악에 맞추어 스텝을 밟아도 익숙하다.(54)

피식민 지식인 남성과 제국 여성간 혼혈 결혼은 댄스와 음악에 대한 감각의 공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한민족어문학』50, 2007.12,

4) 제국 여성/식민지 남성의 사랑을 이항 대립적 위계질서의 균열로 의미매김하는 심진경, 「식민/탈식민의 상상력과 연애소설의 성정치」, 『민족문화사연구』, 2005와 김미영, 「일제강점기 내선연애(결혼)소설에 나타난 일본 여성에 관한 표상 연구」, 『우리말글』41, 2007 과, 내선연애결혼 소설에서 동화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폭로하면서 내선일체 사상과 개인의 욕망이 갖는 간극을 폭로하는 한민주, 「일제말기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 2005와 김수영, 「동화 이데올로기-그 이상과 현실의 변주」, 『한민족문화연구』22, 2007.8 및 조윤정, 「내선결혼 소설에 나타난 사상과 욕망의 간극」, 『한국현대문학연구』27, 2009 등이 있다.

5) 이효석, <벽공무한>, 『이효석 전집』5, 창미사, 1983, 13면

유, 서구적 교양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천일마의 매혹은 음악에 대한 감식안과 댄스 실력, 만주를 무대로 활약하는 ‘국제인의 자격’에서 오는 것이다. 천일마와 나아자의 ‘국제인의 자격’(교양)에 입각한 친연성은 그들의 국적, 인종, 민족 등의 경계를 뛰어넘은 소통을 가능케 한다. 구라파 사람이건 동양 사람이건 서구 문명적 매너를 갖추었을 때 그들의 결합은 정당하며 어울리는 것이 된다. 민족의 요건이 아니라 문명적 교양의 요건에서 동질감이 조직되기에, 혈연이나 민족과 무관한 자리에서 국제인의 매너, 서구적 교양에 입각해 정체성을 조직한다는 것, (서양) 제국이 구축한 문명을 고향처럼 그리워한다는 구도가 피식민 남성, 제국 여성의 혼혈연애 결혼에 가로놓인다. 그것은 피식민 여성과 결합하는 제국 남성이 품는 ‘이국에 대한 그리움’과 다른,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서로간의 차이가 아니라 동일성을 강조하는 세계주의 담론으로 나아간다.

구라파에 대한 애착을 나는 가령 구라파 사람이 동양에 대해서 품는 것과 같은 그런 단지 이국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보다도 한층 높이 자유에 대한 갈망의 발로라고 해석해왔다. (중략) 오늘의 세계는 구석구석이 그 어느 한 곳의 거리도 구라파의 빛을 채색하지 않은 곳이 없으며 현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곳에 대한 회포는 흡사 고향에 대한 그것과도 같지 않을까.6)

이효석은 피식민인(동양인)의 구라파(서양 제국)에 대한 지향을 서구인의 단순한 이국취미, 동양 취미와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의 발로이며, 문화적 유산의 넉넉함에서 오는 풍족하고 관대한 풍습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이다. 구라파에 대한 그리움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곧장 유비할 수 있는 것은 피식민 지식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식민지(출신지)의 풍토가 아니라 서구 제국의 교양으로부터 직조해내기 때문이다. 교양은 제국과 문명의 논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특화된 계급의 취향과 감각, 향유를 대변하는 용어로, 스스로를 근대 문명의 교양을 갖춘 존재라고 명명함으로써 그들은 제국 여성과 자신 사이의 동일성(세계주의)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교양에 입각해 결합했다고 착각하는 피식민 남성의 서사는 이면에서 제국 여성의 환멸을 동반하고 있다. 혼혈 결혼이 형상화된 최초의 소설인 이인직의 <貧鮮郎의 日美人>에서부터 피식민 남성과 제국 여성의 결합이란 “영감이 내지에 있을 때에 얼마나 풍을 쳤소? 조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 같고, 영감 혼자만 잘난 듯 조선에 돌아가는 날에는 벼슬은 마음대로 할 듯, 돈을 마음대로 쓰고 지낼 듯 그런 호기찍은 소리만 하던 그 사람이 조선을 오더니 이 모양이란 말이 오?”7)라는 제국 여성의 공박처럼 피식민 남성의 허풍, 착각, 환각과 결부되어 있는

6) 이효석, <여수>, 전집 2, 318면

까닭이다. 제국 여성과 결합하는 피식민 남성은 제국의 교양을 자기화함으로써 자기 식민화의 환각에 도달한다. ‘조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 같고 영감 혼자만 잘난 듯’한 인식이란 피식민인으로서의 자기를 감추고 제국(서구)의 가면을 쓰는 행위이지만, 제국 여성의 응시 속에서 가면은 손쉽게 벗겨지고 마는 것이다.

한설야의 <그림자> (국민문학, 1942.12)에서 서술자는 교양의 동일성에 입각해 내선 연애라는 환상을 꾸며내는 피식민 남성 자아의 욕망 실체를 은연중 드러내고 있다. 10년 전 내지 여인 치에코와의 연애를 회상하는 조선인 남성의 추억에서 “그 세계는 동화처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187)⁸⁾이다. 그러나 이런 환상, 동화로서 명명되는 연애란 사실 “남들이 보면 당신 때문에 쓴 잔을 마신 거”(187)에 불과한 사건이다.

묘한 변명이지만 제가 당신과 진정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교감을 가지게 된 것은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분 때문에 당신과의 짧은 만남을 심정적으로 사실보다 더 기묘하게 재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을 약간 바꾸거나 과장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 이상의 세세한 환상을 꾸며내는 것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188)

사랑에 실패한 피식민 남성의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구성된 연애란 사실이 아니라 기묘한 재현이며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림자>에서 피식민 남성의 환상으로 재현된(왜곡된) 제국 여성과의 연애 이야기는 제국의 주체(치에코)가 바라보는 대상(김)의 자기 응시, 다시 말해 제국 여성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을 관찰하는 제국 여성의 눈에 비친 자신을 역으로 응시하는 복잡한 양태를 나타낸다.⁹⁾ 10년 전의 실연담을 동화, 환상으로 재구축함으로써 그는 자신을 제국 여성과 어쩔 수 없이 헤어졌으나 영원히 사랑으로 묶여 있는 동등한 대상, 교양을 갖춘 청년 신사라는 가면의 정체성으로 구축한다. 그러나 그 동화의 환상 속에서도 순간순간 그가 바라보는 제국 여성의 반응을 통해 제국 주체의 시선에 응시되는 대상으로서 피식민 남성의 우스꽝스러운 실체가 노출된다.

7) 이인직, <빈선랑(貧鮮郎)의 일미인(日美人)> (매일신보 1912.3.1) 『한국신소설선집』2, 권영민, 김종욱, 배경열 편, 서울대출판부, 2003, 200면

8) 한설야, <그림자>, 『식민주의의 협력과 저항』, 김재용 등 편, 역락, 2003

9) 레이 초우는 <원시적 열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예전에는 민족지의 대상이 되었던 문화의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정의하는 시각성, 지금은 민족지의 대상이 되었던 문화가 자기를 표상하는 경우의 주요한 측면이 되는 시각성이라고 불러도 좋은 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물으면서 보이고 있다는 상태는 비서양문화가 서양문화에 보이게 되는 방식에 편입되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고 있다는 상태가 비서양문화 스스로 자기를 표상하고 민족지화하는 적극적인 방식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보는 주체와 보이게 되는 객체라는 형식으로 분할된 고전적 인류학의 전제는 파괴된다. 보이는 객체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보는 주체를 쳐다보고 있다. 레이 초우, 『원시적 열정』, 정재서 역, 이산, 2004, 270-271면 참고

치에코와의 연애가 시작된 계기부터가 “책을 읽으며 걸어가다가 십자로 가까이에서 돌에 걸려 앞으로 넘어질 뻔”해서 “굉장히 꼴사납게 비틀거”(189)리는 모습을 그녀에게 들켜 웃음거리가 된다는 사건으로 자리한다. 헤겔을 탐독하는 교양이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 꼴사납게 비틀거린다는 광대의 몸짓을 통해 그녀와 교류하게 된 것이다. “품위가 있고 새침”한 제국 여성 치에코는 피식민인 남성에게 걸맞게 꼴사나운 ‘김’의 행동 앞에서 웃음을 보인다. 즉 그녀는 화자를 연애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셈이다.

이러한 제국 여성의 응시를 미처 눈치채지 못한 피식민 남성 화자는 하이네의 시집, 특히 연애와 결부된 달콤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은 책을 통해 그녀가 욕망하는 남성을 상상하고 그 남성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제국 여성과 자신의 연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 양 착각에 빠져든다. 그는 “문자라는 것이 일종의 마법과 같다는 생각을 하”고 “독서라는 공통의 기호가 두 사람을 깊은 인연으로 부르는 것만 같았”다는 환각을 조직한다. 그러나 문학 초년생으로서 <파우스트>를 읽으면서 ‘세상의 평판을 듣고 하나 읽고 반을 아는 식의’ 자기화하지 못한 독서, 중간 중간 골라 읽거나 닥치는 대로 읽는 식의 독서란 교양이 아니라 제국의 교양을 모방하는 흉내에 불과하다.

“제국은 시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참고 읽노라면 작가의 광기 어린 강렬한 개성이 마치 폭풍처럼 휘몰아쳐서 통쾌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그저 재미있으니까 읽어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은 안 읽죠.”

“그럼요 그러셔야죠. 책을 쓰는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는 주문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모르는 부분에서 황홀한 재미를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걸 느끼는 것이 철학이겠지만요.”

“아닙니다. 저는 철학 같은 거 잘 몰라요.”

“역시, 모르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거니까요. 호호호.”

당신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솔직한 얼굴이었습니다. (198)

제국의 지배자를 흉내 내는 광대로서 피식민 지식 청년은 자신의 독서 교양을 과장해 제국 여성의 호감을 사려 하지만 정작 그녀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조소뿐이다. 재미있으니까 읽으며 책 같은 거 잘 보지도 않는다는 사실에 부끄럼 없이 솔직할 수 있는 지배자 여성에 비해 피식민 지식인 남성은 어렵고 모르는 것을 읽는다는 사실 자체에 집착하며 교양을 연기한다. 이러한 그의 연기는 물론 식민지에서 행해지는 제국 주체의 교양과 도덕성의 퍼포먼스(연기)를 모방한 것이다.¹⁰⁾ 하지만

10) 퍼포먼스는 행위나 연행 등의 용어로 번역되는데, 이는 리비에어의 마스크레이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현재의 사회구조에서 여성들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의 공격성을 터부시하며, 전통적 개념의 여성성을 과장되게 표현할 경

그의 모방-퍼포먼스는 지배자 여성에게 ‘모르는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식의 조롱, ‘공부를 방해해서 죄송하다’는 식의 조소를 살 뿐이다. 이러한 제국 여성의 응시 속에서 제국 주체의 교양, 생활습속을 모방하는 피식민 남성의 퍼포먼스는 그를 세계 주의자로서 교양을 가진 주체로 호명하는 대신 기원에서부터 열등한 대상으로 바꾸어버릴 뿐이다.

임영빈은 <사랑의 모험>(문장, 1941.1)에서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조선 청년이 미국 학생의 초청을 받아 미국 중산층 가정을 방문한 후 그곳에서 만난 미국 여성(가정의 딸)에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의 모험’이라는 도피의 환상을 꿈꾸지만 그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기독교 박애주의로 무장한 서구 제국의 주체들에게 자신을 거세하게 만드는 욕망일 뿐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열등한 동양인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백인의 시혜의식은 피식민 조선 청년이 열렬히 욕망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에서 동양인 평등, 차이 없는 보편 인간론을 이야기하는 마호니씨는 다른 한편에서 철저한 인종차별주의자인 순행목사 미스터 브라운과도 별 충돌 없이 사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앵글로 색슨 여성이 이민족 남성과 결혼할 때에는 ‘삿갓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호니씨의 너무 자유주의적인 태도(동양인을 데려다 놓고 자기 딸과 데이트하는 것도 금하지 않는 태도)에 불쾌감을 토로하는 브라운 목사에게 마호니씨는 이민족간 결혼은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민족 결혼의 허용을 이야기할 뿐이다.

『목사님이 꽤 속이 텅줄 알았더니 아직 멀으셨구려. 우리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만민이 다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오. 만민이 다 하느님의 자녀면 거기 무슨 장벽을 둘것이 있으며 서루 혼인 하여서 못쓸 것은 어데 있겠어요. 참으로 미스터 박의 말과같이 당자간의 이해와 각오와 또 변하는 환경만이 문제지 인종적문제는 없을줄압니다.』(37)

마호니씨의 말에는 결국 기독교적 박애주의에 입각해 타인종간 결합이 가능하다는, 어디까지나 서구 우월주의적 보편성에 기반한 시혜적 태도가 담겨있을 뿐이다. 그는 기독교에 입각하지 않은 동양인이 서양 여인과 왜 결혼하고 싶어할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동양과 서양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서구 제국의 기반을 이루는 기독교의 보편성을 믿으며 동양인의 서양화라는 측면에

우에만 그들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매스커레이드를 통해 위장된 본질은 가면을 쓴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구분이 사라지면서 그 행위 주체의 내면화된 본질이 된다. 박형지와 설혜심은 식민지에 거주하는 제국 남성의 교양이나 도덕성과 같은 것은 일종의 퍼포먼스로 구축된다고 설명한다.(박형지·설혜심, 『제국주의와 여성성』, 아카넷, 2006, 42면) 이러한 퍼포먼스로서의 제국 남성성을 피식민 지식 청년은 혼성 모방함으로써 오히려 제국 여성의 응시하는 시선에 의해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서만 인종간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서양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동양인은 당연히 서양인의 문화에 동화되어야 하지만, 동양 사회에 정착해 살아가는 서양인에게 동양인의 문화에 대한 동화의 요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 제국 남성과 동양 피식민 여성의 혼혈 결혼은 어떻게 가능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Ⅲ. 정복 : 제국 남성의 이국 취미와 전시되는 식민 여성

앞서 논의한 이효석의 <푸른 탑>에서 민소희의 아름다움이 그녀가 사랑한 영민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국 여성 요코에 의해 먼저 발견되고 있는 것처럼 유럽을 향해 출발하는 민소희, 제3세계 식민지 여성이란 제국의 교양과 지식에 의해 유별난 것으로서 발견되고 전시되는 존재로 자리한다.

“욕심쟁이, -당신 참 미인이예요. 무엇을 입어도 잘 어울려요. 한복을 입고 미국에 가면 얼마나 예쁠까. 다회에서야 야회에서도 틀림없이 인기가 있을 거예요. 사교계에 치고나가서 한국의 미를 크게 자랑하는 거예요.” (중략)
“우리 본국에 스미스이아 슈도카메리아를 보내고 이번에 또 당신을 보내게 되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자랑을 세계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돼요. 내가 가장 영광으로 여기는 바이지요.” (390-391)

식물학자 스미스 부인은 민소희의 아름다움을 자신이 이번에 발표한 산동백의 신품종 “스미스이아 슈도카메리아”에 빗대어 표현한다. 소희의 아름다움은 특히 빛깔 고운 한복을 입고 있을 때 발휘되며 제국의 주체에 의해 발견되고 호명되는 것이다. 한국의 산속에 자라는 산동백이 수집 취미를 가진 제국 주체가 표본으로 만듦으로써 식물학이라는 근대 지식 속에 ‘스미스이아 슈도카메리아’로 호명되는 것처럼, 한복 입은 소희의 아름다움은 제국의 주체인 스미스 가족들에게 발견되고 발표되는 대상이 된다. 그녀는 서양인에 의해 발견되고 서양으로 수출되어 전시된다. 한복을 입고 미국으로 보내진 민소희는 그곳의 사교계에서 한국의 미를 집약하는 존재로서 전시되며 제국 주체에게 유혹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처럼 제국 남성-피식민 여성의 혼혈 결혼에서 피식민 여성에 대한 제국 주체의 엑조티시즘(이국취향)은 기본적 전제가 된다. 염상섭의 장편소설 <이심>에서는 유부녀 박춘경이 사기술을 발휘해 텍사스 석유회사 사무원인 미국청년 커닝햄의 엑조티시즘을 부추겨 그와 결혼하지만 남편(사실은 과거 동거인)을 자처하는 조선 남성의 복수로 유곽에 팔아넘겨지자 자살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춘경과 커닝

햄의 결합은 좌야라는 일본인 사기꾼이 춘경의 미모를 커닝햄의 엑조티시즘에 맞도록 거짓으로 조작하면서 출발한다.

커닝햄은 자기가 동양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할만치, 동양의 자연과 문물 풍습을 좋아한다는 말과, 자기는 직업상 관계도 있지만 동양에서 결혼하여 동양에 영주할 생각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것이란 말과, 언제나 내지여자가 아니면 조선여성과 <스윗홈>을 꾸미라는 결심을 하고 일본말을 열심히 공부하고 조선말도 배웠다는 말을 장황히 늘어놓은 뒤에 춘경이가 가정의 형편과 자기 개인의 사정으로 커닝햄의 고마운 뜻을 받아줄수 없다고한 것은 무슨까닭이냐고 냇가린 것을(158)¹¹⁾

금발 벽안의 서양인 커닝햄에게 동양은 미학적인 숭배의 대상으로 자리하는 것 같지만 이러한 그의 동양숭배란 이국취향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행위, 즉 이국 여성의 육체를 빌어 자신의 색다른 교양을 과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는 동양의 자연과 문물풍습을 좋아하기에 동양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지만 그 스스로 동양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욕망하는 스위트홈이란 다른 서양인에게 보이기 위한 미학적인 동양이며 전시되는 풍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춘경이 어떤 사람인지 내력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며 좌야가 엉터리로 꾸며대는 몰락한 재상의 딸, 부모의 강압, 규방에 갇힌 여인이라는 거짓된 환상을 철석까지 믿고 사기 결혼을 행한다. 그 결혼은 좌야의 사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춘경이라는 조선 여성에 대한 그의 응시가 왜곡된 것이기에 실패하고 만다. “커닝햄의 사랑은 그렇게 쉽사리 식을 것은 아니었으나, 춘경이는 그 사랑을 만족히 받아주기에 힘이 겨웠다. (중략) 한편으로는 사교계의 스타아가 되리라고 믿었던 춘경이를 실제로 내놓고 보니, 조선사람이라 하여 그러한지 여전한 양가의 부인네로 대접 하여 주지 않는 것을 보고는 불쾌를 느꼈다.”(279-280) 커닝햄은 춘경이 미국 사교계의 스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 그녀의 지위는 ‘양인 첩, 조선여자’의 열등한 위치에 머물 따름이다. 커닝햄과의 정식 결혼은 누구에게도 ‘어엿한 양가의 부인네’가 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양인의 첩 노릇’ ‘사매음’(밑매음) 행위로밖에 간주되지 않는다. 춘경의 실체와 무관하게, 한복이 잘 어울리는 뼈대 있는 조선의 처녀라는 이미지를 욕망하는 서양(제국) 청년 커닝햄의 사랑이란 그녀와 자신의 차이를 소거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그녀에게 동화되거나 그녀가 그에게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귀부인이라는 민속지적 존재로서 전시됨으로써 차이를 확연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처럼 식민지 시대 소설에서 제국 남성과 피식민 여성의 연애와 결혼은 제국 남성의 피식민 여성에 대한 엑조티시즘과 그에서 기원하는 차이의 확정행위,

11) 염상섭, <이심>, 『염상섭 전집』5, 민음사, 1988

전시되는 여성의 육체라는 문제와 결부된다.

일본어 소설 <소녀의 고백>(신태양, 1944.10)에서 이광수는 제국 남성 가쓰마로와 이주 조선인 여성 신정의 연애를 그리면서 가쓰마로의 신정에 대한 매혹이 그가 가진 이국 취미, 백제에 대한 매혹과 결부됨을 보여준다. “가문으로 보거나 학력으로 보거나”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게 된 것은 백제의 작품인 당초제사의 성관음상의 얼굴에서 신정의 얼굴을 읽어내는 가쓰마로의 응시가 작동함으로써이다.

“신정 상, 이쪽으로 얼굴을 돌려 봐.”

하고 고향쳤으므로 저는 아무 생각없이 가쓰마로님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가쓰마로님은 유심히 저를 응시하더니

“어이, 아사까야. 신정상의 얼굴이 성관음상과 똑같지. 저 부드러운 곳이나 팽팽한 부분말야. 그렇지? 미요꼬 상.” (중략)

“그렇다. 역시 그래. 백제 타입이야. 성관음님도 신자 상도.” (434)¹²⁾

제국 지식 청년과 피식민 이주 여성의 연애는 그가 그녀의 미를 ‘백제 타입’으로 명명하고 그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실로 폭풍같은’ 정열로 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가쓰마로님에게 사랑을 요구받았던 것은. 그리고 제가 가쓰마로님께 사랑을 바친 것은.”(434)이라는 진술에서처럼 요구받고 바치는 관계에 놓인, 제국의 위계도 젠더의 위계도 사라지지 않은, 차이를 넘어 차별로 고착된 관계 맺음이다. 조선 처녀 신정은 제국 청년 가쓰마로에게 버림받고 주변인들로부터 끝없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결코 그의 행위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뿐 아니라 그녀는 제국 청년의 이국취미, 백제타입의 미에 고착되어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조선의 전통을 탐구하려는 작업에 매달린다. “저는 제가 이런 기분, 혼란스럽지 않은 기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유유하고 낙천적인 피가 유전된 덕분으로 생각하며 감사합니다.”(435) 내지에서 태어나 자란 조선인 하층 이주민 여성으로서 그녀는 제국 남성이 그에게 부과하는 민족지(백제 타입)를 수궁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에 선조들의 피의 유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러한 그녀의 태도는 제국 남성이 부과하는 이국적 환상을 자기화함으로써 제국 남성의 정복과 전시, 응시하는 시선에 의해 왜곡된 정체성을 보여줄 따름이다.

최정희의 <환영 속의 병사> (국민총력, 1941.2)는 조선 지식인 여성이 일본 병사와의 연애를 통해 충후를 담당하는 강한 존재로 탄생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들의 연애는 일본인 야마모토 이등병이 조선인 영순에게 한글, 한옥과 같은 조선의 민족지를 투영하고 미학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12) 이광수, <소녀의 고백>,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이경훈 편역, 평민사, 1985

“아름다운 글씨군요. 당신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글씨가 살아있어요. 색깔과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중략)

“재미있네요. 이 글자의 모양은 조선의 가옥 구조와 많이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야마모토 병사는 경이의 눈으로 영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영순이 야마모토 병사의 시선을 그렇게 뜨겁게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야마모토 병사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언문의 모양이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가옥과 닮은 것처럼 보였다.(44)¹³⁾

야마모토는 언문에서 조선의 가옥을 발견하며 동시에 영순이라는 조선 여인의 색깔과 향기(이국적 정체성)를 읽어낸다. 지배자 남성의 응시에 의해 언문과 조선가옥은 조선의 민족지로 발견되며 이는 영순의 육체, 색깔과 향기에 집약된다. 다시 말해 영순은 지배자의 이국취미에 의해 빛깔과 향기가 덧씌워짐으로써 새로이 발견된다. 이러한 제국 청년의 이국 취미는 손쉽게 정복자(군인)의 독백, 강령으로 전환된다.

실은 여기에 와서 까달은 것입니다만 당신이 써 준 당신의 이름과 언문을 보면서 당신을 느끼고 당신 어머니와 친척들과 같은 동포인 조선인 전체를 느낍니다. (중략)

부디 당신도 저와 같은 이념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의 의지인 동양평화를 위해 강한 여성이 되어 주십시오. (46)

그는 조선과 지나의 가옥구조가 닮았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먼 옛날부터의 숙명적인 관계를 설파하고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동양평화를 위한 신의 의지로 재정의한다. 문제는 피지배자 여성이 지배자 남성의 이국취미에 동조해 “제가 쓴 언문에서 조선 전체와 심지어 지나까지, 즉 동양 전체를 느낀 것처럼 당신과 알게 되어 저도 전쟁이 제 일처럼 느껴져 우연히 병사들을 만나면 당신을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합니다.”(46)라고 쓴다는 데 있다. 정복 전쟁을 평화 추구로 왜곡하는 지배자 남성의 독백을 깨뜨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수용할 때, 그녀는 지배자 남성의 이국취미가 타자의 차이를 확정하고 타자에 대한 정복을 통해 차별을 확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마는 것이다.

IV. 번역 : 경계에서의 정주와 차이의 소통

피식민 남성과 제국 여성의 연애, 결혼이 서구적 교양에 대한 피식민 남성의 (과잉)모방으로 나타남으로써 세계주의(서구 보편주의, 기독교 박애주의)의 관점에서

13) 최정희, <환영 속의 병사>, 『식민주의와 협력』, 김재용 김미란 편역, 역락, 2003

서로간의 차이를 거세하고 환상적인 동화(同化)를 조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제국 남성과 피식민 여성의 연애, 결혼이 제국 남성의 일방적인 이국취미를 피식민 여성의 육체 위에 투사하고 그 정체성을 단순히 ‘다른 것’(차이)에서 나아가 하위의 것으로 발견, 규정하고 전시하는 정복 논리로 나타난다면, 과연 식민과 제국의 혼혈 연애, 결혼에서 동화와 정복이 아니라 제국/식민, 남성/여성의 경계를 넘어 차이로서 소통하는 결합이란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한 결합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경계상의 주체’로서 식민/제국, 남성/여성의 혼혈 연애와 결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¹⁴⁾ 이러한 주체는 “방랑자(망명객)의 이미지로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자기의 실질적인 모습을 찾다가 결국 본질적으로는 안식처와 안식처 <사이의> 인간에 머무른다는 이미지”로 집약된다. 망명자라는 것은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를 통해 고향이 부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계성의 주체로서 식민/제국, 남성/여성의 위계를 뛰어넘어 소통하는 혼혈 결혼 서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벽공무한>의 후반부에서 천일마는 국제인의 매너와 교양에 입각해 결합한 서구 여성 나아자에게 갑작스레 ‘쭈정이’ 계급의 동질성을 부여하고 있다. 천일마와 나아자는 피식민 동양인 남성 천일마가 서구 제국 여성 나아자로 대변되는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국가적 혹은 계급적으로) 빈 정체성(국가를 잃은 천일마, 계급 특권에서 쫓겨난 나아자)을 확인함으로써 굳건히 결합한다.

할빈은 어디보다도 심한 쭈정이의 도회이다. 거리는 국제적 쭈정이의 진열장이다. 삶에 쫓겨 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인다. (중략) 나아자-그는 쭈정이가 아니던가. 그 역 쭈정이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럼 나는 대체 무엇일까?)

일마는 자기 또한 하나의 쭈정이임을 알았다. 뜬돈 일반 오천원이 생겼대야 지금 정도의 문화사업을 한대야 기실 쭈정이밖에는 안되는 것이다. 쭈정이기리이기 때문에 나아자와도 결합이 되었다. 쭈정이는 쭈정이기리 한 계급이다.(139)

쭈정이들의 도시 할빈의 발견이란 천일마에게 소통의 상상력을 열어 놓는다. 국제적 쭈정이의 진열장으로, 삶에 쫓겨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 헤매는 망명객들의 집합소로서 하얼빈을 인식하면서 그는 나아자와 자신의 동질감의 근거를 발견한다. 실체를 빼앗긴 쭈정이, 돌아갈 고향을 갖지 못한 망명객으로서 그들은 서구 제국과 피식민 동양의 사이(하얼빈)에 거처한다. 서구인의 미모를 지니고 있대야,

14) 강상중은 “내부와 외부가 폭력적으로 분할되는 장, 그러면서도 지배적인 문화를 예지 불허의 이질화로 유혹할지 모르는 장이야말로 새로운 비적대적인 공동체가 성립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거울처럼 반사되는 경계상의 주체”(경계인 거울상)와 결부시킨다. 강상중,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모 역, 이산, 2003, 175-176면

돈 몇 푼과 문화사업의 레텔을 가지고 있대야 진짜는 되지 못하는 쪽정이다. 진짜가 아닌 쪽정이로서 운명의 공통성을 갖기에, 유랑의 동질감을 갖기에 그들의 결합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동화로 구성되는 대신에 각자의 정체성 가운데 아름다움을 찾는 소통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광수는 일본어 장편소설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녹기, 1940.3-7)에서 제국 청년 다케오와의 사랑을 받아들여 중국 대륙을 방랑하는 조선인 여성 석란의 존재를 그려 보이는데, 그녀는 망명 생활을 통해 중국어와 중국 문화, 지리에 익숙하고, 유학 생활을 통해 일본인보다 완벽한 동경어를 구사하는 피식민 조선 여인이라는 경계상의 주체로 형상화된다. 그녀의 완벽한 일본어와 일본인보다 더 엄격한 예법은 처음으로 조선 옷을 입고 조선 여자와 접촉한 타케오의 의식에 떠오르는 불쾌감, 이질감을 해체시키고, 유혹하는 힘을 발휘한다.

타케오는 석란의 일본어가 훌륭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진짜 조선인 아가씨인가 의심할 정도였다. 도대체 어디가 다르단 말인가. 어느 곳이 조선인적(朝鮮人的)인 곳인가, 하고 타케오는 석란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유일하게 다른 점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뿐인 것 같았다. 그 말투건, 예의건 무엇 하나 다른 점이 없지 않은가. (15-16)¹⁵⁾

석란에 대한 타케오의 매혹은 그녀의 세련된 예법과 훌륭한 일본어라는, 자신과 동질적인 자격요건에서 온다. 충식의 집에 머무는 4-5일 남짓한 기간, 타케오는 석란을 이상적인 타입의 여성으로까지 규정하는데, 이는 그녀가 일본인보다 더 유창한 일본어를 구사하고 구식 일본 여성보다 더 완고한 일본인의 예법이나 감정적 절제를 보여주는 까닭이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 같은 석란의 존재에 기대어 타케오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다르지 않음을 석란의 아버지 김영준 앞에서 강조한다. 그런데 이러한 타케오의 (계몽적) 동화 담론은 석란의 입을 통해 번역됨으로써만 김영준에게 전달된다. 조선옷을 입은 석란에 의해 일본인 청년과 조선인 노인의 대화가 번역되어야만 두 사람 사이의 공통성이나 동질감에 대한 논의는 구체성을 띠게 된다. 제국과 피식민, 원전의 언어와 토착민의 언어 사이를 오가며 번역하는 석란의 존재는 청년과 노인, 일본과 조선의 경계에 서서 서로를 거울처럼 반영함으로써 이질적인 두 세계 사이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된다.

후미에나 다케오 같은 진짜 일본인보다 유창한 진짜 동경말을 구사하는 석란의 번역 능력이란 조선, 일본, 중국 사이에서의 성장, 망명가로서 아버지를 따라 방랑하고 이방인으로서 동경에서 수학한 이력과 결부된다. 그런데 석란이 이러한 경계에 선 자신의 정체성을 제국 청년에 대한 사랑이라는 형식으로 환원함으로써 일견

15) 이광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이경훈 편역, 앞의 책

석란과 다케오의 사랑은 제국 남성에게 동화된 채 자기 식민화에 도달한 피식민 여성을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다케오와 석란의 관계에서 그녀의 매력은 단순하지 않아서, 다케오는 그녀를 이국취미의 대상으로 환원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을 재생산하지도 못한다. 그뿐 아니라 실명이라는 사건은 석란에게 완전히 의존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제국/식민, 남성/여성의 관계에 역전을 가져온다. 그들은 '선무공작'이라는 다케오의 허황한 욕망을 따라 중국 내부를 방랑한다. 그 자신 중국어를 한마디로 할 줄 모르고 장님이기에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제국 남성 다케오의 선무공작이 허무맹랑한 활극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중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석란이 옆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무공작이란 타케오가 대변하는 일본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석란이라는 조선인이 중국어로 옮겨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조선인 석란은 일본어와 중국어 사이에서, 제국과 식민지 사이에서 원전과 번역본 사이에서 과연 어떤 번역가로 자리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석란이 타케오의 말을 차례로 통역해 가는 도중에 초새들은 눈초리나 안색이 몇 번이고 바뀌었다. 때로는 놀라는 듯도 했으며, 또 때로는 곧 그대로 덤벼들 듯한 무서운 얼굴도 보였다. 한 명의 부관은 주먹을 쥐고 탁자를 쳤다. 석란의 여성적인 목소리나 몸동작의 우아함이 그들의 분격을 녹이지 않았다면, 아마 칼을 빼었을지도 모른다.(95)

다케오의 이데올로기적 강변에 대한 석란의 번역은 원문을 배반하며 소통을 지향한다. 조선인 석란의 중국어 번역에 의해 다케오의 선무공작(정복)은 오히려 여성적인 유희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타케오의 남성적이고 제국적인 담론은 석란에 의해 여성적인 목소리와 우아한 몸동작으로 중국인들에게 전달됨으로써 그들의 분격을 녹인다. 조선인 석란은 일본인과 중국인 사이에서 제국 남성의 일방적인 강령을 부드럽게 번역하고 여성적인 목소리와 몸동작을 사용함으로써 왜곡한다. 레이 초우는 벤야민의 번역 개념을 검토하면서 번역은 한편으로는 전통, 다른 한편으로는 배반과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벤야민에게 번역은 원전에 대해 해체적인 것인 동시에 원전과 번역본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해방이다. 이를 제국/식민의 문제와 결부지어 생각해 본다면, 번역은 토착문화와 이질 문화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거나 서로를 오염시키는 과정이다.¹⁶⁾ 이처럼 번역을 원전으로부터 번역본으로 일방향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케오의 선무공작이란 석란의 번역에 의해서만 성립되며 그녀의 번역에 의해 왜곡되고 그를 통해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¹⁷⁾ 번역 기계로서 석란의 중국 방황은 그러므로 다케오

16) 레이 초우, 앞의 책, 273-282면 참고

의 선무 공작과 완전히 같은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그녀는 시력을 상실한 다케오와 일본도 조선도 아닌 중국이라는 지역을 떠돌이로써 경계에 선 존재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획득하는 것이다.

한설야의 <피>(국민문학 1942. 1)는 십수년 전 일본에서 만난 여인과의 연애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끝없는 방랑을 이어가는 피식민 예술가의 회상으로 이루어진다. 선전에서 입선한 중견 동양화가로서 그는 일본인 스이후 선생의 문하에서 새로운 그림을 개척하기위해 동경으로 떠나려는 순간 어머니의 죽음을 겪게 된다. 오랜 생활고와 병에 시달린 어머니는 “내 앞에는 아직 고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 고생을 다하지 않았으니 하느님도 날 데려가시지는 못할 거야.”라고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며칠 못가 죽고 만다. 동경으로 떠나가는 피식민 예술가의 그늘에는 평생 양지에 나서보지 못한 늙고 병든 가난한 어머니, 썩발턴 여성의 존재가 가로 놓인다. 자신에게 ‘고향’으로 각인되는 썩발턴 여성,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고향도 빼앗아 갔다’고 하는 상실감을 가져온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고향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고향은 그에게 예술적으로 발견되고 추억으로 미학화된다.

고향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으로 겹겹이 싸여있어 K 향으로 가는 전마선 부두가 보일 쯤에는 인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아침 안개와 송림의 그림자가 서로 껴안고 있는 듯한 파란 풍경은 마치 전설에 나오는 선경을 떠오르게 했다. 그것은 이미 육체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으로 얻을 수 있는 몽환경처럼 보였다. (중략)

나는 전마선에 타는 것도 잊고 트렁크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고향의 풍경을, 오늘로 영원한 이별이 될지도 모르는 고향의 모습을 그렸다. 어떤 그림으로 할지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지금의 내 기분, 마음을 비추고 있는 자연과 어머니가 녹아 있는 그림자를 종이에 옮길 뿐이었다. (171)¹⁸⁾

어머니라는 썩발턴 여성의 죽음과 동시에 발견되는 고향의 풍경은 육체의 고향이 아니라 영혼으로 얻을 수 있는 몽환경이 된다. 그것은 아침 안개와 송림의 그림자에 싸인 푸르름으로 산 속 여승이 있는 절에서 울리던 범종의 소리처럼 회고의

17) 제국과 식민, 원전과 번역본 사이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배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번역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심>에서 미국인 커닝햄과 조선인 춘경 사이를 매개하는 일본인 브로커 좌야의 문제를 빠뜨릴 수 없다. 좌야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커닝햄과 춘경 사이에서 진실을 가로막고 끊임없는 거짓을 번역해낸다. 커닝햄에게는 춘경을 몰락한 조선 재상의 딸로 신비화하고, 춘경에게는 커닝햄을 타락한 서양 난봉꾼으로 매도함으로써 그는 춘경과 커닝햄이 진정으로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질 기회를 박탈한다. 좌야의 왜곡되고 배반하는 번역 행위는 커닝햄의 춘경에 대한 사랑도 춘경의 커닝햄에 대한 호감도 망가뜨리는데, 이러한 그의 행위 속에는 사실 커닝햄의 춘경에 대한 사랑이 속이 빈 환상이기에 서양 난봉꾼의 욕망에 불과하다는 것, 춘경에 대한 커닝햄의 호감이란 그녀가 재상의 딸이며 순결한 처녀라는 (꾸며진 사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복이 어울리는 동양 미인이라는 점에서 온다는 사실을 노출하기에 문제적이다.

18) 한설야, <그림자>,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김재용 김미란 노혜경 편역, 역락, 2003

미학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다. 특정한 울림을 갖는 향토로서 미학화된 고향, 남루함을 벗고 특정한 아우라를 갖게 된 어머니의 환상이 동시에 내가 꺼내 든 스케치북에 옮겨진다. 이 미학화된 고향의 풍경은 이후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완성되어 쇼토쿠태자전람회라는 제국의 전람회에서 인정받게 된다. 그는 제국의 전람회에 내보낼 그림의 화제로 고향의 풍경, 영혼이 거주하는 몽환의 땅이며 영원한 이별을 고한 땅을 선택한다. 현실의 고향이 아닌 핏줄의 고향, 조선적인 것이라는 영혼과 결부된 고향은 제국의 전람회라는 형식, 즉 제국의 시선과 기법에 의해 발견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과 탈향, 내지로의 이주를 통해 그에게 고향이 영원히 그리운 미학적인 대상이 되었다면 마사코는 연애와 예정된 이별을 통해 순결한 여인으로 미학화된 대상이 된다.

마사코의 잘 정돈된 얼굴, 나긋나긋하고 투명하게 보이는 몸매, 형태는 있으나 향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만 같은 깨끗한 육체는 나같이 미친한 존재에게는 오히려 신기루에 불과했다. 만약 내가 여자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숙명적인 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마사코에 대해 이런 저런 공상을 했을 것이다.(176)

제국 여성 마사코는 지위, 젊음, 부유함과 미모로서 ‘미친한 존재인’ 그의 위에 존재하기에 그녀는 그림의 대상이 될 뿐, 현실의 육체가 되지 않는다. 어머니가 하위 주체로서 죽음을 통해 잃어버린 고향을 환기시키는 존재로 미학화된다면 마사코는 상위 주체로서 깨끗함, 순결로 표상됨으로써 미학화된다. 마사코와 서술자의 연애가 어긋나는 것은 그러므로 예정된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한 고향의 상실, 마사코와의 실연을 통한 내지(제국)의 상실을 경험함으로써 그는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는 정주를 거부하고 도시와 시골 사이에서, 내지와 조선 사이에서 끊임없는 방랑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방랑조차도 완전한 해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온천 여관에서 해후한 마사코에 의해 일상의 욕망이 투입할 때 그의 방랑은 초라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¹⁹⁾

염상섭의 <남중서>(1927)에서는 조선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 남상철과 일본 기생 출신 첩 미좌서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남중서가 가산 상속 문제, 어머니

19) 채만식의 <냉동어>는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제국 여성, 피식민 남성의 연애를 그리면서도 방랑하고 떠나는 존재를 제국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서사를 나타낸다. 그것은 떠나가지 못하고 정주해 있는 피식민 남성의 무기력함을 통해 방랑도 정주도 결코 생활이 되지 못하는 불행한 상황을 암시한다. 시대와 화합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묵은 책력’, ‘안 맞는 시계’로 호명하는 일본 여성 스미코와 조선지식인 문대영의 서로에 대한 동일시는, ‘방랑자’로서 정주할 곳을 찾지 못해 떠나는 제국 여성과 ‘빼돌려진 빈 집’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정주해 있는 피식민 남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귀결한다.

의 민적 문제, 혼인 문제 등으로 부모와 갈등을 겪고 부모의 갈등을 매개하는 데 실패한 끝에 미국 여행을 빙자하여 방랑을 꿈꾼다는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충서 자신이 조선 사람도 아니요 일본 사람도 아닌 이상한 틈박우니에서 부푼기며 자라났고 성인한 오늘날에도 역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괴이한 처지에 노혀 잇는 것이라던지 나이 먹어가고 장가를 가고 하여 완전한 한사람 목시 되어갈수록 어쩐지 공연히 맘이 불안초조하여 저만 가서 생활의 뿌리를 튼튼히 막고 침착한 태도로 인생을 바라 보며 걸어나갈 것 갖지가 안흔 지금의 심리상태를 생각하면 (중략) 나는 내 몸하나만 훌쩍 빠져나가면 고만이니까 뒤스일은 맘대로 하시란 빗게 어떠케하란 말씀이예요”(264)²⁰⁾

조선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의 경계에 위치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충서는 무책임한 번역자이다. 그는 민적과 상속 문제를 고민하는 어머니의 불평 불만을 잠재우지도 못하고, 서자이며 반 일본인인 자신을 못미더워하는 아버지에게 신뢰를 주지도 못한다. 어머니의 정확한 현실 인식(아버지가 장남인 충서 대신 본처 아들 충희에게 상속을 하리라는 것, 자신을 민적에 올리지 않고 충희 이모와 결혼해 상속과 민적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오해라고 덮어버리고 아버지의 비열함에서도 눈을 돌린다. 그는 결국 양쪽의 불평과 불만을 모두 감지하면서도 자신을 양쪽의 소통로로 열어두는 대신 제삼의 영역으로 도피하기만을 꿈꾼다. 그는 아버지의 부도덕을 일깨워 어머니와 혼인을 하게 만들거나 아버지에게 신뢰를 보여 상속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대신 상속을 포기하고 유랑을 택하겠다고만 선언한다.

믿을 수 없는 중재자, 무책임한 번역자로서 충서는 따라서 일본과 조선의 두 문화를 소통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오해를 사는, 양쪽의 정체성에서 모두 배척되는 존재로 자리한다. 그는 어머니에게는 ‘조선인’으로, 아버지에게는 ‘일본인’으로 자리하며 늘 이방인이 되고 만다. 시야충서(矢野忠緒)(야노 다다오)와 미나미 다다오, 남충서를 경과하는 그의 이름은 그에게 일본인으로서도 조선인으로서도 명백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한다.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이중의 정체성(혼종성)을 갖는 대신 일본인도 조선인도 아니라는 불가능한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그가 상실한 것은 특정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고향)만이 아니고 자아 자체(전통)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혼혈 가정의 아이라는 불명확성만이 아니라 부르주아 상속자로서 사회주의 민족운동 단체에 가담하는 불명확성(업둥이)까지 보유한다. 어떤 집단에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업둥이로서 그는 정주를 거부하는 동시에 소통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망명

20) 염상섭, <남충서>, 『염상섭 전집』 9. 민음사, 1987

자가 아니라 나그네이며 번역자가 아니라 자기 독백자가 될 따름이다. 망명자에게는 떠나온 고향과 정주하는 지역이라는 두 개의 장소가 있지만 나그네-방랑자에게는 어디에도 거처할 장소가 허락되지 않는다. <남충서>의 후반부는 이처럼 고향을 갖지 못한, 상실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갖지 못한 혼혈아 남충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아버지의 세계, ‘남’이라는 성으로 대변되는 피식민 아버지의 정체성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가를 모색해 보인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야노>도 아니요 <미나미>도 아니요 남가도 아닐새마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적절히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미나미>라고 부르는 것이겠지!”(286)라고 규정함으로써 일본인이 되기도 조선인이 되기도 거부한 채 원어의 흔적을 간직한 번역어로서 존재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후로 어머니 미좌사와의 담판에서 남충서가 도달하는 결론은 뜻밖에도 경계에 선 자아를 거부하고 전통으로서의 조선을 수긍하는 것이 된다. 왜 그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경계에 선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한 채 결국 한 민족의 절대성을 외치는 것에 귀결되고 마는가.

이와 달리 김사량의 <빛 속으로>가 문제시하는 혼혈아의 고민은 어디까지나 내지에서의 정주 욕망에 가로놓인다. 어머니-조선의 정체성을 긍정하지 못하면서도 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애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일본인으로 호명하고자 하지만 일본인이 되지도 못하는 경계에 선 존재로서 혼혈아 야마다 하루오의 위상이 문제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그가 자신의 분열된 정체성을 당당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방랑은 정주가 되며 소통 가능성이 생겨난다. 어머니가 제국을, 아버지가 식민지를 대변하는 까닭에 선택에 있어 많은 망설임과 괴로움을 겪으며 제 3 지역으로의 탈출 방랑을 꿈꾸는 혼혈아 남충서와 달리 야마다 하루오는 제국 아버지와 피식민 어머니의 결합에서 태어난 까닭에 처음부터 제국 아버지의 담론을 절대화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피식민 이주 여성(씨발턴) 어머니의 이름이나 기억은 아버지의 담론을 모방해 폭력적으로 지움으로써 획득한 내지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상처이며 자신을 거세하는 폭력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 선생 ‘남’과의 관계맺음은 어머니와의 동일성 회복과 동시에 지배자 아버지의 독백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공존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부모, 번역자 아버지를 발견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남 선생의 충실한 번역을 통해서 야마다 하루오는 자신 속에 내재하는 어머니의 피를 인정하고 경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선인 남선생 또한 하루오의 비뚤어진 자의식 속에서 자신의 비뚤어진 자의식을 돌아본다. 내지에서 살아가는 조선인으로서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기원을 감추려 하는 비굴을 행사할 때, ‘미나미’라고 불리면서 ‘남’이라는 성을 지워갈 때

그 역시 정체성 내부에서 열등한 조선인의 자리를 상정하고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마다 하루오가 조선인 어머니의 세계를 인정하게 함으로써 스스로도 조선인 ‘남’의 정체성으로 긍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일본인 아버지의 애정을 받지 못하고 조선인 어머니를 인정하지 못했던 야마다 하루오에게 어머니와 같은 조선인이면서 제국대학 학생이기도 한 남 선생의 혼성적인 위치란 내지인이 되지 않아도 좋다는 사실, 내지와 조선의 경계에 서서 서로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것으로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남 선생과의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를 통해 그는 조선인 어머니의 피를 인정하고 동시에 혼혈로서 자신의 자리 또한 인정하게 된다. 조선인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그는 내지에서 혼혈아로서 끊임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두 세계 사이에 번역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내 눈앞에는, 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상처받고 일그러져 살아온 한 소년이 무대 위에서 다리를 벌리고 팔을 뻗으며, 쏟아지는 빨강 파랑 여러 빛깔의 빛을 쫓으며 빛 속에서 춤을 추는 영상이 어른거렸다. 내 온몸에 생생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오는 게 느껴졌다. 그도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63)²¹⁾

그의 불우한 환경, 상처받고 일그러진 삶은 무대 위의 춤으로 옮겨지고 번역됨으로써 ‘빛 속으로’ 편입됨을 꿈꾼다. 여러 빛깔의 빛을 쫓으며 빛 속에서 춤을 추는 야마다 하루오의 영상-환상은 곧 이국의 땅에서 경계인으로서 정주할 수 있음, 이주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비굴함을 갖지 않고 돌아볼 수 있음과 결부된다. 이러한 야마다 하루오의 춤을 환상하면서 조선인 남선생은 야마다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작은 셋방을 구할 계획을 세운다. 혼혈아와 망명객 청년은 연대를 통해 소통을 모색하고 제국의 도시 가운데 경계인의 정체성을 구축해간다.

“선생님, 전 선생님 이름 알고 있어요.” / “그래?”
나는 멧쩍음을 감추려고 웃어 보였다.
“말해 보렴.” / “남 선생님이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내 손에다 자기 옆구리에 끼고 있던웃웃을 던져 주고 좋아하면서 돌 계단을 혼자서 뛰어 내려갔다.
그제서야 나도 ‘휴’하고 구제받은 것 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리며 후다닥 그의 뒤를 쫓아 내려갔다. (65)

‘조센진’도 아니고 ‘미나미’도 아닌 ‘남’이라는 이름을 야마다가 불러줄 때 내지에

21) 김사랑, <빛 속으로>, 『김사랑 작품집』, 소담출판사, 2001

정주한 피식민 지식인 남선생의 망명은 참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도 그의 발걸음이 가벼운 것은 혼혈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줌으로써 드디어 피식민의 기억을 가진 자신의 정체성을 제국의 도시에서 고통이나 과장 없이 번역해 내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국의 문화에 함몰되지도, 피식민 문화의 토착성에 고착되지도 않은 채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굴욕 없는 균형, 상호적인 소통과 서로를 해방시키는 번역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1부

제3주제

'경계境界'의 보편성과 특수성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발 표 자 : 김효석(순천향대)

'境界'의 보편성과 특수성*

: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최근 소설들을 중심으로

김효석(순천향대)

I. 서론

최근 탈북자들이 늘어나면서 문학계에서도 ‘탈북’을 소재로 한 다양한 소설¹⁾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이들 탈북자 소재의 소설과 담론들을 보면 탈북자의 시선과 탈북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탈북자’에 대한 담론에 있어 간과해선 안 될 부분들이 있다. 우선 탈북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편견과 오해로 점철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1945년 광복 전후와 한국전쟁기 발생했던 ‘월남’행위에 대해 일정 부분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듯 현재 우리 사회에는 ‘탈북자’를 향한 고정되고 편향적인 시선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설을 통한 탈북자에 대한 형상화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전개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 양상과 뿌리내리기 과정을 바라보는 자의 일방적 시선 속에 가두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또하나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소설 속 탈북자의 시선이 외부의 압력과 검열로 인해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탈북자 소설이 대부분 탈북자에 의한 창작이라기보다는 탈북자의 증언이나 수기를 토대로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설 속 탈북자의 시선 속에 작가의 현실인식이 직간접적으로 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 사실 작중인물을 통한 작가의식의 반영은 문학 속의 작중인물과 작가의 관계에 있어 그리 특별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다. 작가들은 탈북자들을 통해 분단의 현실 속에 놓여진 우리 삶의 특수성을 풀어 헤쳐 보이기도 하고 나아가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등 보편적

* 본 발표문은 계간 <문예운동>(2010, 봄호)에 실린 ‘거울의 서사와 탈북을 둘러싼 다양한 시선들’을 일부 수정한 것임.

1) 탈북자를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소설들로는 박덕규의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5. 강영숙의 『리나』,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황석영의 『바리데기』, 창비, 2007. 권리의 『원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이대환의 『큰돈과 큰똥』, 실천문학, 2008. 정도상의 『절레꽃』, 창비, 2008. 이호림의 『이때, 길을 묻다』, 아이엘앤피, 2008.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탈북자 소재의 소설에 대한 최근의 담론으로는 강영숙의 『리나』와 정도상의 『절레꽃』을 대상으로 한 이경재의 「네이션과 2000년대 한국소설」(문학수첩, 2009. 겨울호), 공선옥의 소설과 전성태의 『늑대』 등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 있는 백지연의 「타자의 인식과 공공성의 성찰」(창작과 비평, 2009. 겨울호)등이 있다.

문제로 시선을 확대하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이 갖고 있는 특수성, 즉 분단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천착 없이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본질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탈북’이란 기표는 단순히 국가와 민족을 가르는 보편적 경계 넘기와는 또다른, 우리만의 금기를 담고 있는 동시에 포스트모던 시대의 초국가, 초민족의 탈경계적 상상력을 보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탈북자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의 성패는 우리의 분단 현실이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을 얼마나 깊이 있고 균형감 있게 소설로 형상화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본고는 탈북자를 향한 다양하고도 주목할 만한 시선들을 드러내고 있는 장편과 연작소설을 기본 텍스트로 하여 탈북자와 분단현실에 대한 작가의 대응방식을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고찰해 보았다. 본론의 2장 ‘경계짓기와 금기 허물기’에서는 특수한 분단 현실 아래 발생한 탈북자를 바라보는 남한 사회의 상반된 태도를 이호림과 권리의 소설을 통해 살펴보고, 3장 ‘경계인으로 살아가기,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에서는 탈북자 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삶의 문제로 확장하고 있는 황석영과 강영숙의 소설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4장에는 탈북 후 남한에서 뿌리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그들의 시선으로 접근하려한 정도상과 이대환의 소설을 논의의 주대상으로 삼았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필자는 지금까지 발표된 ‘탈북’소재의 소설들이 보여준 성과와 한계들을 다각도로 살펴 보고, 나아가 탈북자에 대한 보다 총체적 형상화를 위해 작가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II. 경계 짓기와 금기 허물기

- 이호림의 『이때, 길을 묻다』(아이엘엔피, 2008.)와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 리』(문학수첩, 2007.)

이호림의 『이때, 길을 묻다』는 탈북자란 프리즘을 통해 우리의 분단현실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탈북자를 소재로 한 이 연작 소설에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남한 대중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의협심이 강한 주인공을 등장시켜 탈북자를 구출하려는 조금은 무모한(?) 계획이 담긴 「고향을 떠나올 때」와 「길의 남쪽」엔 정부에 대한 작가의 극단적 비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현실문제에 대한 작가의 적극적이고도 극단적인 발언은 강 00 교수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의 문제성을 비판하고 황석영, 고은, 조정래, 백낙청 등 실명

을 거론하며 이들이 왜 탈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가 캐묻는 장면- ‘은하수 사연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관심조차 갖지 않을 일이다.’²⁾-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이호림은 우리의 ‘진보’가 북한의 인권에 눈감은 채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다고 문제 삼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가의 이같은 선명한 현실 재단이 오히려 소설의 미적 형상화의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탈북자 ‘은하수’의 수기가 어떠한 소설보다 훨씬 소설답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는 소설(「나의 이상한 탈북자」) 속 작가의 심리에는 창작에 있어 작품의 형식적, 미학적 부분을 간과한 채 소설의 내용적 부분에 경사해 있는 작가 이호림의 내면이 겹쳐보인다. 또하나 문제적인 부분은 사회현실에 대해 다양하고도 상반된 시선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현실 정세에 대한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판단을 소설의 외피에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날 강렬한 생체험을 했던 월남작가들이 전후에 보여준 소설 속 반공이데올로기가 스스로 의도하였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일정부분 시대적 한계로 이어지기도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이와같은 일방적 정세판단은 소설 속에서 좀더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단편 「퇴출」은 작가의 이같은 비판적 칼날이 탈북자에 대해 무관심한 현 세대에 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퇴출」에서 시간강사인 ‘현’은 대학생들이 가진 탈북자에 대한 무관심, 나아가 부정적 인식에 절망한다. ‘현’은 북한 인권에 대해 유명 논설 위원의 관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탈북자의 생체험이 담긴 수기마저 국정원 직원의 조작이라 여기는 대학생들의 경직되고 단면적인 정세판단의 위험성을 꼬집고 있다. 하지만 ‘현’ 또한 영화 ‘국경의 남쪽’이 탈북을 소재로 했기에 대중의 무관심을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흥행에 실패했다고 단정하면서 대학생들과 정확히 대척되는 지점에 서서 똑같은 우를 범한다.

「김경남을 살려주세요」 또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극히 일방적 시선을 지닌 ‘만기’를 내세워 탈북자 인권의 문제를 정치 편향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인식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인공 ‘만기’는 탈북자 ‘김수남’이 탈북하다 붙잡힌 형, ‘김경남’을 구명운동하는 것을 짜증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만기’는 북한엔 인권유린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탈북자를 정치범 수용소로 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법적용이라는 판단을 하는 극단적 사고의 인물로 그려진다. 무엇보다 ‘만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 인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이같은 인물설정방식은 앞서 지적한 바 있듯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다양성을 아예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2) 이호림, 『이때, 길을 묻다』, 아이엘엔피, 2008, 112쪽.

또한 작가는 「망명」에서 탈북자 ‘옥란’이 남한 입국 이후에도 북한의 보위부원에 게 살해 위협을 당한다는 예외적 상황을 설정한 후 이러한 극단적 상황에 놓여진 ‘옥란’의 입을 통해 북한의 비도덕성을 설파하는 한편, 그 위협이 현존하고 있음을 환기시킨다. 이는 이호림이 경계를 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쪽과 저쪽의 경계 짓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망명」은 여성국회의원이 당한 카트칼 테러와 북한 보위부원의 탈북자 테러 위협을 자연스럽게 몽타주한다. ‘우연이 아니다. 극우파썸 국회의원년이 테러당하는 것 봤지.’³⁾ 라는 소설 속 북한 보위부원의 목소리가 단지 탈북자를 향한 테러위협으로만 비춰지지 않는다.

이는 표면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남한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가치를 지닌 듯 보인다. 하지만 작가 스스로도 탈북자 문제를 정치 편향적으로 다룸으로써 ‘탈북’과 ‘탈북자’가 지닌 심층적이면서도 양가적 특성들을 원천봉쇄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고 만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치편향을 문제 삼는 과정이 또다른 정치편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사실. 문학에 있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열린 시선이 절실하기에 이 소설은 아쉬움을 더한다.

이에 반해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 리』는 탈북자에 대한 고정화된 시선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점, 탈북자를 소재로 남한 사회의 이분법적이고 정치편향적인 현실을 정면돌파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주목을 요한다.

소설 속 탈북자 리지혁은 자신을 ‘리우리’라 소개한다. ‘리우리’란 좌우 동형의 기호는 유랑을 상징하는 ‘liu li 流离’, 즉 뿌리 뽑힌 인물을 상징하면서 작가가 우리 사회에 편재한 이분법적 시선을 다분히 의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리지혁의 이름 짓기는 타자화된 시선을 거부하고 ‘우리’란 보편성(남한 사회) 속에 스스로를 편입하고자 하는 탈북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란 호명은 그 자체로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배제의 성격 또한 함유하고 있어 불확정적이며 다면적이다. 이처럼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서사전략은 리지혁이 탈북 후 빠져드는 롤플레이팅게임 ‘왼손잡이 미스터 리’가 현실의 탈북자와 게임 속의 캐릭터를 동시에 지칭하고 있다는 점, 소설 속에 사용된 현실과 비현실, 실재와 환상(게임)의 경계를 지우는 ‘미스 테 리’한 추리소설적 기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태원 거리의 미로장엔 왼손잡이임에도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는 미로와 그의 동생 미아, 지적인 엄마 은유, 트럭운전사인 아빠 민호, 그리고 우편향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할아버지 우익이 살고 있다. 우익 성향의 이 집에

3) 이호림, 앞의 책, 275쪽.

서 왼손잡이인 미아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왼쪽과 관련된 것은 모두 나쁜 말, - ‘왼손잡이, 빨갱이, 좌천’⁴⁾ - 로 규정하는데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 가르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소설 속 남남북녀의 결혼이야기를 분단된 우리의 현실로 확대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들 가족의 왼쪽과 오른쪽,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경계가르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좌우 편향적 시선의 축소판으로 읽힌다. 이밖에 이들 가족 주변에는 UFO 연구에 심취해 있는 남필과 오른손에 기브스를 한 김스여인 등이 등장하여 삶의 불안전성과 시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매개역할을 한다.

이 가족, 미로장을 찾은 ‘리우리’는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 -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왼손잡이 신, 김정일이지,⁵⁾-을 보여주지만 ‘지 에미가 자식도 잡아먹는다’며 말하는 우익의 비아냥에 ‘거짓말 좀 그만하라며⁶⁾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거부 의식이 향하는 곳은 좌/우의 논리, 그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좌/우를 극단적으로 가르는 좌우편향의 시선에 있다.

이 소설의 또 하나의 서사는 남한에 넘어와 자장면 배달을 하던 탈북자 김철이 살해당하면서 범인을 찾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리지혁은 같은 집결소 출신인 김철이 그에게 빚을 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살인 용의자로 몰리게 된다. 그런데 살인 사건을 취재하는 섹시일보 이준 기자가 리지혁을 살인자로 의심하자, 은유는 ‘누군가 왼손잡이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일부러 조작한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진다. 이 말은 탈북자 살인 사건이 미로장의 가족 이야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며느리 은유와 시아버지 우익의 갈등 또한 일상 전반에 투입해 있는 이분법적 사고에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종교인이라는 가면을 쓴 채 탈북브로커 사업을 하고 있는 신목사의 좌우편향적 시선은 더더욱 놀랍다. 대학 운동권 출신임을 자처하는 신목사는 독재 타도와 친북좌파 척결을 같은 층위의 문제로 바라본다. 그는 박정희와 김정일을 동일시하며 ‘지금 사회는 너무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어 우향우가 필요한 시기’라며 반민주적 독재자와 사회주의 독재자를 구분짓는 세상의 이중성을 참을 수 없어한다.

조선족으로 위장한 채 살아가는 탈북자 강영묘와 리지혁의 대화는 이와같은 이분법적인 시선이 난무한 남한의 현실을 꼬집고 있다.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어 우리가 되었는데 대한민국의 우리는 니들 즉 나의 집합일 따름’이라는 리지혁의 토로와 ‘나는 탈북자고 이등인이지 한국인이 아니야’ 라 말하는 강영묘의 발언은 탈냉전 시대의 이중적 잣대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분하는 굴레와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

4) 권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30쪽.

5) 위의 책, 61쪽.

6) 위의 책, 74쪽.

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오른손잡이⁷⁾들이 가꾸어 놓은’ 이러한 ‘두꺼운 세계⁸⁾에서 이들 탈북자들이 쉽게 동화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리우리가 된 리지혁이 탈북의 과정에서 잘린 오른손을 의수로 위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남한에 발붙이지 못하고 게임 ‘왼손잡이 미스터 리’의 캐릭터로만 침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들의 혼란을 이해할 것 같았다. 행복의 땅인 줄 알고 찾아온 시나이 반도가 실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기회와 행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막는 곳이란 사실. 우리는 한반도가 제2의 시나이 반도가 될까 두려웠다.’라는 리우리의 말은 남한 사회 속의 탈북자의 방향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편향적이고 좌우로 갈라진 세계를 극복할 방법은 없는가. 작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로의 가족과 리우리 등을 미로의 꿈(가상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이들이 미로의 꿈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하는 행위들은, 자신들이 지닌 이분법적 편견과 공고화된 관습에서 벗어나는 일과 같다. 이들이 ‘미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그럼 먼저 길을 잃으세요. 잃지 않고서 찾을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란 소설 속의 말처럼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의 ‘미로’ 탈출은 익숙한 길만을 고집했던 기존의 자신을 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로의 꿈, 현실과 환상의 혼용 속에서 그동안 미로를 괴롭혔던 고통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미군인 외할아버지에 물려받은 외모로 그리스인이라 놀림을 받았던 일, 그래서 언제나 타인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듯 했다는 것, 무엇보다 오른손을 강요하던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미로로 하여금 본래 왼손잡이였던 ‘나’를 버리고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사실들이 혼란스럽고 은유적인 방식으로 서사의 수면 위로 떠오른다. 그리고 이는 남으로 넘어온 탈북자 리지혁이 타자의 시선에 의해 겪었던 고통과 연계된다. 미로와 리지혁이 게임의 레벨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상 공간에서 miro89와 mrlee로 만나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소외자로서의 고통을 공유했다는 데서 비롯한다. 또한 미로의 친구들, 태우, 정희, 두환 등이 환상 속에서 경험하는 왼손잡이의 세상은 소설 속의 ‘우향좌 좌향우’란 소재목이 상징하듯 오른쪽과 왼쪽이란 경계 자체는 물론 이를 구획하려는 아집이 얼마나 환상에 불과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이들은 경계의 이쪽과 저쪽, 좌와 우가 혼란스런 꿈(환상) 속에서 이러한 구획짓기가 지극히 상대적 개념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며 ‘님을 위한 행진곡’과 ‘6.25의 노래’가 서로 혼동되

7) 이 오른손잡이/왼손잡이의 구획을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우익/ 좌익의 상징성으로만 읽어내는 것은 곤란하다. 왼손잡이 보다 오른손잡이가 많은 현실, 오른손잡이 즉 다수 위주로 전개되는 현실에 대한 비유로 읽는 것이 필요하다.

8) 권리, 앞의 책, 106쪽.

고 융화되듯, 결코 섞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도 서로 섞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

결국 미로의 가족들과 주변 인물들은 카오스 이론, 프랙털, 파이겐바움 보편상수 등 서구의 이분법적 이성주의를 넘어선 갖가지 이론들을 동원, 미로의 꿈 속에서 탈출하게 된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가상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역할극은 각자가 현실에서 대립적이었던 인물(타자)들이 되어봄으로써 ‘그들’ 또한 ‘또다른 나’라는 사실을 체험케 하는 매개가 된다.

리지혁 또한, 섹시일보 이준기자에 의해 신목사의 허위의식과 김철을 살해하려 했던 동기들이 밝혀지면서, 살인누명을 벗고 남한에서의 진정한 뿌리내리기를 시도한다. 리우리가 의수(오른손을 감추었던 가짜 오른 손)를 떼어버리는 행위는 더 이상 타자를 의식하여 허울만의 오른손잡이로만 살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미로 역시, 생전에 오른손잡이로서의 삶을 강요했던 할머니도 원래는 왼손잡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빠를 의식해 왼손잡이 행세를 했던 미아 또한 본래 오른손잡이었다는 반전이 겹쳐지면서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식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한다. 미로의 죄의식은 강요된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굴레를 불가항력적으로 짊어져야만 했던 우리 민족의 특수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무엇보다 권리는 우리 민족만의 특수한 현실, ‘분단이 민족의 몸무게를 무겁게 했다’⁹⁾는 사실에 주목한다. 작가는 분단과 민족을 따로 생각할 수 없는 현실,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결핍이 오히려 민족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들었고, 둘을 인정치 않으려는 굴레와 억압이 되었다는 사실을 미로 찾기의 과정을 통해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권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이분법적 시선에 대해 비판적이고 진지하게 접근하면서도 이를 가볍게 다룬다. 이같은 서사전략은 소설을 통해 분단 현실이 낳은 단단하고 오래된 편견들과 관습에 저항하려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작가는 미로, 미아, 리우리 등 주인공에 대한 호명은 물론 김스부인, 정희(‘삼선’ 슬리퍼를 신고다니는), 태우, 두환 등 주변인물의 이름짓기를 통해 기존 관념과 금기를 깨뜨리려 한다. 근엄함과 무거움, 신사적 이미지의 대명사였던 노주현(소설 속 정희의 아버지)이 드라마 속에서 망가지는(?) 모습마냥 이제는 정치의 세계도 금기와 무거움의 영역을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 이같은 권리의 현실인식은 소설의 형식과 미학적 장치로 전화됨으로써 더욱 날카롭게 빛난다. 무엇보다 좌/우의 편향된 시선이 여전히 유효한 우리 사회에 대해 작가가 타진한 해법, 우리 스

9) 권리, 위의 책, 240쪽.

스로 몸을 비워야만 타자와, ‘우리’ 너머의 ‘우리’와 뒤섞일 수 있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만 하다.

이를 염두에 두면, 또다른 탈북자이며 미로의 친구인 태우가 익명의 존재들을 옹호하고 현실의 편견에 구멍을 낼 대안으로 ‘익명의 카오스모폴리탄’을 내세우고 있는 장면도 가상공간 속 은둔자의 욕망으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호명을 통한 구획과 경계짓기가 또다시 수많은 ‘우리’들을 만드는 현실에서 경계의 무화를 꿈꾸는 익명의 ‘각개전투’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권리의 소설은 ‘왼손잡이지만 그렇다고 오른손 잡이가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제 삼, 제 사의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오욕의 역사가 불러온 죄책감에서 벗어날 때만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 가능하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케 한다. ‘타자’는 ‘또 다른 나’와 다름 아니며 ‘타자’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 권리와 이호림의 소설은 거울(탈북자를 통해)에 비친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상반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III. 경계인으로 살아가기.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

- 황석영의 『바리데기』(창비, 2007.)와 강영숙의 『리나』(랜덤하우스, 2006.)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강영숙의 『리나』는 탈북자를 매개로 세계화의 그늘에 놓여진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고 있다. ‘바리’(『바리데기』)와 ‘리나’(『리나』)는 분단된 현실이 낳은 ‘탈북자’라는 국지적이고 한정적인 기표를 넘어 전지구적 자본주의에 의해 뿌리뽑힌 자, 소외된 자를 대변하는 보편적 의미로 확대된다. 이들 소설 속에서 ‘탈북자’는 경계 밖에서 경계 안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예외적 인물로 그려진다.

『바리데기』의 ‘바리’는 ‘바리데기 설화’의 ‘바리’가 현대적으로 변용된 인물이다. 위로 여섯 언니를 둔 일곱째 딸로 태어나 이름도 없이 버려질 위기를 겪는다는 것. 영매의 특별한 능력을 타고 났다는 사실은 ‘바리’가 지닌 신화적이고도 보편적인 함축성을 짐작케 한다.

월남한 외삼촌으로 인해 가족이 뿔뿔히 흩어지고, 정신적 지주와도 같았던 할머니도 잃은 바리는 미꾸리 아저씨(박소룡)를 따라 탈북하여 중국으로 넘어오게 된다. 바리는 중국의 안마방에서 일하며 정착하려 하지만 그 곳에서 만난 상언니와 그녀의 남편 쩌우와 함께 또다시 도망자의 신분이 된다. 결국 바리는 중국의 따렌에서 영국으로 밀항하는 처지가 되는데 이는 해가 저무는 서천으로 생명수를 찾아가는

신화 속 바리의 여정과 닮아 있다.

결국 영국에 도착한 바리가 생활하게 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아파트는 영국 속의 또다른 작은 세계다. 중국인 요리사와 필리핀인 청소부, 스리랑카, 폴란드, 파키스탄, 불가리아 출신의 불법체류자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이웃집의 압둘 할아버지는 바리의 정신적 지주인 할머니를 대신하여 바리에게 안식을 준다. 영국으로 밀려간 바리에게 있어 압둘할아버지는 ‘삼승할명’의 역할을 한다. 압둘 할아버지가 하는 말 ‘세상 이치는 어디나 다 같은 거야. 힘센 부자는 그걸 누리기가 아주 힘이 든단다’는 자본주의에 의해 뿌리뽑힌 인간들이 서역 너머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소외된 삶이 단지 일부 국경안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한다.

이로써 굶주림을 피해 국경을 넘었던 바리의 탈북서사는 우리의 현실, 민족적 특수성을 벗어나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아래 버려지고 소외된 약소민족의 보편적 문제로 확대된다. 바리가 종교적 분열로 분단된 파키스탄 출신의 압둘과 알리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꾸리게 되는 것도 불법체류자로서의 동류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배경이나 파키스탄/인도의 분열에는 미국, 영국과 같은 강대국에 원인이 있다는 작가의 현실인식은 제 3세계 국가와 약소민족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을 전지구적 자본주의에서 찾는 것으로 이어진다. 바리의 남편 알리는 동생 우즈만을 따라 잠무카슈미르 분쟁에 얽혀들으로써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데 분열과 반목으로 고통받는 현대인의 숙명을 ‘사람들은 왜 국경같은 걸 만들었을까’¹⁰⁾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를 살리기 위해 생명수를 찾아 생사를 넘나드는 바리가 그러했듯 이 시대의 생명수란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작가는 담담히 전한다. 비극적이지만 고통 속에 몸 담지 않는다면 그 고통의 실체를 결코 알 수 없으며 그 극복의 가능성 또한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건너는 현재 진행형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 이런 이유로 테러의 아수라장 앞에서, 첫아이 ‘홀리아 순이’를 잃고 어렵게 다시 얻은 뱃 속의 아이에게 바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처럼 황석영의 『바리데기』는 경계인의 시선을 통해 세계가 여전히 자본의 논리 아래 민족과 종교, 국가간의 분쟁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강영숙의 『리나』 또한 탈북자를 약소 민족과 유색인종, 여성, 창녀, 하층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에서 소외된 보편적 약자들의 이야기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강영숙이 창조한 탈북자 ‘리나LINA’는

10)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199쪽.

남성적 세계에 저항하는 여성인물이란 점에서 달의 여신 ‘루나LUNA’를 연상케 한다. ‘리나’는 극한적 고난 앞에서도 당차고 극성맞기까지한 적극적 성격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리나의 기나긴 여정은 22명의 탈북자 행렬에 끼어 P국으로 향하면서 시작되는데, 남동생을 우선하는 가부장제와 궁핍이라는 이중적 억압 속에서 괴로워했던 리나에게 ‘떠남’은 그 자체로 설레임과 기대가 된다. 리나에게 있어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억압된 현실에서의 탈출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목에 걸려있던 사탕이 썩하고’¹¹⁾ 넘어가는 시원한 희열로 다가오는 것이다.

리나가 탈북 도중 화공약품공장으로 끌려가 성적 학대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상황 설정이나 창녀촌 시렁으로 흘러들어가 폭력적 남성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이 소설이 단순히 탈북자 서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리나의 여정에는 국경과 경계를 불문하고, 핍박받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삶이 비추어져 있다. ‘리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천막의 여가수’가 영원불멸한 존재로 지칭된다는 사실은 몸과 몸으로 이어지는 뿌리뽑힌 여성, 마이너리티가 겪는 질기고 질긴 고난의 연속성을 상징하고 있다. 리나가 천막의 여가수가 걸었던 길을 되밟아가게 되면서 부르는 랩에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한 소외된 자들의 갖가지 이야기가 세헤라자데의 천일야화처럼 슬프고도 외롭게 이어진다.

‘리나’의 노래 - ‘우이씨 우리 엄마는 외국여자야. 우리는 당당한 노동자 농민으로 살아가지 -중략- 그럼 난 수줍게 말하지. 국경이오.’-는 중심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영원한 주변부로 밀려 살아가야만 하는 경계인들의 운명을 현재화한다. 그러므로 이 소설에서 국경, 경계는 단순한 지리적 차원을 넘어 보편적 금기와 속악한 현실의 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계를 넘은 자들에게는 폭력과 억압이라는 처벌이 가해진다. ‘리나’에게도 ‘국경을 넘은 이후로 항상 따라다니는 누군가’¹²⁾처럼 자본의 음험한 논리는 은밀하면서도 일상적인 형태로 따라붙는다. 화약공장의 네모반듯한 얼굴의 남자나 탈북자들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선교사 장은 물론 소외된 자들에게 최소한의 터전조차 허용치 않는 국가기구의 압력-창녀촌 시렁을 사적인 감정으로 철거하는 공무원들과 공단지대에 가해지는 전국가 차원의 탄압-은 리나가 행하는 두 번의 살인을 비윤리적이거나 비이성적으로 느낄 여지를 주지 않는다.

이처럼 ‘공해와 화공약품 냄새로 찌든 아랫도리’¹³⁾를 이끌고 또다시 국경지대로 이동하는 ‘리나’의 모습에서 황석영이 만들어낸 현대적 ‘바리’의 모습을 읽어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들의 훼손된 여성성은 전 세계 뿌리뽑힌 자들의 보편적

11)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 2006, 13쪽.

12) 강영숙, 위의 책, 101쪽.

13) 강영숙, 위의 책, 301쪽.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리나’의 서사는 p국을 향한 탈출, 탈북 이야기로 국한되지 않고 p국 내부의 모순, 나아가 전세계 국가의 어두운 이면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된다.

‘리나’의 탈주 욕망이 향하는 곳도 p국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리나’는 p국 또한 자본과 배제의 논리로 점철된 곳이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결국 ‘오만가지 형태로’ 탈출해봤자 그곳이 결코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리나’가 갈 곳 없는 네 명의 남자애를 데려다 돌보아주는 장면은 극한적이고 비극적 상황에서도 인본주의적이고 본래적인 여성성이 잔존한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리나는 강인해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에는 하나의 진정한 인격체로, 여성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차 있다. 소외의 아픔을 공유했던 동반자 ‘삐’가 ‘사랑한다. 예쁘다’란 말을 해주기를, 끈 떨어진 운동화를 벗고 한번쯤 꽃무늬 샌들을 신어보길 간절히 욕망한다. 하지만 아무리 꽃무늬 샌들 앞에 서 있어도 결국 신발은 키 큰 금발 여자의 차지가 된다. 신발을 사기 위해 열어본 돈깡통엔 - 사선에서도 결코 놓지 않은 - 쓸모없는 흰 재만이 가득 담겨 있을 뿐이다.

이처럼 리나의 이야기에는 국경 안의 삶이나 국경 밖의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현존하는 물질주의와 반인본주의가 낳은 삶의 보편적 모순이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곳곳에 산재해 있다. P국으로의 탈북에 성공한 아이가 버스에서 내리며 하는 말. ‘그래서 여긴 살만하다는 거지?’ 에는 탈출하여 다다른 곳도 떠나온 곳의 억압과 좌절이 여전히 존재하리라는 사실, 탈북 후 p국까지의 여정이 안겨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소설 ‘리나’가 지닌 이러한 서사의 보편적 측면을 염두에 두면 주인공 ‘리나’는 공고화된 삶의 보편적 억압을 뚫고 저항한다는 점에서 숙명적으로 하나의 경계 안에 머무를 수 없는 전형적인 경계(境界)인을 표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녀는 계속해서 국경 근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는데 p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 p국에 정착하여 또다시 가족이란 틀 속에, 탈북자란 꼬리표를 달고 순응하며 살 수는 없다는 것. 훼손된 자본의 논리에 굴복하는 방식으로는 p국으로 들어가기 싫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리나는 다른 탈북자 소설의 인물들과 변별된다.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를 미끼로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선교사 장에게 리나가 당당하게 되받아치는 말 ‘저 여기요. 선교사 아저씨나 돈 없거든요.’, ‘거긴 들어가서 뭐 하는데 씨팔’¹⁴⁾은 결코 주어진 운명 앞에 수동적으로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발적 경계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오히려 ‘리나’는 p국으로 가기 위해 모아둔 돈을 선교사 장에게 내놓으며 p국으로 들어간 가

14)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 2006, 314쪽.

죽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같은 예외적 상황은 정작 돈(자본)이 필요한 곳은 경계의 삶이 아닌,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국경 안의 삶일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강영숙의 『리나』는 경계 밖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사실은 경계 내부의, 나아가 경계와 국가를 초월한 인간 삶의 보편적 서사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소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탈북자들의 여정 자체를 가치 있고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탈북자를 향한 동일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IV. 뿌리내리기의 두 층위

- 정도상의 『짚레꽃』(창비, 2008.)과 이대환의 『큰 놈과 큰뚱이』(실천문학, 2008.)

60여년 전 월남했던 작가 황순원, 김이석, 이호철 등이 남한 사회에서 뿌리내리는 과정은 당시 한국사회의 복잡한 사회상황과 분단 현실, 냉전 체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읽어낼 수 없다. 당시의 월남 행위를 단순히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든지 또는 개인적 행위의 소산으로만 접근한다면 월남자들이 지닌 복잡한 내면은 물론 월남의 원인과 배경을 너무 순진하게 재단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기존의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하는, 나아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익숙한 본토에서 뿌리 뽑혀 다시금 새터에 뿌리를 내리는 일은 인간을 내적, 외적으로 성숙시킴은 물론, 당시 사회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경계 안에서 보는 것과 경계 밖에서 보는 것이 같을 수 없거니와 중요한 사실은 자의든 그렇지 않던 간에 경계에서 본 자만이 경계의 안과 밖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탈북, 월남자들이 전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의 상황이나 개인사를 간과한 채 고스란히 수용하는 것도 너무 순진한 접근태도라 할 수 있다. 월남민 중에는 떠나온 북한의 고향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들이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입밖에 내는 것조차 금기시하며 남한의 삶을 영위했던 이들, 북한에서의 삶을 부정하고 북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남한에 뿌리내리기를 시도했던 이들이 공존한다. 당시 월남민들의 다양한 층위처럼 이 시대의 탈북자들도 탈북 행로 및 탈북의 동기에 따라 남한에서의 뿌리내리기를 달리한다.

정도상의 연작 소설 『짚레꽃』은 각각의 단편으로 발표되었지만 서로 긴밀히 연

결되어 있어 한 편의 장편소설을 연상케 한다. 연작소설집 안의 각각의 단편, 「함흥, 2001, 안개」는 충심의 탈북 배경을, 「풍풍우우」와 「늪지」는 인신매매되어 중국 등지에서 고난을 겪는 이야기가, 「겨울 압록강」에서는 ‘미나’라는 이름의 안마사로 일하며 남한으로의 입국을 준비하는 과정을, 「짚레꽃」은 남한 입국한 충심의 이야기가 담겨진다.

충심은 인신매매에 의해 탈북자 신세로 전락하는데 이는 충심의 탈북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녀는 자신의 탈북 행위가 지난 삶에 대한 배신 행위라 여기며 남한으로의 입국을 주저하기도 한다. 충심과 미향이 인신매매되어 각각 해림의 신흥촌과 광명촌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북한으로 보내달라며 몸부림치는 모습은 이들이 결코 남한을 가기 위해 탈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함흥이 고향인 충심의 여정은 북조선의 남양을 거쳐 국경 너머 중국의 도문으로 이어지는데 작가는 소설 속에 북한식 용어와 철자법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탈북자의 시선을 가능한 살리려 노력한다. 소설 속의 충심과 미향은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넘어왔다가 갑봉, 삼식이, 춘구 등 인신매매단의 덫에 걸린다. 이들 인신매매범들은 충심과 미향에게 북조선 보위부원에게 걸리면 탈북자 감옥행이며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며 위협한다. 결국 충심과 미향은 중국의 외지로 팔려가게 되는데 탈출해도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은 충심이 불가항력적으로 남한행을 결정케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또한 충심과 미향의 결핍과 고통은 돌아갈 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머니와 동무들과 함께 했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실향의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미향이 남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두만강을 건너 고향으로 회귀하는 꿈을 버리지 않는 것, 충심이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이 두려워 쉽게 남한으로의 월경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 등에서 알 수 있듯 탈북자로 전락한 이들의 의식지향은 한국이 아닌 북한의 고향으로 향해 있다. 미향이 까마귀와 까치를 보며 어디든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부러워하는 장면 또한 국적이나 국경과는 상관없이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탈북자들의 의식지향이 모두 남한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데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장군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라는 말에서 짐작할 수 있듯 북한에서의 삶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탈북자들의 내면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남한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탈북자를 인신매매하여 살아가는 춘구의 발언, ‘한국에서 온 선교사 새끼들, 미국놈들 돈 받고 탈북자 후리는 놈들’¹⁵⁾에서도 알 수 있듯 부정적이다. 『짚레꽃』에서 자

15) 정도상, 『짚레꽃』, 창비, 2008, 186쪽.

본의 음험한 뒷에 걸려든 탈북자들의 비참한 행로는 현실의 불모성과 뿌리뽑힌 자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얼룩말」에서 부모 없이 국경을 넘어야 했던 어린 영수의 죽음은 초원(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새끼 얼룩말과 오버랩되면서 경계를 벗어난 약자에게 가하는 경계 내의 처벌이 얼마나 가혹한지 보여준다. 현실의 냉혹함은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탈북자들을 카메라에 담으며 의도된 촬영에 열중하는 박선교사에 이르러 극에 달한다. 결국 약육강식의 현실(야생)에서 영수(어린 얼룩말)는 도강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다. ‘엄마 엄마’를 찾으며 죽어가는 영수의 모습은 고향을 잃고 타지에서 죽음을 맞는 탈북자들의 비참함을 더욱 아프게 각인시킨다.

한편 「짚레꽃」에는 남한으로 입국한 충심의 모습이 그려진다.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는 충심이 즐겨부르는 노래 짚레꽃- ‘짚레꽃 붉게 피어인 북쪽나라 내 고오 오하양’-에는 떠나온 고향을 그리는 탈북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함흥을 떠난 이래 한번도 밭을 땅에 붙여보질 못했다’는 충심의 토로는 남한에서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탈북자의 보편적 좌절감을 보여준다.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도심에서 하얗고 순박하게 피어난 짚레꽃은 노래말 - 엄마 가는 길에 하얀 짚레꽃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밤마다 꾸는 하얀 엄마꿈 - 처럼 모성과 고향을 향한 안타까운 동경으로 피어난다. 「소소, 눈사람이 되다」의 ‘흰 눈’의 상징성 또한 세상의 더러움을 덮는 순수성과 모성성의 회복에 있지 않을까. 「겨울 압록강」에서 ‘나’가 애타게 찾아 다니는 ‘그 여자’는 짚레꽃과 흰눈의 이같은 상징성이 현존화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 여자’는 중국의 집안과 북의 만포를 들락거리며 압록강처럼 도도히 흐른다.

「겨울, 압록강」에서 ‘나’는 탈북자인 ‘미나’(충심)와 만남으로써 자신 또한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속물이란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서울서 온 ‘나’나 탈북자 ‘미나’(충심)는 모두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기에 메울 수 없는 결핍에 공허함을 느낀다. ‘나’가 경계의 무화를 실현하는 ‘그 여자’를 찾는 일에 더더욱 매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미나’가 지닌 결핍, 탈북으로 인한 뿌리뽑힘과 고향 상실감은 아이를 잃은 ‘나’의 결핍과 소통하면서 보편성을 획득한다. 이들은 모두 건널 수 없는 경계의 언저리에서 경계 너머의 고향과 안식을 희원한다.

탈북하여 남한으로 오게 된 여성탈북자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또다른 탈북자 소재의 소설로 이대환의 『큰돈과 큰돈』이 있다. 주인공 표창숙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탈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이력을 갖는다. 표창숙은 함께 중국으로 왔던 고영란이 남편과 함께 북으로 되돌아감에도 - 돌아갈 기회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 홀로 중국에 남는다.

탈북 이후 표창숙은 탈북자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리봉규의 도움을 받고 그와 사랑에 빠지지만 리봉규는 그만 중국공안에 체포되고 만다. 이후 창숙은 남한으로 함께 넘어온 또다른 탈북자 김금호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된다. 남한에서 보험설계사로 성공한 표창숙은 자신의 탈북과정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정에 대해 강연할 기회까지 얻는다. 표창숙은 이처럼 남쪽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한 탈북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정직하게 자본을 축적하려는 표창숙은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학비를 버는 이웃집 여자와 대조되면서 더욱 부각된다. 표창숙은 강연을 통해 북한 현실에 대해 여실히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한다. 남편 김금호의 시선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한국과 공화국의 차이는 개방과 폐쇄의 차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비해 자유가 보장된 남한 사회가 훨씬 우월하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자신을 명품이라고 부르는 직장동료들의 자본주의적 시선에도 이를 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는 창숙의 모습에서 -‘하지만 싫지 않았다. 재미있었다.’¹⁶⁾ - 자본주의에 침윤된 탈북자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작가는 탈북자가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의 자본주의에 재빨리 그리고 깊숙이 몸을 담그는 것이라 역설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탈북자의 자본주의 침윤이 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남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의 소멸과 순응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이를 건강한 소설전략이라 할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소설 속 김금호의 시선, 탈북자는 ‘정부에 반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선입견 또한 탈북자의 복잡 다단한 심리와 뿌리내리는 과정을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진다.

탈북자의 남한 정착을 문제삼고 있는 이 소설에서 표창숙의 ‘큰돈을 버는 일’은 탈북자의 완전한 남한 정착을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작가의 탈북자 인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준다. 유랑민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갖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탈북의 과정 속에서 리봉규와의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아픔은 표창숙에게 임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한다. 표창숙의 악몽 속에 자주 출몰하는 ‘배꼽위의 들쥐’ 또한 이와같은 ‘임신’의 불안감을 표상하는 부정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큰돈은 정착에 대한 일종의 방어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표창숙은 이를 제거함으로써 남한에서의 진정한 뿌리내리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표창숙은 자본주의에 철저히 침윤됨으로써 이와같은 정착에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탈북자의 다양한 뿌리내리기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사실 명품은 항상 큰돈을 싫어했어’라고 말하는

16) 이대환, 『큰놈과 큰돈』, 실천문학, 2008. 98쪽.

표창숙의 모습은 정착을 담보로 더 이상 돈(자본)에 얽매지만은 않겠다는 건강한 욕망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모습은 남한 사람보다 더욱 남한사람처럼 변해버린 탈북자의 일그러진 표상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V. 결론

이처럼 탈북자를 소재로 삼고 있는 최근 소설들 속에는 경계에 대한, 그리고 경계의 안과 밖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시선들이 교차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소설들에 담겨진 탈북자의 시선에는 작가의 현실인식이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소설과 현실, 모두에게 있어 ‘탈북’이 문제되는 이유는 ‘탈북’과 ‘탈북자’ 그리고 ‘새로운 뿌리내리기’의 행위가 시대를 민감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 월남민들이 당대의 현실을 반성적으로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되었듯 지금의 ‘탈북자’들은 여전히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또한 전지구적 자본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우리의 현실을 비춰주는 중요한 기호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탈북’에 대해 편향된 시선에서 벗어나 균형감 있게 접근하기 위해선 좌우이데올로기가 여전히 현존해 있는 분단국가의 민족적 특수성과 함께 전지구적 자본주의체제라는 세계사적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민족적 특수성에 함몰되어 ‘탈북’과 ‘탈북자’ 문제에 접근한다면 의도되었건 그렇지 않던 간에 이러한 방식이 체제의 공고함에 복무하거나 탈북자를 타자화하여 재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의 분단현실과 민족적 특수성을 간과한 채, 탈북자를 세계화로 인해 소외된 보편적 경계인 정도로 치부하는 것도 탈북자를 또다시 타자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점은 이들 경계를 넘은 자들을 그들이 지닌 이중, 삼중의 억압을 간과한 채, 체제 내 잣대로 함부로 재단하는 일이다.

본고에서 논의한 여섯 편의 장편, 연작 소설들은 탈북자 소설이 지닐 수 있는 이러한 문학적 성과와 한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강영숙의 『리나』는 ‘탈북자’ 소재가 우리의 특수한 현실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인간 본연의 소설적 주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권리의 『왼손잡이 미스터리』나 정도상의 『찔레꽃』은 현존하는 분단 현실을 보다 깊이있게 천착하고 ‘탈북자’들의 뿌리내리기 과정을 편견없이 바라보고자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이호림의 『이때, 길을 묻다』와 이대환의 『큰놈과 콘돔』은 분단 현실과 탈북자에 대한 보다 균형감 있고 열린 시각이 절실함을 확인케 한다.

앞으로 전개되는 ‘탈북자’ 소재의 소설들이 보다 유의미한 문학적 성과들을 얻기 위해선 남북한 현실과 탈북자가 지닌 특수성과 보편성을 아우르는, 그리하여 탈북자들의 다양하고도 의미있는 정체성 찾기를 섬세하게 포착해내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영숙, 『리나』, 랜덤하우스코리아, 2006.
권 리, 『왼손잡이 미스터 리』, 문학수첩, 2007.
박덕규, 『고양이 살리기』, 청동거울, 2005.
이대환, 『큰돈과 큰돈』, 실천문학, 2008.
이호림, 『이때, 길을 묻다』, 아이엘앤피, 2008.
전성태, 『늑대』, 창비, 2009.
정도상, 『찢레꽃』, 창비, 2008.
황석영, 『바리데기』, 창비, 2007.
윤여상,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세명, 2001.
정주신 편, 『현대 탈북자 문제의 이해』, 프리마북스, 2009.
백지연, 「타자의 인식과 공공성의 성찰」, <창작과 비평>, 2009, 겨울호.
이경재, 「네이션과 2000년대 한국소설」, <문학수첩>, 2009, 겨울호.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2부

제1주제

'일방적 소통'에서 '상호 통섭通涉적 소통'으로의 소통의 전환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발 표 자 : 김선희(강원대)

'일방적 소통'에서 '상호 통섭通涉적 소통'으로의 소통의 전환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김선희(강원대)

I. 현황

199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로 말미암아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급증하고 있다. 기아의 공포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곳에 정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해외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현재 해외만 해도 대략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새터를 찾아 나선 새터민의 수는 2007년에만 2500여 명이 국내로 입국해 2010년 현재 새터민 2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강원도 내에도 500여 명의 새터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거주지 확보 부족이 가중되면서 인접해 있는 강원도의 새터민 정착율은 점차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타깝게도 필사적인 북한이탈 그것 자체만으로는 어떤 희망도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운 좋게 새로운 정착지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한국 내의 경제 상황의 악화는 새터민들의 한국 내에서의 정착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이외에도 새터민들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오던 정치적·이념적·문화적 정체성과 이들이 정착한 새로운 사회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 사이의 갈등을 극복해야한다. 이제는 이와 같은 새터민들의 새 사회적응에 수반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결과 2010년 초에 통일부는 하나원 중심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문제의 한계성을 인식하여 2010년 말까지 전체 30개의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 센터(하나센터)를 선정하여 개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센터에서는 3주간의 지역적응 교육 및 11개월의 사후 관리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하나센터의 과제는 하나원에서의 8주간의 사회적응교육 후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각 지역에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다. 이들이 겪는 주된 어려움으로는 첫째는 자립과 자활의 기초가 되는 취업 및 생계 문제, 둘

째는 문화, 언어, 정치, 경제적 경험의 차이로 인해 지역주민으로서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셋째는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신체질환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문제, 넷째는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외상과 정착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010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자 매뉴얼)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는 문화적응의 혼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대인관계 갈등에서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의 유형이나 심도에 따라 개입방법의 강도와 깊이가 정해져 심리상담에서 약물치료, 정신과 입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은 세 영역으로 구분되어 왔다. 즉, 바람직한 생활과정과 성장발달의 지도를 목표로 현실적 능력의 평가 및 장래 계획을 하도록 돕는 ‘생활지도’, 구체적 생활 과제의 해결이나 감정, 사고, 행동 양식의 변화를 목표로 장애적 긴장, 불안, 비능률적 행동 습관, 비성취적 관념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문제 해소, 성격구조의 심층적 변화를 목표로 신경증, 성격장애, 우울증, 정신병 등을 다루는 ‘심리치료’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 세 영역으로만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이라고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회적응이라고 하는 과제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계에 대한 나의 심리적 해석의 결과에 대한 이와 같은 소극적 차원의 치료의 과제 이외에도 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은 정신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어 개인적 차원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의 어려움은 외부적,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문제와 관련이 깊으므로 단순히 심리적, 정서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 능력이 선행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지원과 심리적 차원의 상담 서비스를 넘어서 있다. 이들에게 일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어쩌면 경제적 토대이자 고통스런 심리적 상흔의 치료일 수 있다. 그러나 열심히 일만 한다고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상흔이 치료되었다고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단기적 긴급 구조요청에 대한 해답일 것이다. 장기적인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응을 위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더불어 냉혹한 현실에 대면할 수 있는 문제 해결능력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 적응과 더불어 이것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추구는 단지 경제적인 부의 획득과 정신적, 심리적 질환을 치료하고 하는 소극적 형태의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사회와 개인의 긍정적 관계 그리고 함께 하는 삶의 연대적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인간적인 감성과 지성의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은 현대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폭넓은 차원의 사고 지평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당면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삶을 단지 경제적 안정이라는 슬로건 속에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들의 의미를 향유할 수 있는 인간적 감성과 지성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은 한편으로는 북한 이탈과정에서 얻게 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자활기반을 마련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문제설정: 사회적응과 상호 통섭적 소통력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이라고 하는 사회적 화두는 지금까지 주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그리고 사회복지와 같은 영역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작업의 성과도 이미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다.¹⁾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문제는 기존의 심리적인 차원이나 최근

1) 강정숙 (2009). 새터민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셀프파워 증진 프로그램 개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경, 김현아 (2009). 새터민 동료상담자의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81-1009, 김현아 (2007). 양과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새터민 상담자의 역할과 과제: 치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일반심포지엄, 308-309, 김현아, 정성란 (2008). 새터민 가족상담 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9(3), 1333-1356, 김정운, 유정갑, 강석운, 박선아 (200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소, 김용민, 정상돈, 원준호 (2004). 갈등을 넘어 통일로-화해와 조화의 공동체를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 김학성 (2000). 북한이탈주민(탈북이주자)의 남한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독고순 (2001). 탈북주민의 가치성향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사회학, 35(1), 149-174,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199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성미영 (2002). 청소년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정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형미 (2006). 탈북청소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체험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신섭 (1995). 남북통일과 남,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대학생, 실향민, 귀순자, 배우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양계민, 정진경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 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특별호), 97-115,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8). 남북 문화 간 통합을 위한 새터민 조력자의 교육모형 탐색. 아시아교육연구, 9(3), 1-2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윤인진 (1999). 소수자 연구 시각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 과정. 경남대 북한대학원 학술회의 발표논문, 이금순, 김규륜, 김영운, 안혜영, 윤여상 (200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통일연구원, 이금순, 최의철, 임순희, 이우영, 김수암, 윤여상, 안혜영, 김병로, 오승렬 (200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 통일연구원, 이우영 (2001). 북한 문화의 수용실태 조사. 통일연구원,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 (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의 해소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

의 취업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 이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과 같은 철학적 영역에 있어서의 집중적인 접근과 공동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응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에 있어서 사각지대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남한 주민들이나 남한 상담자의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이와 같은 상호 이해의 결핍은 한 사회에 공존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는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이질감 극복에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철학이 지니고 있는 치료적 힘을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를 풀어가는 데 접목시켜 보고자 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적응의 주체와 영역의 확대이다. 기존의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논의들에 있어서 사회적응의 주체는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논의되어, 이들이 남한 사회에의 일방적인 적응, 즉 ‘동화’ 차원에서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원을 사회적응 문제의 목표설정에 대한 잘못으로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1997)은 지적하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이념 및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통일문화공동체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이 되도록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그것의 내용에 있어서의 과감한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희, 2007, 38)

2006년부터 서서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의 적응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기 시작하여 “새터민으로 대표되는 북한 문화와 남한의 주류문화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새터민의 ‘문화통합’”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조정아, 임순희, 정진경(2006): 279) 이때부터 적응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상호 통섭적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응의 한계에서 초래되는 갈등의 문제도 북한이탈주민 중심의 논의에서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서히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응의 주체의 논의에 있어서 상호 통섭적 관점으로의 전환은 사회적응의 영역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갈등의 요소를 바로 북한이탈주민과 남

남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 방안. 한국여성개발원/통일연구원,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심리적 문화적응 기제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성열, 이종한, 금명자, 채정민, 이영희 (2007).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와 문화적응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13(2), 33-54.

한 주민과의 주요접촉면 및 생활의 주요한 장으로 보기 시작한다. 기존의 일방적 적응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일방적인 관점의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의 적응이 이제 북한과 남한의 문화의 차이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응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자원을 새로운 사회의 정체성으로의 전적인 동화의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기존의 정체성을 선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의 의미를 부각시킨다. 즉 새로운 자원에 대한 집착보다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의 사회적응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이와 더불어 남한 사회의 문화나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비판적이고 선별적인 수용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응과 영역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새터민의 사회적응을 ‘동질성의 복제’에서 ‘차이의 인정’과 ‘통합’으로 보기 시작하였다.(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 286)

이와 같은 사회적응의 주체와 영역의 패러다임 전환을 심층적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이 두 축을 지지하고 있는 소통 패러다임 또한 일방적 소통에서 상호 통섭적 소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질적인 사회 요인들에 대한 적응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통은 바로 상호 통섭적 소통이다. 즉, 적응의 주체와 관련해서 기존의 북한 이탈주민 중심의 남한 사회적응에서 남한 주민들의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상호 통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이질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호적응의 효과를 도출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있어서도 북한 이탈주민 서로 간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내적인 상호 통섭적 소통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 상담에 있어서 최근 새터민 동료상담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도 연결되어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이해해줄 수 있고 동질감을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상담을 선호한다.(김영경, 김현아, 2009, 1004).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상호 통섭적 소통은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신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일상적인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것의 해결 방안들을 일종의 집단 활동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나눔으로써 서로의 체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실패의 경험 수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내적 자원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결국 사회적응의 토대인 자활의 요소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생산한다.

이와 같은 기존의 사회적응 패러다임에 있어서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적응 문제에 있어서 일방적 소통에서 상호 통섭적인 소통으로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응과 통합의 근간을 이룰 것이며 나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상호 통섭적 소통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전략적 구성요소인 동시

에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일 수 있다. 결국 개인이나 사회의 자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 통섭적 소통의 힘은 이질적인, 타자적인 개인들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신들의 자원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돌쩌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돕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폐쇄적 동일성에 갇히지 않고 타자성을 향해 자신의 존재를 개방하는 지평의 확장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지평 확장을 통하여 개인들의 이질성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의 지평으로 질적 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방적 소통에서 상호 통섭적 소통으로의 소통의 패러다임 전환을 학문적으로 정초하기 위한 철학적 작업으로서 인식론적 단초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실험적 작업으로서 필자는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 철학이 지니고 있는 무지의 자각과 자기인식의 화두 그리고 산파로서 철학자의 소명을 탐색하여 볼 것이다.²⁾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통섭성이 치료의 영역에 구체화될 수 있는 접목 지점을 모색해 보기 위하여 니체의 관점주의적 사상을 치료적으로 확장한 관점치료를 접목하여 볼 것이다.³⁾ 이를 바탕으로 소크라테스와 니체 철학이 지니고 있는 치료적 함의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사회적 이슈와 직접적인 접목지점을 도출하여 본다.

III. 상호 통섭적 소통의 철학 치료적 지평: 소크라테스적 물음

인간의 삶은 끝없는 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삶의 변화의 폭이 큰 시기일 수록 새롭고 이질적인 상황에 대면하게 되며, 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진다. 새터를 찾아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남한 사회에 도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그렇고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맞는 남한 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하여 많은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어가 『철학의 부스러기(Philosophiske Smuler)』의 첫 장에서 던진인 “진리는 어디까지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가 Inwiefern kann die Wahrheit gelehrt und gelernt werden?”라는 소크라테스의 의미있는 물음에 대한 탐색은 바

2) 다음 두 편의 기존의 연구의 성과를 이에 접목하고자 한다. 「앞에 이르는 길로서 산파법, 변증법, 아이러니: 소크라테스, 낭만주의, 헤겔, 키에르케고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43집, 한국동서철학회편, 2008; 「마음치료, 철학적 대화인가 프로작인가?: 인문치료적 관점에서」, 『동서철학연구』, 제53집, 한국동서철학회편, 2009.9.31, 225-248쪽.

3) 다음 두 편의 기존의 연구의 성과를 이에 접목하고자 한다. 김선희, 「관점과 관점치료」, 강원대학교 HK 인문치료사업단, 『인문치료』, 네오뮤즈, 2008, 125-143쪽; 「인문치료, 감성에게 묻다: 관점치료를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45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9.3, 411-443쪽.

로 우리가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하여 제기한 물음을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있는 철학적 사유의 과정을 제시한다.

그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메논』(80e)에서 ‘논쟁적 명제(einen streitlustigen Satz)’라고 한 난문, 즉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음으로 그가 구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자기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자기가 아직 모르고 있는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환기시킨다. 이 난제가 의미하는 바는 인간이 무엇인가 대답을 구한다면 그것은 그가 그 대답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대답을 자신 속에서 아직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지금은 찾을 수 없지만 탐구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 답을 자신 속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의 발견의 인식론적 근거를 그는 상기(anamnesis)라는 개념을 통해서 풀어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키에르케고어는 진리를 배우는 문제와 관련하여 모르는 사람이 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내기 위하여, 처음부터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을 오직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의 필요에 주목한다. 이 사람이 바로 산파로서 철학치료사이다. 물음을 던진 사람이 알고 있지 못한 유일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산파는 진리를 스스로 말하지 않고 물음을 던진 자가 그것을 스스로 아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물음의 진정한 의미와 진리 획득의 진정한 의미를 명시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키에르케고어가 소크라테스를 높이 평가한 진정한 이유이자 “소크라테스가 산파(midwife)였으며, 또 끝까지 산파로 머문 진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그것만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관계라는 점이다. 이것을 소크라테스가 알고 있었기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자 역사 이래 가장 지혜로운 철학자로 남아있는 진정한 이유가 될 것이다. 자신의 과제를 낳는 일이 아니라 낳는 일을 도와주는 일, 즉 산파에 한정된 대목은 철학에서 교사와 제자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철학상담에 있어서 상담사와 내담자의 본질적인 과제를 명시적으로 환기시키는 부분이다. 키에르케고어가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사와 제자 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리를 배우는 일과 관계된 유일한 교훈일 것이다.

내담자의 덕목을 명시하는 소크라테스의 ‘물음을 가진 자만이 그 물음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통찰은 왜 소크라테스가 교사로서의 인간이 산파

이상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그것의 핵심적 이유는 “모든 물음의 궁극의 뜻은 물음을 받는 사람 자신이 어쨌든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치 인간이 교사로서 타인에게 진리를 선언해서도 제자로서 타인으로부터 진리를 구걸해서도 안 되며 단지 산파의 역할에 국한된 교사의 도움으로 그 자신 스스로 진리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철학치료사와 내담자도 그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스스로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로 개인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원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구성원들 자신들이 문제 해결의 가장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에 개인 상담의 자원의 협소성이 집단 상담 속에서 확장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담자의 문제를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 내담자는 해결 능력을 얻게 되고 결국 삶에서 부딪칠 수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갈 능력을 지니게 된다. 즉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바로 물음과 자신의 현실적 상황과의 부단한 조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답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은 물음의 당사자 아니면 누구도 적확하게 할 수 없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이 선행되었을 때 비로소 그 대답은 현실 속에 적절한 자리를 찾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물음을 제기한 자는 과연 어떻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가? 답을 찾아가는 첫 관문은 바로 무지에 대한 자각이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인 무지의 자각이라는 소크라테스의 핵심적 이슈는 상담적 의미로 확장하여 해석한다면 상담자나 내담자에게 주어진 제한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고립된 개인들이 상호 통섭적 소통을 위한 기본 태도를 명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무지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과거의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무지의 상태에서 집단 활동을 통하여 새롭게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의미있는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기본 태도로서 무지에의 자각과 새로이 자신을 알아가는 자기인식 그리고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집단활동을 통한 타자인식의 과정은 철학 상담의 일반적 영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익명적 사회에 살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고독한 개인들과 새터를 찾아 나선 유목민인 북한이탈주민들이 낯선 관점과 소통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상호 통섭적 소통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무지

에의 자각을 통하여 새로운 인식을 부단히 도모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사회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무지의 자각을 통해서 빈 마음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인식하고 이해하고자 시도해야 한다. 익숙하지 않은 북한이탈주민과 조우하는 남한 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하여 서로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에 대해 새로이 인식하고자 정성을 들여야 한다.

IV. 상호 통섭적 소통의 효과적 장으로서 관점치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은 결국 다름에 대한 태도와 대처방안 모색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는 서로의 다름에 대한 체험이 중요한 선행과제이다. 결국 다른 관점에 얼마나 개방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다름에 대한 적응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차원에서는 남한사회의 다름에 대한 빠른 이해와 비판적 수용이 적응과 행복한 삶을 가속화시키는 중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자원 중에는 새로운 관점을 선별적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기존의 자신의 자원을 발견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중적 자원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사회적응에 있어서 귀중한 자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의 가치의 근거는 바로 관점주의적 차원에 근거한다.⁴⁾ 즉 누구나 동일한 대상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관계 구조 속에서 상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만일 한 사람이 어떤 사회에 적응을 시도한다고 할 때 각자가 각자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할 경우, 각자가 하나의 경험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열 명이 하나씩을 서로 나누면 결국 하나를 가져와 적어도 열 개의 경험을 얻게 되는 셈이다. 이들 통하여 개인들은 사회를 더욱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된다.

4) 우리는 대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대상과의 거리나 위치뿐만 아니라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 동일한 대상이나 동일한 주체라고 할지라도 이 양자 사이의 거리나 위치 그리고 그들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분위기에 의해서 대상은 달리 체험된다. 이것을 미술에서는 perspective라고 한다. 그리고 원근법(遠近法)이라고 번역한다. 이와 같은 원근법주의는 니체에 의해서 철학적으로 해석되어 우리의 경험이 보편적인 주관의 형식에 의해서 보편적인 모습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체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보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이를 원근주의나 관점주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와 같은 관점주의에 대한 메타적 인식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는 특정의 관점에 대한 자기 이해와 이를 통한 자기 이해의 한계에 대한 자각 그리고 타자적 관점으로서의 확대를 현대인의 삶의 병리적 현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이를 관점치료라는 용어를 통하여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관점주의적 활동은 각자의 주체가 자신의 주체의 영역 속에 폐쇄되는 것을 지양하고 주체들 간의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상호 주체성을 강화한다. 이와 같은 관점의 상호주관성을 강조하는 관점 치료적 접근은 특히 주관주의나 객관주의에 사로잡혀있는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나 사고의 방식이 수반하는 소통의 단절과 이로 인한 마음의 병에 접근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현대인의 마음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대인들의 실존적 조건에 결여되어 있는 상호 주관성의 경험의 계기를 관점 프락시스를 통하여 강화하는 것이다.⁵⁾

<인문치료, 감성에 대해 묻다: 관점치료를 중심으로>에서 필자는 다시 관점전환의 4요소와 6축: 고착된 관점에게 운동감을 부여하는 것은 현대인의 마음병 치료에 있어서 기본과제이다. 다름의 상호공존을 위해 필요한 상호 통섭적 소통을 통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관점치료가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 변형력, 즉 관점의 조형력이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의 삶이 특정의 관점을 필요로 하고, 이와 같은 관점은 이미 삶의 자기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 특정의 관점이라고 할지라고, 이 특정의 관점은 세계의 변화와 그 속에서의 개인들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자기 조형력을 갖추고 있을 때만이 삶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나 이미 자신의 삶의 공간을 새로운 사회로 이동한 노마드적 공간의 노마드인에게 있어서 관점의 조형은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기존의 관점을 새로운 공간 속에서도 고수하려고만 한다면 그 관점은 결국 병들고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관점치료의 핵심인 관점전환의 여섯 가지 축, 즉 주체/대상, 인칭, 시간, 공간, 거리, 시점과 그것의 다양한 양태를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의 관점으로 응용하여 보고자 한다.⁶⁾

여섯 가지 중심축에서 우선 주체/대상 축의 양태와 관련하여 관점 전환은 인간을 인식을 상징하는 머리, 정서를 상징하는 가슴, 욕망을 상징하는 배(그리고 행동의 차원을 상징하는 몸)로 구분하여 관점 전환을 시도한다. 상이한 관점을 지니고

5) Kim Sun-Hye, *Socratic Dialogue and Praxis reducing Conflicts: Challenge of Humanities Therapy*, Global COE Symposium, COE Center, Osaka University, 2010.02.17.

6)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축과 그것의 양태를 중심으로 관점전환이 시도된다. 관점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관점치료는 4단계의 과정 속에서 문제의 관점 진단과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김선희, 「관점과 관점치료」, 강원대학교 HK 인문치료사업단, 위의 책, 140-141쪽 참조. 1단계는 관점-성찰(Perspective-Reflection)을, 2단계는 관점-이해(Perspective-understanding)를, 3단계는 관점-공감(Perspective-Sympathy)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관점-조형(Perspective-Molding)을 목표로 한다.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과거의 우리의 관점이 유지되어야 하거나 변화되어야 할 정도와 한계를 문제 설정하는 조형력(Plastische Kraft)이다. 조형력을 통하여 철학치료사와 내담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점의 심화가 필요한지, 확장이 필요한지, 아니면 관점 자체의 변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게 된다. 조형력을 통하여 내담자는 자신의 관점을 단일-시점에서 다-시점으로 전환하거나 가치 관점을 바꿈으로써 관점을 심화·확장·변형할 수 있게 된다.

있는 개인들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개인들과의 상호 접촉을 피할 수 없다. 사회 속에서의 모든 관계는 그 속에서의 개인들의 일률적인 기계적 작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들의 인식적 요소, 정서 그리고 욕망의 움직임에 의해서 부단히 새로운 형태의 관계들이 형성되고 사라진다. 따라서 현대인들이나 북한이탈주민이 사회 속에 성공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인식적, 정서적, 욕망의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속에 개인들의 관계는 단지 외부의 명령 체계나 원칙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원칙들을 수용하는 개인들의 세 가지 부분들의 다양성에 의해서 새롭게 변형되기 때문에 자신이 접하고 있는 개인들의 다양한 주체적 요소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사회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1인칭, 2인칭, 3인칭의 양태로 구분되는 인칭 축은 현대인들은 주로 1인칭 중심의 관점에 지배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우는 당이라고 하는 무인칭적 3인칭 관점에 지배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특정의 인칭을 중심인칭으로 지속적으로 고수한다면 결국 배제되어 버리게 되는 다른 인칭들과의 관계의 소통의 단절을 필할 수 없고 이것은 사회적응의 기본 코드인 관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1인칭 관계 중심의 관점은 자신의 관점을 2인칭과 3인칭 관점으로 확장시키는 통섭의 과정이 필요하고 3인칭 중심의 관점에 있어서는 1인칭과 2인칭의 관점과의 통섭 활동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핍된 인칭관점을 보완함으로써 상호주관성은 강화된다. 이로써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구성원들 사이의 연대성의 강화 그리고 사회 속의 구성원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시간 축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의 양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동일한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보는 시간적 관점에 따라서 상이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시간 축 또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누구나 동일한 시간 축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관점은 현재에 고착되어 과거와 미래를 망각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은 지나치게 과거에 고착되어 자신이 존재하는 현재의 관점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망각함으로써 과거 속에 갇혀 살 수도 있다. 또한 어떤 관점은 미래에 고착되어 있어서 자신이 서 있는 지금 이곳을 미래의 수단으로 전략시킴으로써 그의 현재는 끝없이 미래에 의해서 지연되어져 결국 어떤 현재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지 못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는 과거의 상흔에 구속되어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상적으로는 미래의 관점에 의존하는 이중적인 시간 관점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관점을 적절히 조형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조형력이 강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

네 번째, 공간 축은 지금 관점이 처해있는 여기 그리고 그 관점의 장소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지의 장소인 저기의 양태를 지닌다. 인간은 누구나 특정의 장소에 구속적인 존재이다. 은둔형 외톨이처럼 자신의 행동반경을 자신의 방으로 제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워커홀릭처럼 자신의 활동 공간을 철저히 일 중심으로 배분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공간의 중심에 일을 두는 사람도 있고 드라마 중독자들처럼 TV 앞을 자신의 삶의 중심 공간으로 위치시킨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특정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간다. 그곳이 바로 여기라는 곳이다.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익숙해진 공간, 즉 여기를 중심으로 행동반경이 그어진다. 여기 구속적인 우리의 삶은 저기로의 이동을 기피한다. 따라서 저기에 대한 정보와 이해는 그만큼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물며 미지의 장소인 저기는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저기로 머무는 공간으로 남게 된다. 현대인들이 온라인 속에서 아무리 공간 비제약적인 삶을 영위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교통수단의 발달에 의해서 달나라까지 가게 된다고 할지라도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불박이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삶의 이동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의 정신의 세계와 더불어 육체의 세계는 협소해지고 병들게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여기에 거기 그리고 거기에서 여기로 서로 소통하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여기에서 저기로 그리고 저기에서 여기로 오도록 개방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다양해지고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관점 전환의 다섯 번째 축은 거리의 축이다.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가치적 거리로 구분될 수 있다. 대상이 그렇게 나에게 보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물리적 거리이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다. 눈과 대상의 거리는 나와 대상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게 어떤 대상들은 가까이 있어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은 멀리 있어야 잘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거리는 위치 요인에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동일한 거리라고 할지라도 대상과의 위치에 따라서 대상은 다른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상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거리와 다양한 위치에서 바라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대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리와 위치들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때의 거리와 위치는 단지 물리적 거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바로 가치가 거리에 중요한 양태로 자리한다. 우리에게 경험된 대상은 단지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치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에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게 부여한 가치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동일한 물리적 대상도 어떤 관점에게는 아름다운

것으로 어떤 관점에게는 추한 것으로, 또 어떤 관점에게는 올바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게는 달리 보이기도 한다. 동일한 행동도 사람들에 따라서 가치도가 다르기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대상의 이와 같은 물리적 거리와 가치적 거리의 차이점에 유념함으로써 좀 더 상호 통섭적인 소통을 만들어갈 수 있다.

관점의 마지막 축은 시점이다. 시점은 단일시점과 다시점의 양태를 지닌다. 우리가 대상을 경험할 때, 우리의 관점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일시점에 속할 것이고 우리의 관점이 다양한 축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면 이는 다시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 전환의 여섯 가지 축은 결국 다시점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시점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은 비로소 운동을 시작하고 상호주관적 성찰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여섯 가지 축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임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체험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조우하게 된다.

관점치료는 자기 자신의 관점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타자의 관점에 대한 이해로의 확장을 통하여 고립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새로운 사회에 편입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에 중요한 상호 통섭적 소통을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점치료의 방법을 통하여 상호 통섭적 소통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현대인들이나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지금까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꾸는 대신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적극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훈련을 하게 된다.

V. 소크라테스적 프락시스 기법을 통한 상호 통섭적 소통의 촉진

관점치료의 치료적 차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다양한 치료적 매체들을 철학치료에 맞게 변형한 소크라테스적 프락시스의 여러 기법들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응용하여 보고자 한다.⁷⁾

소크라테스적 기법	소크라테스적 기능	상호 통섭적 기능	적절한 회기
소크라테스적 애칭 짓기	핵심 화두와 관련된 핵심 이름 찾기를 통한 진단적이거나 치료적인 정체성	자기 정체성 대면하기와 나누기는 새로운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도입 전반부 사용

7) 기존 기법에 상호 통섭적 문제의식 영역을 보완하였다. 김선희, 「철학치료사례」, 한국철학상담치료학회, 제1회 한국철학상담치료사양성 철학상담치료연수회(2010.01.08-11.), 동덕여대, 2010.01.11.

	모색	대한 물음을 이슈화하는 계기 부여	
집단 철학 활동의 계명 만들기	프락시스를 하기 위한 자기 태도, 약속 표면화하기	새로운 사회 속에 적응하기 위한 자신의 약속 만들기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에의 적응을 위한 자신의 의지와 목적의식을 표면화하는 계기를 마련	도입 전반부에 사용
소크라테스적 개념 놀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 아직 문장화되지 않은 산발적인 생각의 조각들을 개념, 단어의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생각의 실마리 찾기를 촉진	자기 자신의 중심 개념 대면하고 타인의 중심 개념 체험하기(탈북자들은 개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조직사회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익숙하기에 개인들 간의 상호 정서적, 인지적 이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	도입 후반부
소크라테스적 문장 놀이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관찰과 성찰을 위한 두 번째 걸음으로서 산발적인 개념들을 문장으로 확장 시킴으로써 생각의 실마리 잡기 촉진	핵심 개념이 아니라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확장하는 연습과 표현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 아이를 이끌어내고 타인과 그것을 공유하는 능력을 촉진	도입 후반부
소크라테스적 스크래치	시간이 소요되는 선 그리기와 색칠하기 그리고 굵기 활동이 지니는 심미적 과정을 통하여 집단원들 간의 라포 형성과 생각하기 자체의 심리적 부담을 자연스럽게 해소시키고 생각의 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움	타인과 나의 기대의 일치와 불일치를 스크래치 공동 활동을 통하여 경험함으로써 타인과 나의 직접적인 연대성의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진하는 동시에 심미적 체험을 부여	개념놀이나 문장 놀이와 결합하여 준비 단계로 활용 가능
소크라테스적 자유연상	명료한 생각하기로 들어가기 어려운 단계를 위한 예비단계로서 문제 상황과 관련하여 정리되지 않은 산발적인 생각과 반사적인 생각들을 드러내는 데에 기여	자신의 개방하기 연습으로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여 서로 공감하는 훈련을 통해 자기 개방과 동시에 타인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 부여	소크라테스적 개념 놀이나 소크라테스적 스크래치와 접목 가능
소크라테스적 창조연상	자유연상 된 개념이나 문장을 성찰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나 문장 만들기로의 이행을 촉진	있는 그대로의 나에서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변화에의 적극적 관심을 유도	자유연상이 반사적인 활동이라면 창조적 연상은 의도적이고 창의적이다. 이 단계는 자유연상 다음 단계로 하거나 인지능력이 좋은 집

			단이라면 자유연상 없이 곧장 할 수 있음
소크라테스적 개작하기	우선 당면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도록 함으로써 당면 문제와 현실의 연결지점 탐색을 유도하는 동시에 문제의 이야기의 내용을 개작함으로써 당면문제의 상황 자체의 고정된 인과관계를 열어놓은 것을 조력	한편으로는 자신의 변화된 상황(새터)을 파악하고 가상으로 대처해보기를 통해 새 사회 속에 있는 자신의 현실 직시하기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상황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을 통하여 현실에 대한 관점 전환하기	마지막에 도달해야 하는 자기 통찰을 돕는 활동으로서 중반에서 후반부로의 이행기에 적합. 소크라테스적 개작하기에 비해 소심한 그룹에서도 할 수 있으나 심미적 효과는 그것에 비해 약함
소크라테스적 글쓰기(편지, 일기, 경구)	당면문제, 당면 대상, 당면 사건 등을 글쓰기를 통한 자기 관찰과 성찰 그리고 통찰을 유도. 편지의 경우는 나와 대상 간의 조우, 일기의 경우는 나와 나의 조우, 경구의 경우는 문제 상황에 대한 통찰력 기르기를 촉진	문제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직면하기	중간이나 마무리 때 사용
소크라테스적 개사하기	당면 문제와 관련된 가사를 찾아보게 함으로써 당면문제에 대한 탐색을 유도하는 동시에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가사를 개사함으로써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다른 관점의 가능성을 열어보는 동시에 집단 구성원들이 개사한 노래를 직접 불러봄으로써 인지적인 체험과 심미적인 체험을 동시에 유도	진단적으로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노래를 찾고 나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봄으로써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이 처했을 때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심미적이고 인지적인 안전장치를 고안하기	후반부, 즉 구성원들 간에 일정의 라포가 형성된 후에 라포 강화에 적용
소크라테스적 인터뷰	특정 화두에 대한 특정 철학자와의 가상의 인터뷰나 핵심 인물과의 철학적 인터뷰 하기로서 전자는 당면한 문제를 철학자의 입장에서 묻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핵심문제를 철학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하고 후자의 경우는 실재하는 존재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완전히 타자의 관점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핵심문제를 해결하는 비교적 강도있고 직접적인 방식	당면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이거나 가상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고 지금 함께 할 수는 없는 가족들이나 그리운 사람과의 가상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과 그리운 이와 의 정서적 소통을 함으로써 내면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을 도움	인지력이 발달된 집단이나 대상에 더 효과적이며 후반부에 적용

<p>소크라테스적 체베나 쓰기</p>	<p>문학에서 사용하는 시 형식인 체베나라는 짧고 틀지어진 형식을 통하여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간략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육하원칙의 원리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체베나는 시이기에 대상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경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성적 차원을 진단적 부분에서나 치료적 차원에서 시도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체베나 쓰기와 더불어 체베나 낭송하기는 인지적 성찰과 더불어 감성 활성화에 효과적임</p>	<p>내담자 자신의 핵심문제 상황을 인지적이고 정서적으로 이끌어내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p>	<p>전체 회기에 사용 가능</p>
<p>소크라테스적 콜라주</p>	<p>미술에서 사용되는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서 다양한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당면과제와 관련된 이미지나 개념들을 오려서 붙이는 활동이다. 언어적 표현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대상들이나 인지적 작업보다는 심미적 작업을 선호하는 대상이나 단계에 사용할 수 있다. 당면 문제를 이끌어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비언어적 혹은 준-언어적 활동을 통해 직접 생각하기나 언어로 표현하기의 어려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간접적 생각하기와 비언어적 표현 속에서 문제 찾기와 해결점 모색하기를 시도할 수 있음</p>	<p>잡지나 신문은 일종의 세상의 콜라주와 같다. 특정의 잡지책이나 신문은 그 사회를 다양한 형태로 반영한다. 그러나 어떤 잡지책이나 신문도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나 신문과 잡지는 세상을 아는 중요한 매체이다. 콜라주 작업 자체 또한 한 개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못하지만 개인의 많은 것을 자유 연상적 차원이나 창조적 연상의 차원에서 표현하는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한다. 노마드인들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잘 알아가기 위하여 그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콜라주의 재료인 신문이나 잡지는 활동의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코드와의 자연스런 접촉의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p>	<p>전체 회기에 다양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사용 가능</p>
<p>소크라테스적 만화 그리기</p>	<p>청소년들이 즐기는 만화 그리기를 소크라테스적 프락시스에 적용한 것으로</p>	<p>남한 사회의 새로운 문화층의 하나인 만화 문화는 북한의 그림책 문화이지</p>	<p>중반부 이전에 사용</p>

	<p>로서 문제 상황을 만화가 지니는 이미지와 말풍선을 통하여 표현한다. 철학이 지니는 무거운 느낌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선호 영역을 통하여 철학하기의 즐거움, 즉 대화하기(말풍선)과 생각하기(지문), 상황 설정(만화 이미지)을 유도한다.</p>	<p>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바로 북한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과 남한 사회에서의 개인의 삶의 위상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르이기에 만화 그리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사회 속에서 기대되었던 자신의 정체성과 새로운 사회에서 기대되는 개인의 정체성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p>	
소크라테스적 극본 쓰기	<p>특정의 상황에 대한 가상의 극본 쓰기를 통하여 핵심 상황을 진단적으로나 치료적으로 대상화할 수 있다. 개념놀이나 문장 놀이가 확장된 형태이다.</p>	<p>한국 사회에서 구체적인 적응 상황 속에서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보고 구체적으로 극복하는 데 기여</p>	중반 이후에 사용
소크라테스적 그림 그리기	<p>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삶의 철학적 상황을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비언어적 강점과 친-심미적 활동을 매체로 이야기를 유도</p>	<p>소통의 매체를 다양화</p>	초반기에 사용
소크라테스적 셀프 저널 쓰기	<p>삶의 순간에 대한 자기 성찰 기록하기로서 일종의 기본성찰(일어난 일을 기록: 외적인 성찰 기록)과 심화성찰(일이 일어날 때 나의 존재(정서나 행동 그리고 생각)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기록: 내적 성찰기록)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유하기의 가장 기초적인 자기 훈련 촉진 매체</p>	<p>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부단히 관찰하고 성찰하는 훈련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자기 성장의 토대를 제공</p>	<p>자기인식을 통한 자기 진단과 치유의 작업으로서 전체 회기에 대한 자기 기록 형태의 평가에 기여</p>

VI. 맺음말

‘우리’에게 ‘그들’이 타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도 타자이다. 우리에게 그들이 낯선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우리도 낯선 존재이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와 그들이 공

존할 때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동고(Mitleid)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인간은 다른 존재들과는 달리 다른 존재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상호 통섭적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이 늘 발현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회로 편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이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호 통섭력의 촉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소크라테스적 화두와 관점치료적 사유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이라고 하는 현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영역 속에 철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실험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해보았다. 새로운 문제영역이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소 무소한 시도일 수도 있겠으나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 영역들을 천착하고자 한다.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2부

제2주제

다문화 현장이 갖는 딜레마

: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발 표 자 : 구수연(군산대)

다문화 현장이 갖는 딜레마 :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구수연(군산대)

I. 들어가며

2008년 우리나라에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854,007명으로(통계청자료), 이러한 외국인 인구 증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와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 여성 이민자의 유입, 북한에서 탈북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새터민의 수의 급격한 증가에서 비롯된다. 2009년 국제결혼이 67,090으로 이는 2008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다. 또한 2008년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58,007명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33,140명으로 전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의 51.7%에 이르고 있다(오마이뉴스, 2010.3.3).

이렇게 통계가 보여주듯이 최근의 급격한 외국인 인구 증가로 인해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단일민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게 되었다. 다양한 문제들은 인종·문화에 대한 편견으로 야기되는 갈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이들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2세들이 출생이 증가하고 이들의 자녀가 성장하여 학교에 가게 되면서 이들 2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측면에서 발달적, 사회적인 어려움이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기 전부터 우리는 매스미디어에서 전달하는 소식과 그 안에 담겨진 이미지, 거리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통해 다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나와 유의미한 관계에서의 풍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교실에서 나의 자녀와 같이 생활하며 또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동료로서, 이웃으로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역 주민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으로서 그들을 접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주도하고 가속화시키는 집단은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여성, 새터민으로 분류되며, 연구에 따라 다문화 집단, 다문화적 소수자, 다문화 사회의 비주류층 등의 용어로 지칭되며(이동희, 2009), 다문화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다문화상황(multicultural condition)이란 서로 이질적인 행위방식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동일시 공간 내 서로 다른 해석 체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장원순, 2006). 서로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다문화상황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교육이 다문화교육이다. 다문화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의 공존상황에서 나와 다른 문화를 적절히 이해하고 이들에 속한 사람들과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장원순, 2006).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에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다문화 교육의 범위나 영역, 심지어는 그 상위의 다문화 교육의 개념 정의부터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통한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¹⁾. 그리고 현재 우리의 다문화에 대한 관심만큼 교육의 의미와 목적이 제대로 정립되고 이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유아교육의 경우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민주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다문화적인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교육청 수준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배려한 교육기회의 마련과, 유치원에서 편견을 배제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적시하고 있다.

미국의 다문화 교육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가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태도와 의식의 변화를 꾀하는 교사교육이다(장인실, 2003). 장인실(2003)은 미국의 다문화교육을 탐구하여, 한국 교사 교육과정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예비교사의 인성교육을 위하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반성을 성찰하도록 교사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며, 교사 교육과정에서 인성과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수방법, 학습 지도안 작성, 학생 생활지도 등의 실용적인 교수 적용 과목의 설치, 현장 실습을 통한 교사 시보제, 다양한 개별화 교수 방법을 통한 집단안, 교육과정의 개혁, 통일교육을 위한 교사의 의식과 태도변화의 기본 틀 제공이 그 핵심이다.

교사들은(이은지, 2008)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이유로 국제화 시대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이고 이해하는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문화 교육 실태에 대하여 유아교사들은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내용과 한국 문화 이해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실태보

1) 현재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다문화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 요구가 높게 나타나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김현주, 김경숙, 2008)는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며, 융통성과 개방성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가 다른 나라의 문화특성을 이해하는데 있다고 지적하여 일반가정 유아 중심의 다문화 교육을 제안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 연구에서 교사들은 다문화 교육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예비보육교사들은 교사 스스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육교사는 다문화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결혼 이민자 가정 유아들의 유아교육기관 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 이민자 가정 유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언어 능력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가정의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이유로 의사소통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이승은, 서현, 2008).

또한 다문화 교육을 실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특정 주제와 국가에 편중되어 반복되고 한정된 내용들만 다룬다', 와 '현행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어찌할 지를 모르겠다.'와 '교사들은 수업 이외에도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는데 소수의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을 지도하고 싶어도 별도로 지도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다' 등을 지적하였다(이승은, 서현, 2008).

유아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언어적 자극/언어교육, 상호작용 및 또래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박미경(2007)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우연히 유아의 다문화 적인 특성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관심을 교육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 교육으로의 확장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제시한 사례에서 '다름'에 대해 특별 프로그램으로 접근해야 할이지 아니면 '다름'에 대해 두드러지지 않게 하고 그냥 한 명의 학급 유아로만 생각해야 할이지 판단하기 힘들어 하였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에게 더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아 교육적으로 접근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 교육에 대한 목적, 대상, 내용 영역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교사들은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고, 올바른 판단과 그에 적절한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을 보육하는 교사가 경험하는 갈등과 갈등 해결

에 있어 교사가 겪는 딜레마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를 탐구하며, 해결하는데 있어 전제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다문화 교실에서 교사들이 겪는 딜레마²⁾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둔 교실에서 교사들은 일반 가정유아와 다문화 가정 유아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데 있어서 갈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갈등은 교실에서 영유아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행동의 어려움과 갈등을 야기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갖는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딜레마적 상황이 되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게 되거나, 교사의 행동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한다.

1. 다문화 교육 대상의 문제: 일반가정 Vs.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일반 가정의 영유아들인지 혹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교사들은 명료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다문화 교육을 정의하는데 있어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일반 가정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적 콘텐츠’를 지닌 교육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2 :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저희들은 아이들이 다문화 아이들이다 우리 아이들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거든요. 정말 똑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분리해서 특별하게 뭘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2009. 4.7. 인터뷰 내용 중)

이 인터뷰에서 원장은 일반 가정의 원아와 다문화 가정의 원아가 같은데 굳이 분리해서 다문화 유아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교사3 : 세계 여러 나라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있다고 특별하게 그 나라를 소개하는 수업 같은 것은 별로... 아이들이 별로 다르지 않고, 그냥 잘 지내는 데 그게 오히려 더 어색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2) 선택해야 할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곤란한 상황. ‘궁지’로 순화.

다문화 교육의 정의에서 아직 다문화 교육의 대상에 대한 합의점이 없는 시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일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의 문화에 관련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장1 : 사실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다문화 어머니)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아이들이랑 엄마들이랑 지나가면 재네 엄마는 누구다. 하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다가요. 그런데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상처를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사람보다 오히려 일반사람들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또한 아이들이 같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굳이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는 다문화 교육 자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2. 보육의 파트너 : 어머니 Vs. 아버지

교사들은 일반 가정에서 영유아들 양육에 어머니가 많이 관여하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다문화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양육에 덜 관여하게 되며, 이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며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로 인해 보육의 파트너인 가정과의 연계에 있어 일부 어려움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교사3 : 가정 통신문을 정확히 읽어보시겠지... 제 말 뜻을 알아들으신 것인지 어머니 나라의 분위기는 습관이 안되는 편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안되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힘들지 않을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어머니가 어려워서 실수도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서 가정과의 연계가 잘 되지 않는 편이에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어머니의 양육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아버지가 양육에 더 적극적이어야 하지만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와 아이에 관해 대화를 하기에는 어머니의 언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깊이 있는 대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1 : 다문화 가정도 그 분이 외국인 여성이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원에서 반절정도 보면 사실은 한국인 아버님들도 외국인 여성들보다 더 안 통한다고 해야 하나. 전혀 인식이 안되어 있으세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그렇고 생활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 분들 어머님들 보면..... 거기

까지 생각이 되는 거예요.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동시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의 양육방법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가 기관과 연계하여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기를 바라나 양육방법이나 태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양육을 맡기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1 : 아주 간단한 대화는 서로 쉽게 알아듣지만 상담은 되지 않아서 저희가 애를 쏟는데 근데 아버님들이 저희한테 한탄을 하세요. 이 엄마는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이고 맨날 우유만 먹이고 그렇지 않으면 맨날 티비만 보고 계시고 아버님들이 저희하고 상담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그렇지만 어머니와 상담을 하거나 전달사항을 주고받게 되면 언어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교사1 : 근데 이 어머님들은 사실 저희한테 깊은 얘기는 서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도 나름대로 가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이에 대한 깊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사실은 얘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파요, 선생님 뭐가 없어요. 간단하게 부탁하는 정도만 되고 깊은 내막까지는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였다.

교사1 : 저희보다 아이에 대한 애착이 심하신 것 같아요. 아주 수시로 불안불안해 하시고... 남편만큼이나 어찌면 남편보다는 그 아이들한테 쏟는 사랑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그리고 양육의 주도권 문제는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조부모와 부부와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교사1 : 일단 그 분들도요. 외국인 어머님들이 내가 한글을 모르니깐 이런 데에 보내서 자꾸 배워야 한다고 깨어있으세요. 그 어머님들이 보내세요 가끔은. 시부모님 말보다는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내시기는 하는데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저 어린 것을.. 집에서 애나 보지 집에서 뭣도 안 하면서.. 그런 것에서부터 서로 갈등이.. 그러니까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09.8.12. 인터뷰 내용 중)

이렇듯 교사는 기관과 가정과의 연계에서 가정과 의사소통을 하는 창구 역할을 어느 사람이 해도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가 힘들고 조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가정의 경우 시부모까지 자녀 양육에 참여함으로써 교사들의 의사소통 창구는 더욱 복잡해지면서 가정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3. 배려 Vs. 동등함

다문화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처음에는 다문화가족 센터에 교육을 나오는 어머니들의 편의를 봐 주는 차원에서 원비를 수납하지 않았는데, 원비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되어서 오래 원비를 내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후에 원비를 수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항감을 갖게 하였다.

교사1 : 처음에는 교육비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50% 지원이 되면 그것만 받고 지원이 되는 만큼만 받고 지원이 안되는 경우는 혜택을 많이 주셨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게 보니까 의례..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정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가끔은 거들 일 있으면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다른 곳에서도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태도로 이어지게 되어 이들이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태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를 우려하였다. 또한 이런 문제는 위생 면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보였다.

교사2 : 씻는 것도,,, 세수를 안하거나 좀 더러워지면 그러면 저희가 말하지 않고 그냥 씻겨서 보내거든요. 여름에는 목욕도 시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 조심스러워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왜 우리 아이를 씻겼나 생각할지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씻기면서도 조심스러워요. 또 아이들도 왜 재는 씻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아이가 더러워서 씻긴다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더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냥 말을 안하면 왜 저 아이만 씻길까하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게 좀 힘들어요. ...(중략)... 언어 수업도 마찬가지로요. 언어가 좀 뒤쳐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오후에 그 아이들만 데리고 언어지도를 하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왜 애네만 공부해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2009.4.7. 인터뷰 내용 중)

4. 문제의 기원: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 Vs. 일반 가정의 문제와 같은 문제

교사들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다문화 가정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과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도 보편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나뉜다. 다문화 가정의 문제를 보는 시각으로 인해 제반 사항에 대한 대처 방법을 다르게 된다.

원장1 : 저한테도 많이 상의를 해요, 다문화 2세한테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다. 저한테도 많이 상의를 하시는데 그런게 있더라고요. 다문화 특성은 아니고 환경이 미치질 못하면 엄마,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지 못할 때에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위의 사례에서 원장은 다문화 가정의 문제가 다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각 가정 어머니들의 문화적, 양육적 특성을 경험하면서 영유아들의 문제가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교사2 : 엄마가 집에서 아이와만 있는 경우 더 그런 것(아이들의 발달이 늦는 것) 같아요. 한구 엄마들처럼 다른 친구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웃이랑 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을 잘 못하니까 특히 더 집에만 있어서 .. (중략) 아이들도 사회성이 부족해 지는 것 같아요.

(2009.8.12. 인터뷰 내용 중)

5. 다문화 가정: 교육의 대상 Vs. 교육의 동반자

기관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의 비율이 높게 되면 일반 가정의 부모들이 싫어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들 가정의 영유아들이 언어발달이 더디고 이로 인해 자신의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교사가 이들을 배려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교사1 : 다문화 가정하면 “다문화 가정 많지 않니?” 들으면 똑같은데 왜 다르게 볼까라는 보통 사람들 인식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많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하지만 상대적으로 일반가정의 부모들이 기관과의 연계가 줄어드는 실정이다.

교사1 :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원장님이 면담을 했어요. 저희가 전체 어머님들한

테 했거든요. 이제는 갈수록 어머님들이 바쁘셔서 많이 안 오세요. 20분 가량이 왔는데 거기서 반절 이상은 이주 여성 가정이에요. ...그분들은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오라고 하면 그게 아이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참석을 하는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듣고 그런 부분이 미안해서 저희 원장님도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서 이주 여성 엄마 간담회를 하든지 면담을 해야지 미안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기관에서 하는 행사에 일반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의 참여가 높으며, 이로 인해 행사의 중심이 다문화 가정으로 옮겨 가기도 한다. 교사들은 어머니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여도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에서 긍정적인 점으로 들었다.

교사4 : 다문화 어머니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듣고,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별로 새로운 것도 없는 이야기일 수 있고 서로 양육에서 필요한 것들이 다른데 그것을 한데 모아놓고 하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두 어머니들에게 다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 부모교육에 있어서도 차등화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2009.8.23. 인터뷰 내용 중)

기관에서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만을 따로 초대하여 부모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는 이들의 요구와 일반 가정의 요구가 다르고, 자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할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부모교육을 시행하면서 이들을 교육해야할 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요구와 관계없이 일방적인 교육만을 할 것인지, 그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교사3 : 부모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무턱대고 저희가 뭘 알려주려고만 하다보면 혹시나 기분이 언짢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고민이 많기는 해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또한 이들만을 위한 부모교육의 주제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이들의 요구를 충분히 다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교사3 : 부모님들이 한 나라에서 오신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오시고 나이대도 틀리고 젊으신 어머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잡을 수가 없더

라구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또한 일방적인 지도만을 하는 것이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걱정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학부모와 기관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우려하고 있다.

교사3 : 어머님들이 선생님한테 그 내용을(아이의 편식) 안 들어보신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말을 하자니 너무 같은 말을 하다보면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요. 좀 꺼려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 말을 안 드린건 아닌데 힘들다고는 하세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6. 다문화 가정을 드러내기 위한 노력

교사들은 어머니들을 교실 활동에 포함시켜서 이들의 존재를 당당하게 드러내려고 하거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들이 주변부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심에 나오기를 바랐고, 이를 위해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의도가 잘 실현되지 않는 않았다.

교사3 : 그래서 다음에 어머님들이 오셔서 동화구연을 하거나 노래지도를 하거나 그런 활동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보시라고 유도를 했는데 일본분들이 주를 이뤄서 그런 걸 해주셨어요. 근데 베트남 그쪽 분들은 상당히 꺼려하시더라고요. 노래나 그런 것 아니고 그 나라의 전통의상 같은 것 입고 오셔서 보여주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많이 쑥스러워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그러셨어요. 한국 어머님들은 저희가 어머님들이 오셔서 한번씩 수업해주시거나 그러면 어머님이 편하신 걸로 준비하셔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어느 정도 해 오시는데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시를 해도 선뜻 거기에 동참을 안 해주시니까 어린이집으로 끌어당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교사는 어머니들이 교실에 포함되는 것만이 아니라, 동네와 지역사회에도 구성원으로서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린이집 가정 간의 연대나 지역가정과의 연대를 해 주려고 하나 이도 쉽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다문화 가정에 혜택을 주지 않고,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있었다.

교사3 : 어머니들 같은 경우 저희가 아무리 좋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 문을 못 여셔서 그런지 그렇게 정보나 저희 생각들이 딱 받아들여지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저희들도 그 동네 분들 하고 좀 친해지

시면 애가 애랑 같은 반이라고 하고, 이 집이 누구집이고 하고 그러면 좋은데....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부끄러워하고 소극적인 어머니들은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들이 자연스럽게 집단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지, 혹은 늦기 전에 집단을 형성하던지, 집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7. 어머니의 언어·문화 습득 Vs. 우리나라 언어·문화 습득 유지

어머니들이 일년 혹은 몇 년에 한번 씩 모국을 방문할 때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자녀는 한 두 달 기관에 비우게 되는데, 자녀가 오랜 기간을 비우게 됨으로써 학습과 또래 관계가 일시 중지되면서 기관생활에 연속성을 잃게 된다.

교사3 :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오는데 한번 가면 그곳에서 오래 조용히 지내다 보니까 말수가 적어지기도 해요. 아무래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으니까 엄마랑 이야기 하다보면 엄마랑 부딪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도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요. 엄마랑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기도 하잖아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어머니 모국에 머무는 동안 영유아들은 한국어를 하는 유일한 사람인 어머니와 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 모국에 머무는 동안 영유아는 말수가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오해를 갖기도 쉽게 된다. 동시에 또래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원장1 : 근데 그것도 교육에 상충되어요. 미국에서는 밖에서는 영어를 쓰고 집에서는 자국어 쓰는게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냐면 엄마들의 자국어 문화 같은게 전수가 되어야 하는데 집에서 안 써버리면 나중에 애기가 커버리면 엄마가 소외되고 왕따가 되어요. 하지만 저도 어떤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면이 있대요... 만양 필리핀 엄마가 영어를 계속 쓰면 엄마가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죠. 아이가 한국어만 잘 하는데 나중에는 아이하고 할머니하고 아빠는 대화가 되는 엄마가 소외되잖아요. 아이가 엄마의 언어를 알아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리고 그 애기가 엄마의 나라를 갔을 때 그 나라를 알텐데 이 아이가 한국말만 하면 왕따가 되고 안 가려고 해요. 다언어 교육이 필요한데요...

(2009.4.27. 인터뷰 내용 중)

또한 가정에서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을 하게끔 격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아이의 한국 생활과 한국어 발달을 고려해 한국어만을 사용하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도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8. 인식 Vs. 실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혹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교사들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지만 실천 의지는 적어 보인다.

원장3 :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을 하거나 교사가 어머니들의 문제를 일부 상담해 줄 수는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그렇게 어머니들의 언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에는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운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교사들에게 그런 것까지 하라고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여유도 없어요. 그리고 교사가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교사 주도적이지 어머니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사도 힘들고 어머니들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09.5.17. 인터뷰 내용 중)

교사들은 평소 수업 준비와 영유아 지도만으로 힘이 드는데,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을 위해 특별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였다.

교사1 : 결론적으로 엄마, 아빠가 느끼고 깨닫게 해드리는게 저희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기에는 나름 자료도 준비해 봐야되고 여기저기 수집도 해봐야하고 저희가 준비를 해놔서 딱 해드려야 하는게 그렇게 터뜨리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일정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말씀드렸듯이 이 선생님들에게도 그에 다른 수당이 떨어진다면 그 다음 어린이집은 시범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 사실 일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힘들겠지만 위로 삼아 그러면서 잘 되지 않을 까 싶어요.

(2009.8.12. 인터뷰 내용 중)

9. 중간 전달자로서의 갈등

기관의 교사들은 때로 결혼 이민자와 남편 혹은 남편 가족 사이에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둘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역할을 하는데 중간자 역할을 하고나면 이들은 판단하는데 있어 갈등을 갖게 된다고 한다.

교사2 : 그래서 할머니나 남편이 말 좀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가 말하죠. 저희가 말하면 잘 듣는 편이에요. 저희가 천천히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

이 알아듣기 쉽게 조분조분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쉽게 말해주면 이해해요.

(2009.4.7. 인터뷰 내용 중)

결혼 이민자 여성과 대화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이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양쪽의 요구는 다르다. 남편과 시댁의 요구는 일상 생활에서의 행동과 관련되어 이들에게 지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반해, 여성들은 자신의 처지와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바란다. 교사들은 남편과 남편 가정보다는 결혼 이민자 측면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 그럼 반대로 이 사람들이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은 없나요?

원장2 : 뭐 이렇게 말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힘든 거 말하고 위로 받고 그런 게 크지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중략) 그리고... 솔직히 여기 남편들이 좀 못 배우거나 처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주지 못하고 다정하지 못하니까...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호소하면 저희가 좀 위로해 주고 그러지요. 여기 남편들은 그렇게 다정하지 않다. 뭐 그런 우리나라 남편들의 특성 같은거...

또한 간혹 어머니가 결혼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집을 나가는 문제를 갖게 되었을 때 남편과 시댁의 반대로 아이들을 볼 수 없게 되는 경우 아이들을 보러 오기도 하고, 아이에게 줄 것을 어린이집으로 보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하는 경우도 있다.

원장2 :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보고 싶다고 하고 엄마니까 해서 아이들 보여주었는데, 아이를 보고 가니까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가서 막 울었대요. 아이한테는 그게 나쁜 일이 된 거예요. 요즘 교실에서 말도 잘 안하고 소극적으로 되고 그래서 걱정이예요.

III. 나가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한국사회에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를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이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주요 정책 대상은 국제 결혼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이며 정책과제로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 '학교'의 다문화 가정 지원 기능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에게 확

대 등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하지만 이는 다문화 가정의 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가정 자녀에 대한 다문화 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다문화 가정의 자녀와 일반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이 없는 것을 통해, 포괄적 의미의 다문화 교육은 국가적인 합의없이 교육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 교사들은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오히려 더 편견을 만들고 차별시키게 한다고 타자화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유아들은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에 대해 그냥 한국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이들에 대해 특별히 대하지 않는 이유로는 이들의 환경과 나타나는 행동들이 중하층 한국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직면한 문제나 행동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박미경, 엄정애, 2007). 그러나 교사면담에 의하면 일반 가정의 문제와 중첩되는 것 이외에 다문화 가정만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다문화 교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배려’가 ‘차별과 배제’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은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맞물려 다문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할지 하는 점, 또한 가정과 기관과의 연계에 있어 가정교육의 주요 의사 결정자의 문제, 배려와 동등함, 다문화 가정의 문제의 기원에 대한 의구심, 다문화 가정을 우리나라 가치를 교육해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교육의 동반자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교육의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는지에 관한 의문, 다문화 가정을 드러내고 여성 결혼자인 어머니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 가정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다양한 갈등상황을 맞이하고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느끼는 딜레마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조속히 다문화 교육의 목표, 대상,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와 가정과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 현장에서 교사들이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 김현주, 김경숙 (2008). 예비보육교사와 현직보육교사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인식. *아동교육*, 17(4), 117-128.

- 박미경 (2007). *교사를 통해 본 다문화 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경, 엄정애 (2007).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생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학회지*, 28(2), 115-136
- 오마이뉴스 (2010.3.3). *다문화 가족 자녀의 현황과 교육과제*.
- 이승은, 서현 (2008).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들의 교육 실태 및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9(4), 147-166.
- 이은진 (2008). 유아교육기관 다문화 교육 운영 실태 및 요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4), 269-297.
- 장원순 (2006). 우리안의 차별과 배제. 일상적 삶에서의 다문화교육 접근법. *사회과교육연구*, 13(3), 27-46.
- 장인실 (2003). 다문화교육이 한국 교사 교육과정 개혁에 주는 시사점. *교육과정연구*, 21(3), 409-431.
- Derman-Sparks. L. & A. B. C. Task Force (1992). *Anti-bias curriculum tools for empowering young children*.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Goodwin, A. Lin (1997).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on multicultural teacher education. King, E. Joyce, Hollins, R. Etta, & Hayman, C. Warren, Eds. *Preparing teachers for cultural diversity*.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2부

제3주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 동화를 중심으로

발 표 자 : 이소현(부산외대)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 동화를 중심으로

이소현(부산외대)

I. 서론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국 사회는 이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을 하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은 시급한 교육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보고서들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국제결혼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자녀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은 출생국가 및 체류기간 등에 따라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은 학습능력의 부진으로 학교생활에서 흥미를 잃거나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오성배(2005)는 언어 환경의 측면에서 볼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아동들에 비해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양재찬(2006)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는 달리 가정에서 습득하는 언어 습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 학교생활에서 언어소통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와 함께 학습능력의 부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영유아기 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 능력이 떨어지면 학교에 들어가서도 학습능력 부진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또래집단과의 언어소통의 어려움이 집단 따돌림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취학 자녀들이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학업을 수행하는 전략을 익혀야 할 것이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중 학문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습 전략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서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업수행을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소현(2009)

이 제시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교사들의 요구 분석 결과처럼 성인 학습자와는 달리 아동 학습자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습 전략을 효과적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 적응 교육자료로서 발간된 ‘다문화가정 한국어 지도자료’를 분석하여 학업수행을 위한 전략 및 한국어 표현들을 살펴보고, 동화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학업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관련 선행연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실태 분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¹⁾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육자료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혜영(2006)은 재한몽골학교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중 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교재 선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어 교재 대부분 성인 학습자용이고 교육과정평가원의 교재도 귀국자녀나 재외동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용하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의사소통에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같은 또래의 한국 아이들에 비해 어휘력이 많이 떨어져 학습능력 부진과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맞춤법, 띄어쓰기를 연습할만한 책과 어휘력 신장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문제가 인식되어 2008년부터 교육자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되어 오고 있다. 학습 한국어 교재, 한국문화교육 교재,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국어 교재,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등 교재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다.

조수진·윤희원·진대연(2008)은 기초조사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의 개발원리를 추출하고 교재구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과 학습능력,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교수학습 내용 및 평가가 구조적으로 잘 반영된 한국어 교재를 개발

1) 유형식(2006)에서 교육자료는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자습서(Work book), 문법서, 사진, 어휘집뿐만 아니라 오디오나 비디오 테이프, CD-Rom, 유인물, 신문, 인터넷 자료, 사진, 그림, 광고 등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교재 및 활동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고 활용한다면, 이들이 한국어 능력을 신장시키고 한국사회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다. 또한 이들이 한국어 능력과 학습능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교과 전반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태우·배세은·강현화·김영주(2008)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혹은 어머니) 나라인 모국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의 가치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어머니(혹은 아버지)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학습함으로써 비교 문화적 시각에서 양국의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점에 주안점을 두어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위한 문화 교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 및 학습 목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재의 주요 교과목 내용을 분석하여 각 단계별로 점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제를 배열한 실물교재를 발간하였다.

김영주(2008)와 김용현(2008)은 교재 개발 대상을 각각 다문화 및 재외동포가정 아동, 결혼이민자 자녀로 두어 앞선 연구와 대상의 범위를 달리하였다. 김영주(2008)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국어 교재는 개작한 한국 전래 동화를 활용하여 다양한 언어교육기법을 중심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문화, 주제, 과제, 어휘, 문형별로 교재 개발의 원리를 제시하였고, 개작한 총 16편의 전래 동화를 어휘나 문형의 어려움 및 내용의 복잡함에 따라 1편과 2편으로 나누었으며, 한 편당 한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김용현(2008)은 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여 언어 기능의 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통합 교재를 개발하고 단원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소현(2009)에서는 심층면담 분석 결과와 초등학교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친숙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별로 2단계로 구분하여 적합한 동화 목록을 선정하였다. 초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시켜 초등학교에서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KSL)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연구는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나, 한국어 자체에 대한 지식, 언어기능, 태도, 문화 등에 주안점으로 두고 있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 향상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부모님 모두 외국인인 경우나 외국체류기간이 길수록 한국의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발간된 한국어 교육자료집

을 분석하여 학교생활 중 학업수행을 위한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Ⅲ.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분석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료는 대부분 교수-학습 활동을 돕는 활동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장학자료’로서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에 관한 연구학교의 결과를 토대로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교단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있다. 그 중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교육자료로서 발간된 ‘다문화가정 한국어 지도자료 I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²⁾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의 분석을 통해 학업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분석

1) 교육자료의 전체 구성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의 구성에 대하여 이 교육자료의 ‘일러두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에 참여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의 학교생활 장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사소통 내용을 실었다.

둘째, 학교의 하루 생활 장면별로 필요한 어휘 및 표현들로 구성된 1부와 학교에 있는 여러 시설들과 관련된 어휘 및 표현들로 구성된 2부로 나누었다.

따라서 이 교육자료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한국어 어휘 및 표현을 익히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의 일반 아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처음의 3월 한 달 동안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유사하다.

각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부는 ‘즐거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수업시간, 점심시간, 청소시간, 하교시간 등 학교의 하루 생활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장면들과 학용품, 교실 물건 등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물, 학교에서 지켜야할 기본생활 태도 등 학교

2)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 하므로, 특수 목적을 가진 교육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료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자료를 선정하였다.

생활 전반에서 필요한 어휘 및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

2부는 ‘학교 한 바퀴’라는 제목으로 운동장, 특별실, 보건실, 도서실, 컴퓨터실, 교무실 및 행정실 등 학교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각 장소에서 필요한 어휘 및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의 주제 및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단원별 주제 및 목표

부	단원명	주제	목표
1 부 즐 거 운 학 교 생 활	1. 만나서 반가워요	자기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소개할 때 필요한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상황에 알맞은 말을 올바르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하루를 알아봐요	학교의 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침자습시간, 조회시간, 수업시간, 점심시간, 쉬는 시간, 마치는 시간을 알고 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게 될 때 말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3. 조회시간입니다	조회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회시간에 사용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조회시간에 사용되는 말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4. 수업시간입니다	수업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지시어의 뜻을 알 수 있다.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지시어에 맞게 행동할 수 있다. 교과서의 지시문을 이해할 수 있다.
	5. 시간표를 챙겨요	시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표에 대해 알고,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을 알 수 있다. 교과목의 이름에 대해 알 수 있다. 요일에 대해 알고, 시간표를 챙길 수 있다.
	6.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화장실 사용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7.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친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구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 대해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다. 고마움과 사과표현을 익힐 수 있다. 친구를 초대하는 표현을 할 수 있다.
	8. 내가 할 일이 있어요	1인1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에서 1인1역을 하는 이유와 필요성을 알 수 있다. 1인1역의 종류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다.
	9. 즐거운 점심시간	즐거운 점심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과 관련된 어휘를 알 수 있다. 점심시간에 급식을 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10. 교실을 깨끗이	청소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도구의 이름과 사용법을 알 수 있다. 친구에게 청소시간에 하는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다.
	11. 집으로 가는 길	하교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교할 때 지켜야 할 일을 알 수 있다. 우리 학교 주변에 있는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 알 수 있다.
	12. 공부할 때 필요해요	학용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학용품의 종류와 쓰임을 알 수 있다. 음악, 미술, 체육시간에 필요한 학용품 및 도구에 대해 알 수 있다.
	13. 교실이 궁금해	교실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실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알 수 있다. 교실에 있는 물건의 쓰임새를 알고, 사용법을 말할 수 있다.
	14. 기본 생활 규칙 지키기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서 지켜야 할 기본 생활 규칙을 실천할 수 있다.
	15. 선생님을 보세요	바른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에 오면 가장 먼저 선생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시작 전에 수업 준비를 끝낼 수 있다. ▪ 수업 시간에는 바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16. 학교에 가지 않는 날	학교 쉬는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다. ▪ 학교 쉬는 날과 관련된 어휘를 알고 관련된 말을 할 수 있다.

부	단원명	주제	목표
2 부 학 교 한 바 퀴	17. 운동장에서 놀아요	운동장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에서 활동할 때의 규칙을 알 수 있다. ▪ 운동장에 있는 시설의 종류를 알고 이름을 말할 수 있다.
	18. 학교 한 바퀴	특별실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실의 종류와 기능을 알 수 있다.
	19. 배가 아파요	보건실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의 위치와 기능을 알 수 있다. ▪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20. 책이 좋아요	도서실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실의 기능을 알 수 있다. ▪ 도서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21. 컴퓨터를 배워요	컴퓨터실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실의 위치와 기능을 알 수 있다. ▪ 컴퓨터실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22. 심부름 왔어요	행정실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실, 행정실의 기능을 알 수 있다. ▪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인사할 수 있다.

단원별 주제와 목표를 통하여 이 교육자료의 학업수행과 관련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4단원에서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지시어와 교과서의 지시문을 익히도록 하여 수업시간에 바르게 활동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2단원에서는 기본 학용품의 종류와 쓰임을 알고 특히 음악, 미술, 체육시간에 필요한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5단원은 수업시간에 바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 중 지켜야할 예절과 발표할 때의 자세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20단원과 21단원에서는 각각 도서실, 컴퓨터실의 위치와 기능을 알고 사용하는 말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단원의 주제와 목표를 참고하여 학업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의 주제와 목표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원의 구성

앞에서 보았듯이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는 총 2부 22단원이며, 한 단원을 한 차시로 정하여 다음과 <표 2>와 같은 활동과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각 차시별 활동과정안의 구성

각 차시의 쪽수	활동과정안
1쪽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
2쪽~4쪽	학생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지
5쪽~6쪽	과제 자료

1쪽의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안에는 ‘주제-단원명-목표-내용-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내용’에서는 2쪽~4쪽의 활동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2쪽~4쪽은 학생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활동지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실제적인 교육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5쪽~6쪽의 과제 자료는 가정학습 과제로 저학년, 고학년용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부모님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림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단원이 이와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원에 따라서 활동지가 좀 더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이 교육자료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출생하였더라도 한국어가 서툴거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과제 자료를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구별하여 제시한 것은 이들의 아동 발달단계를 고려한 것이며 이것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개요의 구성

각 단원의 1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요는 구체적으로 다음 <표 3>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표 3> 단원의 개요

단원의 개요	제시 방법
주제	단원의 상단 왼쪽에 제시
단원명	단원의 상단 오른쪽 ‘주제’ 옆에 함께 제시
목표	각 주제에 맞는 어휘 및 표현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따른 말하기 중심으로 각 단원에 따라 1~3가지 제시
내용	대부분 ‘어휘 및 표현이해-상황이해-적용·실천’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어휘	각 단원의 주제에 맞는 어휘 및 표현을 제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개발된 교육자료이므로 학교

생활에서의 상황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맞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상황을 이해하고 알맞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 활동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 및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상황 중심으로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개요의 구성을 토대로 교육자료 개발 원리를 제시하겠다.

4) 어휘 및 표현

각 단원별로 제시된 어휘 및 표현은 다음 <표 4>와 같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단원별 어휘 및 표현

부	단원	주제	어휘 및 표현
1 부 즐 거 운 학 교 생 활	1	자기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이름, 만나서 반가워요, 만나서 기뻐요, 친하게 지내요, 잘 지내요 ▪ 가족, 아빠, 엄마, 동생, 형, 누나 ▪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좋아하니, 축구, 의사, 선생님, 과학자 ▪ 저는, 죄송합니다만, 한국어, 이해하지 못합니다
	2	학교의 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 조퇴, 아침자습시간, 조회시간, 수업시간, 쉬는 시간, 마치는 시간 ▪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 몸이 아파서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3	조회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렷, 열중 쉬어,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 훈화말씀 ▪ 교장선생님께 경례, 교가 제창 ▪ 조회시간입니다, 바른 자세로 자리에 앉으세요
	4	수업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 칠판, 필기, 책, 숙제, 집중, 모둠, 활동, 토의 ▪ 펴세요, 보세요, 들으세요, 손 들어요, 쓰세요, 읽으세요, 의논하세요, 나오세요, 검사 받으세요 ▪ 책을 펴세요, 칠판을 보세요, 설명을 들으세요, 모듬끼리 의논하세요 ▪ 팔호, 표, 완성, 개구리, 관계있는 것끼리 연결, 물음, 알맞은 답, 아닌 것, 고르시오, 순서, 기호, 맞으면, 틀리면, 글, 의자
	5	시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표, 수업시간, 40분, 쉬는 시간, 10분 ▪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영어, 음악, 체육, 미술, 실과 ▪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재량, 특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교시, 점심시간
	6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가고 싶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대변, 똥, 소변, 오줌 ▪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화장지, 줄서기, 좌변기, 양변기 ▪ 물 내리기, 휴지통, 손 씻기, 비누
	7	친구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들아, 같이 놀자, 사이좋게 놀자, 친하게 지내자, 나도 같이 놀자 ▪ 괴롭혀요, 놀려요, 때려요, 미안해, 괜찮아 ▪ ~을 빌려줄래?, 지우개, 가위, 고무위 ▪ 네 이름이 뭐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생일, 초대
	8	1인1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상자, 거울, 학급문고, 칠판지우개, 창틀닦기, 복도청소, 계단청소 ▪ 우유 상자를 가져오자, 우유 상자를 갖다 놓자 ▪ 학급문고를 정리하자, 칠판지우개를 털자
	9	즐거운 점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판, 숟가락, 젓가락, 수저 ▪ 밥, 국, 김치, 반찬, 생선, 고추장

	시간	▪ 조금만 주세요, 더 주세요, 고추장은 주지 마세요
10	청소 시간	▪ 청소함, 휴지통, 폐휴지함 ▪ 빗자루, 쓰레받기, 대걸레, 기름걸레, 걸레, 청소기 ▪ 휴지통은 어디에 있니?, 기름걸레는 어떻게 쓰니?
11	하교 시간	▪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내일 또 만나자 ▪ 줄서기, 차 조심, 신호등, 초록불, 횡단보도 ▪ 은행, 병원, 문구점
12	학용품	▪ 필통, 연필, 지우개, 공책, 자 ▪ 실로폰, 리코더, 단소,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탬버린, 소고 ▪ 가위, 칼, 풀, 스케치북, 도화지, 색종이, 붓, 물감 ▪ 공, 줄넘기, 훌라후프, 뽀뽀
13	교실 물건	▪ 칠판, 분필, TV, 컴퓨터, 전화기 ▪ 우산꽂이, 책꽂이, 선풍기, 온풍기 ▪ 책상, 의자, 사물함
14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 교실, 정돈, 공부 시간, 쉬는 시간 ▪ 복도, 발꿈치, 왼쪽, 장난, 인사 ▪ 계단, 난간, 미끄럼 ▪ 운동장, 쓰레기, 놀이기구, 운동기구
15	바른 태도	▪ 선생님, 인사, 책가방, 책상걸이, 시간표, 책상 서랍 ▪ 순서대로 넣어요
16	학교 쉬는 날	▪ 공휴일 ▪ 방학, 개학, 개교기념일, 토요일휴업일, 재량휴업일

부	단원	주제	어휘 및 표현
2 부 학 교 한 바 퀴	17	운동장에서	▪ 운동장, 실내화, 실내화 주머니, 신발, 갈아 신다, 보도블럭 ▪ 미끄럼틀, 철봉, 구름사다리, 그네, 모래받, 구렁대, 나무 ▪ 차례, 지키다, 줄을 서다, 안전
	18	특별실의 종류	▪ 도서실, 책, 독서, 읽다, 빌리다 ▪ 컴퓨터실, 컴퓨터, 공부 ▪ 과학실, 실험, 실험도구 ▪ 교무실, 교장실,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19	보건실에서	▪ 보건실, 계단, 약, 컵, 보건선생님 ▪ 배, 머리, 다리, 팔 ▪ 아프다, 상처, 피가 나다
	20	도서실에서	▪ 도서실, 사서선생님, 대출, 반납, 열람 ▪ 책꽂이, 소파, 탁자, 의자, 도서대출증, 책제자리표 ▪ 책을 읽다, 책을 추천해주다, 대출하다, 반납하다
	21	컴퓨터실에서	▪ 컴퓨터실, 컴퓨터선생님, 커서, 전원, 스위치 ▪ 모니터(화면), 본체, 키보드(자판기), 마우스, 프린터기, 스캐너, 스크린 ▪ 컴퓨터를 켜다(끄다), 컴퓨터(키보드, 마우스) 작동이 안 된다
	22	행정실에서	▪ 교무실, 교장실, 행정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 급식비, 현장학습비, 복사기, 책장, 코팅기, 전화기, A4용지, 통장 ▪ 통장에 입금하다, 복사하다, 심부름하다, 잠깐 기다리다

이와 같이 이 교육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휘 및 표현은 일반 목적의 한국어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이라는 학습자의 특수한 상황

을 고려하여 빈도가 높은 어휘 및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익혀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어휘 및 표현들을 4단원, 12단원, 15단원, 20단원, 21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5) 활동지 및 과제 자료의 구성

먼저 활동지는 3~5가지로 제시되어 있고 이것은 단계별로 활용할 있도록 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어휘와 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상황 중심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상황에 맞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 있도록 1컷의 만화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이 있는 여러 컷의 만화 형식을 통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정에서 또는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과제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학년용과 고학년용으로 각각의 아동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으로 ‘다문화가정 한국어 지도자료 I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서울특별시교육청, 2007)’을 분석해 본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어를 익힐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의 개발 시 아동 발달 단계, 상황 설정 및 주제 선정, 높은 빈도수의 어휘 및 표현, 활동지 및 과제 자료의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을 위한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방향

1.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동화

이소현(2009)은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 및 담당교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한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화 선정의 원칙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표 5> 동화 선정의 원칙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초등학교 한국어 교육에서의 동화 선정의 원칙
초등학교 제7차 개정 교육과정 ³⁾ 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친숙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정하고,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교육적인 내용의 동화를 주제에 알맞게 한국어 능력별로 선정한다.

<표 6>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별 동화 선정 기준

공통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한다. · 주제에 적합한 쉬운 내용으로 흐름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 간결한 문체로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 보편적이고 교훈이 담긴 내용이어야 한다. · 교육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한국어 능력별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어 기초 적응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와 문장의 길이가 짧고 반복되어야 한다. ·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림이 많고 동화 내용의 양이 매우 적어야 한다. · 기초적인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동화도 포함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어 발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과 관련한 단어와 문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그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동화 내용의 양은 적은 단편이어야 한다. · 주제에 맞는 다양한 어휘 및 표현을 익힐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및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한국어를 익힐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한국의 문화와 전통 및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동화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동화 선정의 원칙과 선정 기준은 본 연구에서 동화를 선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동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중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우선으로 선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동화를 창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여 알맞은 그림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을 위한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방향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은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이 처음 취학하게 되는 초등학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며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결국,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동들과 함께 한국에서 어울려 성장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개별

3)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2007년 2월 28일에 고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부칙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학교 급별, 학년별 시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라.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마.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이 아닌 제7차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하였다.

적인 교육⁴⁾과 통합 교육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한다면 이러한 교육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연구 및 기존의 교육자료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어 교육자료로서 ‘학업수행을 위한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성인 학습자와는 달리 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각 학년별 발달 단계에 알맞은 내용과 한국어 표현을 포함하는 교육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자료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가정과 연계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능력은 단기간에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더 긍정적인 교육활동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습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함께 제시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셋째, 학업을 수행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과목의 수업 시간과 특별실에서의 활동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알맞은 동화를 선정하여 그림과 함께 제시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목표는 각각의 상황에서 요구되는 학업수행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학업수행을 위한 어휘 및 표현들을 이해하고 익히며, 실제로 적용해 보는 수준까지 설정해야 할 것이다. 역할극을 통해 동화의 등장인물이 되어 볼 수 있도록 역할극 대본을 첨가하여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어휘 및 표현은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초등학교의 교과목별로 사용되는 지시문과 어휘 및 표현들에 대한 빈도수를 고려하여 상황과 주제에 맞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국적, 출생국가, 체류기간, 언어 간섭, 성별, 흥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궁극적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에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동들과 함께 성장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동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담임교사 및 학급의 아동들에 대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V. 결론

초등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수행을 위한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초등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자료 중 학교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개발된 한국어 교육자료를 선정하고 분석하여 본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본고에서는 ‘학업수행을 위한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방향을 5가지로 제시하였다. 아동 발달 단계, 활동지, 상황 및 주제, 목표, 어휘 및 표현 등을 중심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학습능력 향상은 다문화가정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원할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학습부진 아동들을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보충학습 특별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통합학급에서 생활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에 이러한 학습부진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아동보다 학습능력이 더 우수한 아동들도 있다. 그러나, 학습능력이 부족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처한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학습능력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 학교생활, 나아가 사회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학습부진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알맞은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학업수행 전략에 대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더욱 실제적인 교육자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사슴(2003), “아동대상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 만6세에서 8세 아동의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주(2008),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다문화 및 재외동포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중언어학회, 96-106쪽.

- 김용현(2008),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이중언어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107-114쪽.
- 김태우·배세은·강현화·김영주(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교재 개발 방안, 『이중언어학회 제22차 전국 학술대회 춘계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65-75쪽.
- 박영순(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월인.
- 박은애(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조사 연구 :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은주(2006), 한국 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생활에서의 갈등 해결방안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제9권 제2호, 25-55쪽.
- 성명경(2004), “어린이를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 한국 내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복(2004), “귀국반 어린이를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방안 연구 : 주요 귀국반의 한국어 교육현황과 과제를 활용한 한국어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특별시교육청(2007), 『즐거운 학교, 함께 배우는 한국어』, 초등교육정책과
- 안유미(2003), “초등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 외국어린이들을 위한 한국어·문화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재찬(2006), 동남아 혼혈 더는 외면하면 안된다, 『월간중앙』 5월호, 263-271쪽.
- 오성배(2005), 코시안을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만들 것인가?, 『교육정책포럼』 118호, 13-16쪽.
- _____ (2006), 한국 사회의 소수 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 탐색,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4호, 137-157쪽.
- 우형식(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이소현(2009),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동화 활용 한국어 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해영(2006),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147-158쪽.
- 전북장수초등학교(2006), 국제결혼 가정 도움 계획서, 전북교육청.
- 정현영(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아시아 여성과 한국남성의 이중문화가정자녀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경(2002), “귀국 초등학생용 한국어 교재의 개선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선경(2007),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 :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및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수진·윤희원·진대연(2008),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이중언어학회 제22차 전국 학술대회 춘계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41-52쪽.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2부

제4주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적 접근
발 표 자 : 정성미(강원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적 접근

정성미(강원대)

I. 서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삶은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편견과 차별에 의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여성결혼이민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의 교육은 부모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와 자녀의 소통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문화적인 이해가 모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통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자녀들의 학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자녀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고 싶기는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과내용을 비롯해서 교육 환경에 대한 정보와 그 정보를 토대로 한 교육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학교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어휘를 보장하는 어휘교육에 대한 논의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교재에서 학습되는 어휘와 초등학교 일학년 국어교재의 어휘, 가정통신문의 어휘를 비교해 봄으로써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어휘교육과 어휘교재 제작의 방향에 대하여 제안하게 될 것이다.

II. 본론

1. 어휘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어휘 분석한 한국어교재는 여성가족부에서 출판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¹⁾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은 여

1)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가족부.

성 결혼이민자들이 ‘쉬운 한국어를 사용하여, 빨리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음을 머리말에 명기하였다. 초급의 기획방향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사소통에 맞춰져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소한의 의사소통에 맞추다 보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역할 중 주부로서의 역할만을 고려하고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일러두기에는 본문의 내용을 철저히 한국의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 즉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 필수적 기능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²⁾. 또한 이 교재의 일러두기에서는 ‘가정 내에서 살림을 하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모델로 한’ 교재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역할이 주부로서의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³⁾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보다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다양한 역할에 따른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제작되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나아가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용 구성을 보면, 『여성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에는 자녀교육 환경이나 자녀와의 대화 등이 전무하며, 『여성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2』에 한 과(19 과) 정도만 자녀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초급에서 중급으로 한국어 교육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급교재에서부터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급에서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부분이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 여성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주부 역할과 함께 엄마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최근에 제작된 『여성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을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1』의 머리말에서 밝힌 내용과는 달리 내용 구성에는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기획의도가 반영되지 않아서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과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중급 교재를 분석으로 하지 않은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2) 정성미(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어휘선정에 대하여-기존 교재의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한말 연구 제24호. pp.17-18

3) 국립국어원.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 국립국어원. 2009.8.

한국어 교육이 중급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소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어휘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학습어휘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습득어휘는 개인차가 많아서 보편적인 비교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고의 또 하나의 어휘 분석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이다.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는 읽기, 쓰기, 말하기 교재 등 세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교과는 국어 외에도 다양하지만 비교의 효율성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어휘자료로, 국어 교과서 자료를 선택하였다.

2. 어휘 비교

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어휘와 교과서 어휘 비교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과 『국어』(1-1학기, 읽기, 쓰기 말하기) 교재에서 빈도순에 따른 어휘를 100개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문장의 기능상 유사한 동사와 형용사를 같이 분류하였고, 내용어 중 명사를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의 동사와 형용사 어휘목록(100순위)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초등국어 동사 형용사 목록(100)

순위	동,형	빈도	순위	동,형	빈도	순위	동,형	빈도
1	보(다)	536	37	나(다)	26	70	적(다)	13
2	하(다)	316	38	그리(다)	25	75	나타나(다)	12
3	쓰(다)	257	38	떠올리(다)	25	75	남(다)	12
4	있(다)	234	38	정확하(다)	25	75	다르(다)	12
5	읽(다)	232	41	넣(다)	23	75	두(다)	12
6	어떠하(다)	230	41	배우(다)	23	75	따르(다)	12
7	보(다)	219	41	일어나(다)	23	75	바꾸(다)	12
8	말하(다)	162	44	잡(다)	22	75	사(다)	12
9	생각하(다)	117	44	짓(다)	22	75	연결하(다)	12
10	내(다)	101	46	고르(다)	21	75	표현하(다)	12
11	들(다)	94	46	발음하(다)	21	84	받아쓰(다)	11
11	바르(다)	94	46	살펴보(다)	21	84	소개하(다)	11
13	주(다)	71	49	가지(다)	20	84	쉽(다)	11
14	싶(다)	68	49	나타내(다)	20	84	어울리(다)	11
15	찾(다)	67	51	살피(다)	19	88	기다리(다)	10
16	가(다)	62	51	이야기하(다)	19	88	기쁘(다)	10
17	알맞(다)	59	53	답하(다)	18	88	땀(다)	10
18	좋(다)	57	53	좋아하(다)	18	88	담(다)	10
19	알(다)	55	53	크(다)	18	88	묻(다)	10
20	들(다)	50	56	겪(다)	17	88	받(다)	10
20	만들(다)	50	57	나누(다)	16	88	완성하(다)	10
22	되(다)	49	57	많(다)	16	88	익히(다)	10
22	재미있(다)	48	59	떠오르(다)	15	88	작(다)	10

22	정리하(다)	41	59	만나(다)	15	97	낭송하(다)	9
25	부르(다)	37	59	맞(다)	15	97	닭(다)	9
25	붙이(다)	37	59	비교하(다)	15	97	보이(다)	9
27	활용하(다)	35	59	얏(다)	15	97	사용하(다)	9
28	얏(다)	34	64	놀(다)	14	97	생기(다)	9
29	같(다)	33	64	돕(다)	14	97	시작하(다)	9
29	오(다)	33	64	모으(다)	14	97	아프(다)	9
31	드러나(다)	31	64	살(다)	14	97	이해하(다)	9
32	상상하(다)	31	64	움직이(다)	14			
33	나오(다)	30	64	틀리(다)	14			
33	떡(다)	30	70	괜찮(다)	13			
33	알아보(다)	30	70	반복되(다)	13			
36	떡(다)	28	70	잘하(다)	13			103

<표 2> 한국어교재 동사, 형용사 목록(100)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1	가(다)	122	36	맞(다)	9	60	찍(다)	5
2	하(다)	114	36	짜(다)	9	74	같(다)	4
3	있(다)	113	36	씻(다)	9	74	나오(다)	4
4	떡(다)	87	36	찾(다)	9	74	넓(다)	4
5	보(다)	75	41	내리(다)	8	74	들어오(다)	4
6	사(다)	29	41	넣(다)	8	74	비짜(다)	4
6	주(다)	29	41	다너오(다)	8	74	빌리(다)	4
8	들(들)	22	41	덥(다)	8	74	빠르(다)	4
8	마시(다)	22	45	길(다)	7	74	쉬(다)	4
8	쓰(다)	22	45	밝(다)	7	74	시원하(다)	4
11	싫(다)	21	45	보내(다)	7	74	알(다)	4
12	말(다)	20	45	자(다)	7	74	주무시(다)	4
12	어떠하	20	49	공부하(다)	6	74	짜(다)	4
12	입(다)	20	49	괜찮(다)	6	86	가깝(다)	3
15	크(다)	19	49	드리(다)	6	86	감사하(다)	3
16	만나(다)	18	49	드시(다)	6	86	달(다)	3
16	많(다)	18	49	따뜻하(다)	6	86	드라이하(다)	3
16	오(다)	18	49	멀(다)	6	86	들(다)	3
16	타(다)	18	49	반갑(다)	6	86	맑(다)	3
20	아니(다)	17	49	받(다)	6	86	메(다)	3
20	좋(다)	17	49	신(다)	6	86	바쁘(다)	3
22	작(다)	15	49	차(다)	6	86	밥하(다)	3
23	맛있(다)	14	49	피곤하(다)	6	86	수영하(다)	3
23	좋아하(다)	14	60	갈아타(다)	5	86	쉬(다)	3
25	만들(다)	13	60	검(다)	5	86	싱겁(다)	3
25	예쁘(다)	13	60	고맙(다)	5	86	알리(다)	3
27	계시(다)	12	60	나쁘(다)	5	86	유명하(다)	3
27	기다리(다)	12	60	높(다)	5	86	재미없(다)	3
27	맵(다)	12	60	뜨겁(다)	5	86	청소하(다)	3
27	아프(다)	12	60	말하(다)	5	86	추(다)	3
27	없(다)	12	60	무겁(다)	5	86	팔(다)	3
32	돕(도우)	11	60	부르(다)	5	86	회(다)	3
32	웁(다)	11	60	싫(다)	5			

34	걸리(다)	10	60	싫어하(다)	5			
34	일어나(다)	10	60	재미있(다)	5			
36	되(다)	9	60	짧(다)	5			104

두 어휘자료(고빈도어) 중 공통적으로 추출된 동사와 형용사는 <표3>과 같다.

<표 3> 표1 & 표2 공통 동사 형용사

번호	동, 형용사	번호	동사, 형용사
1	가(다)	15	사(다)
2	같(다)	16	쉽(다)
3	괜찮(다)	17	싫(다)
4	기다리(다)	18	쓰(다)
5	나오(다)	19	아프(다)
6	넣(다)	20	일어나(다)
7	돕(다)	21	작(다)
8	듣(다)	22	재미있(다)
9	들(다)	23	좋(다)
10	만나(다)	24	좋아하(다)
11	만들(다)	25	찾(다)
12	말하(다)	26	크(다)
13	맞(다)		
14	부르(다)		

두 자료의 100여 개 고빈도 동사, 형용사 중에서 공통으로 추출한 어휘는 26개였다. 이는 고빈도에서 약 26% 정도의 동사, 형용사만이 일치하는 것으로 고빈도어임을 고려할 때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저빈도어로 내려갈수록 비율은 더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표 1>의 공통으로 추출되지 않은 동사, 형용사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의 전체 동사, 형용사 목록에서 저빈도어이기는 하지만 있는 어휘도 있다. <표 1>에서만 추출된 동사, 형용사 중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의 전체 동사, 형용사 목록에서(208개) 유무를 확인하였다. 초등 국어교과서 100 개⁴⁾ 어휘 중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동사,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겪다, 고르다, 기쁘다, 나누다, 나타나다, 나타내다, 남다, 낭송하다, 내다, 놀다, 다르다, 닳다, 닳다, 담다, 답하다, 두다, 드러나다, 떠오르다, 떠올리다, 띄다, 모으다, 바꾸다, 반복되다, 받아쓰다, 발음하다, 보이다, 비교하다, 사용하다, 살펴보다, 살피다, 상상하다, 생각하다, 생기다, 소개하다, 알아보다, 어울리다, 연결하다, 완성하다, 움직이다, 이야기하다, 이해하다, 익히다, 잘하다, 잡다, 정리하다, 정확하

4) 초등 국어 교과서(1-1)의 동사, 형용사 총 어휘 수는 468 개다.

다, 짓다, 표현하다, 활용하다(49)

100개의 어휘(고빈도어)에서 49개의 어휘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에 한 번도 제시되지 않았다. 초등국어교과서 나머지 어휘가 저빈도어임을 고려할 때는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으로 학습을 하고나서 초등학교 1학년 국어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다음은 명사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는 초등국어교과서의 명사 목록 중 고빈도어 100여 개의 어휘를 정리하였다.

<표 4> 초등국어교과서 명사 목록(100)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1	말	197	37	이야기	29	74	옛이야기	17
2	나	182	38	토끼	28	74	짐	17
3	친구	135	39	가지(種)	27	76	글씨	16
4	그림	108	39	놀이터	27	76	노래	16
5	생각	96	39	어머니	27	76	떡	16
6	낱말	95	39	지우개	27	76	맷돌	16
7	글자	87	39	호랑이	27	76	아빠	16
8	때	86	44	책	26	82	동생	15
9	것	82	44	카드	26	82	두꺼비	15
10	일(事)	81	46	도라지	25	82	물음	15
11	글	75	46	동물	25	82	반	15
12	내용	74	46	상자	25	82	서로	15
12	소리	74	49	놀이	23	82	시간	15
14	수(불)	67	49	마음	23	82	오리	15
15	홍내	56	49	입	23	82	짹	15
16	사람	54	49	자세	23	90	공부	14
17	보기	53	49	자음자	23	90	나무	14
18	무엇	51	54	떡시루	22	90	날	14
19	까닭	50	55	물건	21	90	누가	14
20	모습	49	55	방법	21	90	아이	14
21	이름	47	57	딱지	20	90	엄마	14
22	다음	46	57	색종이	20	97	꽃	13
22	선생님	46	57	속	20	97	눈	13
24	그림일기	43	57	앞	20	97	모음자	13
25	모양	42	57	자신	20	97	바탕	13
25	문장	42	57	표정	20	97	아버지	13
27	집	41	63	가장	19	97	옛날	13
28	인물	38	63	곳	19	97	인사	13
29	기분	37	63	누구	19			
30	안(內)	37	63	음식	19			
31	가족	34	63	학교	19			
31	인사말	34	69	글쓴이	18			
31	쪽	34	69	꾸러미	18			

34	느낌	32	69	부호	18			
35	방귀	31	69	오늘	18			
36	시(詩)	30	69	형제	18			100

<표4> 고빈도어에 해당하는 100여 개의 어휘를 살펴보면 사람관련 어휘에 아버지, 어머니와 짝, 형제와 같은 가정과 교육 현장을 반영한 어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색종이, 딱지와 같이 문구류나 놀이감에 해당하는 어휘, 집, 놀이터, 학교 등의 장소 어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어 교과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낱말, 글자, 문장, 자음자, 시(詩), 그림일기, 쪽(page)과 같은 어휘와 호랑이, 두꺼비, 동물, 토끼, 오리 등과 같은 동물어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표 5> 한국어교재 명사 목록(100)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1	시	58	37	것	9	65	손위	6
2	거(것)	57	37	바지	9	65	동대문	6
3	살(나이)	45	37	배	9	65	시작	6
4	씨	38	37	월	9	65	연필	6
5	수	31	37	텔레비전	9	65	우유	6
6	납편	30	37	공부	9	65	청소	6
7	분	28	37	매일	9	65	학부모	6
8	사람	25	37	책상	9	80	김치	5
8	얼마	25	45	어제	8	80	꽃	5
10	밥	23	45	아버님	8	80	서랍	5
11	분	21	45	생일	8	80	아주머니	5
12	아이	20	45	전화번호	8	80	아침	5
12	집	20	45	편지	8	80	저녁	5
14	시장	18	50	근	7	80	두부	5
14	친구	18	50	눈	7	80	드라마	5
16	원	17	50	달	7	80	선생님	5
17	옷	16	50	사과	7	80	경기	5
17	번	16	50	안	7	80	경찰서	5
17	안녕	16	50	위	7	80	고향	5
17	학교	16	50	식혜	7	80	동서	5
21	오늘	15	50	서울	7	80	사무소	5
22	한국어	14	50	교실	7	80	소풍	5
23	날	13	50	내일	7	80	송편	5
23	색	13	50	냉장고	7	80	신설동	5
23	주(週)	13	50	병원	7	80	여동생	5
23	어머님	13	50	안경	7	80	운동	5
23	책	13	50	양말	7	80	자전거	5
28	오후	12	50	한국	7	80	지하철	5
29	가방	11	65	물	6	80	토요일	5
29	역	11	65	옆	6	80	휴대폰	5

29	음식	11	65	치마	6			
32	다음	10	65	개	6			
32	일(날)	10	65	차	6			
32	버스	10	65	구두	6			
32	영화	10	65	빵	6			
32	전화	10	65	손아래	6			102

정성미(2009:13)에서 언급했듯이 명사 고빈도어에는 총칭 사물명사인 ‘거(것)’, 단위 명사인 ‘시, 살, 분, 원, 주(週)’ 등, 의식주 관련 어휘 ‘밥, 두부, 빵, 사과, 김치, 집, 옷, 치마, 구두’, 사람 관련 어휘 ‘남편, 아이, 친구, 어머니’, 장소 관련 어휘에 ‘집, 시장, 학교’ 등 교육 대상자인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일상적인 삶을 반영한 어휘이다. 특히 총칭 사물명사인 ‘거(것)’는 한국어교재가 구어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표 4>, <표 5>의 공통 명사목록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표5> & <표6>의 공통 명사 목록

	공통명사		공통명사
1	공부	8	안(in)
2	꽃	9	오늘
3	눈	10	음식
4	어머니	11	집
5	사람	12	책
6	선생님	13	친구
7	아이		

100여 개의 고빈도 명사 중, 공통 어휘는 13개이다. 고빈도어에서 약 13%만이 일치한다는 동사나 형용사보다 더 낮은 비율이다. 동사, 형용사의 경우와 같이, 초등국어교과서에만 보이는 고빈도어휘를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전체 명사 목록(716개)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지(種), 그림일기, 글쓴이, 글씨, 글자, 기분, 까닭, 꾸러미, 나무, 낱말, 놀이터, 느낌, 두꺼비, 딱지, 때, 떡시루, 마음, 맷돌, 모양, 모음자, 문장, 물건, 물음, 바탕, 방귀, 방법, 보기, 부호, 상자, 색종이, 생각, 소리, 옛날, 옛이야기, 오리, 인물, 인사, 인사말, 자세, 자신, 자음자, 짝, 토끼, 표정, 형제, 호랑이, 흉내(47)

고빈도어에 해당하는 100여 개의 어휘에서 47개가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초등국어교과의 총 명사 어휘수가 837 개

중 고빈도어에 해당하는 100여 개의 어휘가 이렇다면 저빈도 순위로 내려갈수록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에 제시된 어휘 비율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동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명사류에 있어서도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을 통해 한국어를 배운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자녀의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다.

2)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어휘와 가정통신문 어휘 비교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처하는 자녀 교육의 환경에서 학교와의 소통의 고리가 되는 것이 가정통신문이다. 가정통신문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뿐만 아니라, 교과준비물, 학교행사 등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학교정보지이다. 가정통신문은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연결되어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게 서로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통신문의 경우는 내국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가 어려운 수준의 어휘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10개의 가정통신문에 사용된 문장에서 동사, 형용사, 명사 어휘를 추출하고 빈도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7>, <표 8>과 같다.

<표 7> 가정통신문 동사 형용사 목록

순위	동,형	빈도	순위	동,형	빈도
1	하(다)	32	36	강하(다)	2
2	드리(다)	23	36	건강하(다)	2
3	있(다)	22	36	관하(다)	2
4	주(다)	22	36	동반하(다)	2
5	되(다)	16	36	마시(다)	2
6	바라(다)	15	36	먹(다)	2
7	않(다)	11	36	부득이하(다)	2
8	보내(다)	7	36	붙이(다)	2
9	돌보(다)	6	36	시작되(다)	2
9	많(다)	6	36	씻다	2
9	참관하(다)	6	36	아니(다)	2
12	받(다)	5	36	아되(다)	2
12	안녕하(다)	5	36	않(다)	2
12	오(다)	5	36	유의하(다)	2
12	이(다)	5	36	의하(다)	2
12	확인하(다)	5	36	이용하(다)	2
17	못하(다)	4	36	일정하(다)	2
17	실시하(다)	4	36	자세하(다)	2
17	안내하(다)	4	36	작성하(다)	2
17	알(다)	4	36	참고하(다)	2

17	없(다)	4	36	추진되(다)	2
17	운영되(다)	4	36	판명되(다)	2
17	제출하(다)	4	36	퍼지(다)	2
17	협조하(다)	4	36	평안하(다)	2
25	감사하(다)	3	36	표기하(다)	2
25	기록하(다)	3	36	필요하(다)	2
25	등교하(다)	3	36	학습하(다)	2
25	따르(다)	3	36	확장되(다)	2
25	맞이하(다)	3	36	힘차(다)	2
25	시작하(다)	3			
25	신청하(다)	3			
25	운영하(다)	3			
25	읽(다)	3			
25	통하(다)	3			
25	희망하(다)	3			
36	가렵(다)	2			65

<표 2>와 <표 7>에서 공통적으로 추출된 동사, 형용사는 ‘감사하다, 드리다, 마시다, 보내다, 찢다, 아니다, 없다(7개)’이다. 이는 국어교과서 동사, 형용사 공통어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을 학습한 어휘로는 가정통신문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표 8> 가정통신문 명사 목록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순위	명사	빈도
1	일(日)	41	36	경주	7	70	기록표	5
2	월	34	36	다음	7	70	도서실	5
3	학교	30	36	담임	7	70	문의	5
4	뭇	26	36	독서량	7	70	숙소	5
5	수	21	36	분(12월분)	7	70	스쿨뱅킹	5
6	학부모님	20	36	시간	7	70	신청자	5
7	학년	18	36	신청	7	70	외출	5
8	교육	17	36	연락처	7	70	자녀	5
9	교실	15	36	장소	7	70	주부	5
9	원	15	36	적성	7	70	통장	5
11	아래	14	36	중(中)	7	70	플루	5
12	가족	13	36	초등학교	7	70	학습	5
12	안내	13	36	특기·	7	70	행복	5
14	기간	12	36	학년도	7	70	협조	5
14	년	12	51	기타	6	70	회원	5
14	독서	12	51	날	6	70	희망	5
17	등	11	51	말씀	6	89	가정	4
18	내(內)	10	51	명(名)	6	89	것	4
18	반	10	51	보육	6	89	관심	4
18	부서	10	51	비고	6	89	내용	4

18	수업	10	51	사항	6	89	단계	4
18	시(時)	10	51	선택	6	89	택	4
18	오후	10	51	수두	6	89	도서	4
24	경우	9	51	식사	6	89	도착	4
24	금	9	51	신라	6	89	매일	4
24	운영	9	51	여행	6	89	박(2박)	4
24	층	9	51	이름	6	89	수련회	4
28	교사	8	51	일정	6	89	수학	4
28	번	8	51	임시	6	89	수학여행	4
28	본교	8	51	출발	6	89	신청서	4
28	수강	8	51	학기	6	89	아침	4
28	아동	8	51	학부모	6	89	어린이	4
28	참가	8	51	활동	6	89	예방	4
28	후	8	70	감사	5	89	예정	4
28	휴업	8	70	개인	5	89	유치원	4
36	감염	7	70	급식비	5	89	일시	4

<표 5>와 <표 9>에 공통적으로 추출된 어휘는 ‘교실, 매일, 번, 분, 아침, 오후, 원, 월, 일, 학부모(10개)이다. 이는 국어교과서 공통 명사 어휘수보다 적은 것으로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으로 학습해도 가정통신문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본고는 기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재 어휘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하여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녀와, 또는 학교와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한국어 교재 어휘와 국어교과서 어휘를 비교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재로는 자녀 학습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며,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고 참여하는 것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어휘 분석과 비교를 통하여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자녀가 입학하기 전에 학습할 수 있는 교과 내용을 반영한 교재와 어휘집 개발이 필요하다. 자녀의 학습을 도와주는 적극적인 면에서부터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 화제를 제공하는 측면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학습 내용을 미리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된 교재의 구성은 엄마로서의 여성 결혼이민자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IV. 참고문헌

- 곽지영 외 9(2007),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 국립국어원(2009),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1, 2. 국립국어원.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광해(2003),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 어휘, 박이정.
- 김선정(2007),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제33호, 이중언어학회.
- 왕한석(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언어 적응의 제약상.
- 이충우(1997), 어휘 교육과 어휘의 특성, 국어교육 Vol.-No.95.
- 林四郎(1971), 語彙調査と基本語彙, 秀英出版社.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vol.23 No.1.
- 임지룡(1991), 국어의 기초어휘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vol.23 No.1.
- 임철성((2002), 초급 한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4.
- 정성미(2009).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어휘선정에 대하여-기존 교재의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한말연구 제24호.
- 조성문(1997), 한국어 초급 교재의 기초 어휘 선정에 관하여, 한양어문 15집.
- 조현용(2000),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박이정.
- 眞田信治(1977), 基本語彙・基礎語彙 岩波講座日本語9 語彙と意味, 岩波書店.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첫걸음. 여성가족부.
- 한송화(200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교재 분석, 말 vol.28.
- 황인교(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말. vol.28.

2010년 다문화콘텐츠연구사업단 전국학술대회

제2부

제5주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고도구어 분석
발 표 자 : 손경미(부산외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사고도구어 분석

손경미(부산외대)

I. 시작하는 말

최근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성인 학습자들의 경우, 일반 목적 한국어 학습과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 그리고 직업 목적 한국어 학습 등으로 분류하여 학습 목적에 맞는 교육 내용과 교재를 사용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귀국학반 또는 일부 대안학교들이 있으나, 공교육의 차원에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수행은 큰 문제가 없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제 수업에서 학습 내용과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 나아가 언어적 표현의 부족 등으로 학력 부진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 결과(김선정·허용, 2008)에 따르면 이들에 예·체능 교과보다 어휘의 양이 많은 국어, 사회, 등의 교과 공부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증가하는 최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즉,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학교생활 적응이라는 측면을 넘어 학교에서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하여 일반 학생보다 좀 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의 교과 학습 내용은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학문성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 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학문 연구의 기초적인 방법이나 흐름을 학습하고 있다. 이 때 사용되는 어휘들은 일상적인 생활 어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¹⁾

따라서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 부진 현상이 한국어 능력의 부족에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일상생활과는 다르게 학습과 관련한 특정한 어휘가

1) 연구자의 경우, 동료교사들로부터 수업과 관련한 어휘의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단위시간의 학습목표 도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있을 것이며, 이러한 어휘를 성인 학습자의 인지 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에 필요한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개념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습 기본 어휘’로 가정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일상생활 어휘와는 다른 학교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특수한 어휘 때문일 것이며,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고도구어를 분석하여 학습 기본 어휘의 출현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기초 어휘와 기본 어휘

한 개인의 언어 능력은 문법 능력, 발음 능력, 어휘 능력 등 몇 가지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이 중 어휘 능력은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미(meaning) 부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단어가 언어 구성 단위의 하나로 어떠한 구성체를 이루는 요소적 측면을 말하는 것이라면, 어휘(Vocabulary)는 일반적으로 단어(Word)와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어휘는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집합적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언어사용의 실제성에 주목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²⁾ 즉, 이 연구의 초등학교의 학습 상황과 관련한 어휘 탐색 과정에서 대상이 되는 어휘들은 언어 사용자들인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언어 요소이고, 학교의 학습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어휘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초 어휘는 기본 어휘라는 더 큰 개념에 포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겠으나, 김광해의 개념 구분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김광해(2004)는 기초 어휘를 일상 언어생활에서 필수적인 단어 1,000개 내지 2,000개를 최소한으로 선정한 뒤, 이를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체계로서 이것만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어휘의 집합으로 보았다. 이러한 기초 어휘는 국어 교육용(L1)일 경우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비의

2) 유형식·배도용(2009, p.10)은 한국어의 어휘, 경상도 방언의 어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어휘 등과 같이 군집을 이루는 형태가 개방적인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특정한 의미 범주를 이루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어휘(친족어), 색채를 나타내는 어휘(색채어) 등과 같이 쓰이기도 한다고 했다.

도적인 과정에 따라 거의 자동적으로 습득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다문화가정 초등 학생과 같은 특수한 언어 상황의 학습자에게는 별도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 어휘와 관련하여 김광혜(2004)는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작품이나 한정된 언어사용 국면에서 몇 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때, 여러 층에 걸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어휘소의 집합을 기본 어휘로 보는 입장과, 둘째, 조금 좁은 개념으로 언어사용의 국면이 다양한 여러 영역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역의 전개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의 집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기본 어휘 선정을 위해서는 분야별 고빈도어를 조사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습 상황과 관련하여 입문기라고 할 수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학습 기본 어휘들이 실재하는지, 이러한 기본 어휘들의 분포 양상은 어떠한지를 사고도구어 목록을 기준으로 교과서의 어휘를 분석해 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한다.

2.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

Cummins(1981)에 의하면 기초적 의사소통 기술(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kill)은 가장 기본적인 개인 간의 의사소통 기술을 일컫는 말로서 ‘문맥 내포(context-embedded)’ 의사소통이며, 인지 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은 고도의 인지 작용을 발휘하여 학술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맥 축소(context-reduced)’ 의사소통이다(신명선, 2008). 일상생활 언어와 구어가 주로 BICS와 관련된다면 학문 목적 언어와 문어는 주로 CALP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BICS와 CALP가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BICS와 CALP를 분류하여 각각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 내용을 설계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학생 모두에게 신장시켜 주어야 할 한국어 능력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BICS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맥락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에도 어휘의 정교한 개념에 근거하여 관련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CALP일 것이다. 영어권에서는 일찍부터 영어교육을 학습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일반 목적과 특수 목적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 목적의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CALP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텍스트를 원활하게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때 학습자들이 알아야 하는 어휘가 기초 어휘, 전문

어, 사고도구어(Academic vocabulary)이다(신명선, 2008).

한국어의 어휘 상황에서 사고도구어에 대한 연구는 등급별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사고도구어가 위치하는 등급과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두 측면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제시한 김광해(2008)의 연구와 사고도구어의 특징을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다량의 말뭉치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명선(2004)의 한국어의 사고도구어 선정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광해(2008)의 등급별 교육용 어휘 목록은 <표 1>과 같다.

<표 1> 등급별 교육용 어휘 목록

어휘량	누계	국어교육용		한국어 교육용		
		등급	개념	4구분	6구분	개념
1,845	1,845	1	기초 어휘	초급	1	자국인과 어휘량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함
4,245	6,090	2	정규 교육 이전	중급	2	
8,358	14,448	3	정규 교육 개시 ~ 사춘기이전 -사고도구어 일부 포함	상급	3,4	
19,377	33,825	4	사춘기이후 - 사고도구어 포함, 급격한 지적 성장	고급	5,6	

<표 1>에 의하면, 사고도구어는 정규 교육의 시작부터 사춘기 이전 시기에 해당하는 3등급부터 일부 해당되고, 사춘기 이후 급격한 지적 성장기에 주로 포함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사고도구어 학습은 사춘기 이후인 초등학교 5, 6학년 또는 중학교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신명선(2008)은 다양한 학술 텍스트의 특징과 유사한 사고도구어의 특징을 검토하여 선정한 사고도구어 926 단어족을 부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³⁾ 김광해의 어휘 등급을 함께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고도구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신명선(2008)의 사고도구어 목록에서 주목할 부분은 926 단어족의 사고도구어⁴⁾ 중 김광해(2008)에서 이미 정규 교육 이전에 습득된다고 보는 기초 어휘 52 단어족과 2등급 어휘 165 단어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고도구어가 기초 어휘에 해당하는 어휘와 정규 교육 이전에 습득된다고 보는 2등급 어휘라면, 그 특성상 초등학교 학습 현장에서 학습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사고도구어의 학습이 한국어 교육에서 학문 목적 성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3) 신명선(2008)이 제시한 특징은 (1) 대부분이 한자어이다. (2) 주로 탈주관성, 비화제성의 특징을 갖는다. (3) 중립성의 특징을 갖는다. (4) 사고 과정과 사고 기능을 그 개념으로 하고 있는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5) 유의어들이 많이 존재한다. (6) 내용 조직에 관여하는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다.

4) 사고도구어의 등급별 분포

등급	1	2	3	4	5	6	7	8	총계
개수	52	165	204	253	197	42	11	2	926

국어교육에서 초등학교 고학년(5,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 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수한 언어 환경을 가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고도구어의 학습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까지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어휘 학습과 학습 기본 어휘

인간이 새롭게 하나의 어휘를 알고 사용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어휘의 습득’과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어휘 학습’의 과정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김광해, 2004). 즉, 인간이 성장하면서 획득하는 어휘는 습득의 측면이 강하고 이러한 어휘는 대부분 1차 어휘가 될 것이며, 학습의 측면이 강한 사고 도구어의 대부분은 2차 어휘가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기초어휘 1,000~2,000개가 의도적인 어휘 학습 없이 자연스럽게 습득될 수 있는데 비하여, 2차 어휘들은 언어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힘들기 때문에 의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한편, Piaget와 Vygotsky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사고도구어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는 초등학교 5, 6학년은 되어야 한다. Piaget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 단계를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1~15세)로 나누면서 추상적으로 사물을 이해하여 가설-연역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로 보았다.

Vygotsky(1987)는 어휘의 핵심 개념의 형성 과정을 크게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대상들을 비조직화된 덩어리로 인식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 맥락 속에 있는 개별 요소들의 연결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단계로 맥락 의존적이며, 세 번째는 ‘진 개념’이 나타나는 시기로 이 때 ‘진 개념’이 나타난 뒤에야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사고라고 하는 사고 형태가 성숙할 수 있다(신명선, 2008).

이에 대하여 신명선(2008)은 어휘 학습의 시기가 단지 어휘의 특징만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각 어휘들이 사용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어떤 어휘의 개념이 매우 전문적이고 협소하여 학습 곤란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될 지라도 사회적 맥락 등에 따라 언중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친숙한 단어의 경우, 이러한 맥락과 어휘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또 어휘 학습 시기를 논의할 때, 어휘를 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손영애(1992)가 어휘의 학습을 누적적이라고 한 것과 같은 입장으로, 어휘에 대한 학습은 사회문화적 발전 및 개인 사고력의 발전과 함께 계속해서 정교화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어떤 어휘를 언제 가르쳐야 하는가하는 어휘 학습 시기의 중요성보다는 각 어휘의 학습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반복·심화되며 지속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 어휘이면서 사고도구어에 해당하는 학습 기본 어휘를 시작으로,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누적적인 어휘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학습 기본 어휘의 습득에 따른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개별 교과 학습 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선행 연구 분석

강진숙(2009)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초등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가정 학생의 어휘력을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어휘력이 부족하지만 상급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구어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와 난이도가 낮은 어휘가 보충되어 전체적인 어휘력이 향상되어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어휘력 조사에 사용된 검사 도구용 어휘를 읽기 교과서에서만 추출했다는 점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읽기 교과서 텍스트의 특징이 아동들의 일상생활 어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나타난다.

박진욱(2009)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과 적용을 위한 학습언어 연구’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과 관련된 언어 환경과 요구 수준 파악을 위하여 학습과 관련한 언어라는 측면에서 ‘학습 언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대상 언어로 교과서 언어, 교사 언어, 학습자 언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교사 언어와 교과서 언어는 학습자 발달에 비해 급격한 변화와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과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학습자 언어 또한 문어 활용도가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교과서와 수업과 관련한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두원(2009)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 이해능력에 대한 실태 연구로 경상남도 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총 어휘 목록 중 100개를 선정하여 문항으로 제작한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 지역보다 군 지역 학생의 어휘력이 더 취약하였으며,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가정 학생의 어휘 이해력의 차이가 유지되는 반면, 저학년에서는 급격하던 어휘력의 격차가 중·고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서 학습 부진 현상이 심화되는 중·고학년의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가정 학생의 일반적인 어휘 이해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면, 이들의 학습과 관련된 교과 전반의

어휘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구이다.

신명선(2004)의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개개 학습자들의 요구(needs)에 맞게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구체화, 다양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맞는 어휘 교육의 목적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손영애(1992)의 ‘국어과 교육에서 어휘 지도’는 어휘력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와 어휘 지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어휘 지도의 방법 중 교사의 설명에 의한 방법과 문맥을 활용한 어휘 지도 방법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독서활동의 강조, 지도할 낱말의 선정,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조은지(2009)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사고도구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사고도구어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현장성이 있으며, 중학생의 사고도구어 이해와 국어과 학업 성취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재욱(2001)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 연구’는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어휘 학습 전략을 설문 조사한 후 통계 처리한 것이다. 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어휘 학습에 대한 신념 중 암기에 대한 믿음이 강함을 보여 주었고, 문맥을 통해 이해하는 경향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 활용에 있어서도 초급 학습자와 고급 학습자가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휘 학습에 있어서 어휘의 형태적인 내용과 의미적인 내용으로 구분하여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임수진(2007)의 ‘초등학생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영어 학습에 필요한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한국어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학습 전략을 발견할 수 있다.

한성희(2004) ‘Vygotsky의 언어 발달 이론과 초등국어 교육에의 시사점’에서는 언어가 인지 발달의 도구이면서 인지 과정 그 자체의 일부분이 된다는 Vygotsky의 이론을 바탕으로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 도구로서의 언어를 강조하면서 근접발달 이론에 근거한 또래와의 상호작용, 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과 협동학습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요구에 맞는 한국어 교육 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휘 연구들은 일반적인 어휘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역의 어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의 학업 부진 현상이 어휘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사용되는 사고도구어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초등학교 사용 사고도구어 조사

1. 교과서 수록 사고도구어 조사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 나타나는 사고도구어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화 교재인 초등학교 1학년의 『우리들은 1학년』, 재량활동 교재인 1, 2학년의 『즐거운 컴퓨터』를 제외한 교과서를 조사하였다.

<표 2> 1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사고도구어 조사⁵⁾

순	조사 어휘	등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수학	수학 익힘	합계
1	활동	1			1				1	2	84	88
2	내용	1	19	12	18	4		2	2	1		58
3	정리(하다)	2	9	7	15	6	3	1	1	2		44
~~~~~												
14	관계	1								3	7	10
15	비교	2	4		6							10
			75	48	62	44	31	8	13	40	121	442

<표 3>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사고도구어 조사

순	조사 어휘	등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수학	수학 익힘	합계
1	내용	1	17	43	48	8			1			117
2	방법	1	16	11	2	22	11	6	2	17	3	90
3	모형	3								44	12	56
~~~~~												
16	분류	2				1	11					12
17	해결	2								7	3	10
18	특징	2	2		6				2			10
			114	93	129	48	38	27	20	114	33	616

<표 4> 2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사고도구어 조사

순	조사 어휘	등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수학	수학 익힘	합계
1	내용	2	16	37	56							109

5) 교과서에 사용된 사고도구어는 1학년에 46 단어족, 2학년에 114 단어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표 2>, <표 3>, <표 4>, <표 5>에서 제시한 사고도구어는 10회 이상 사용된 사고도구어만을 표로 나타내었다.

2	정리	2	20	20	23	12	13		1			89
3	설명	1	37	18	1	2				3	3	64
~~~~~												
26	활동	1		1					2	6	3	12
27	사실	1	4	6								10
28	중심	1				2		8				10
29	주변	2	1			1		3	5			10
			205	163	177	46	46	40	16	86	30	809

<표 5> 2학년 2학기 교과서에 수록된 사고도구어 조사

순	조사 어휘	등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슬기로운 생활	즐거워 생활	수학	수학 익힘	합계
1	내용	2	23	44	78	2	2				1	150
2	방법	1	31	12	12	3	3	9	5	27	11	113
3	설명	3	48	4	33			1		3	3	92
~~~~~												
27	종류	3	3	2	1			4	1		1	11
28	완성	2		2	1		1	2	2		2	10
29	관계	2		7	1		1				1	10
			302	143	295	36	42	47	30	146	71	1112

2. 수업 사용 사고도구어 조사

<표 6>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서 교사 사용 사고도구어 조사⁶⁾

순	선정 어휘	등급	관련 교과	빈도	텍스트의 종류	
					학습 안내	학습 내용
1	계획	1	슬기로운생활	1	○	
2	관찰	2		5	○	
3	공동	2		2	○	
~~~~~						
13	평가	2		2	○	
14	확인	3		3	○	

## 3. 사고도구어 조사 결과 분석

교과서에 나타난 사고도구어를 조사한 결과, 1학년 교과서 10종에 나타난 사고도구어는 총 46 단어족, 2학년 교과서 10종에 나타난 사고도구어는 총 114 단어족으로 조사되었다. 교과서에 사용되는 사고도구어는 김광해(2008)의 교육용 어휘 등급 중 1등급에서 6등급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수록된 대부분의 사고도구어는 김광해(2008)의 등급별 교육용 어휘 목록에서 정규 교육 이전에 습득된다고 보는 1등급인 기초 어휘와 2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들이

6) 2009년 부산시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슬기로운 생활> 교과 '5. 자연과 함께해요' 단원의 동물과 식물 분류하기 시간의 1시간 수업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한 결과이다.

었다. 이 외에 3등급 이상의 어휘도 조사되었다.

그리고 사고도구어는 대부분 한자어였으며, 교과서의 내용 글에서보다 학습 목표 및 학습 방법 등을 나타내는 안내 글 부분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는 1, 2학년의 경우 국어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목의 학습 내용이 유치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통합 교과 내용으로 생활과 관련된 활동 위주의 학습이 주를 이루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과별 사고도구어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사고도구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어’ 교과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슬기로운 생활’ 교과서에서의 사고도구어 증가도 두드러진다.

김광해(2003)에 의하면, 사고도구어는 3, 4등급 어휘에 해당하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 학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교과서 분석 결과, 1, 2학년 교과서부터 많은 양의 사고도구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IV.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사고도구어 지도 방안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은 학교에서의 학습과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실려 있는 교과서, 이러한 어휘들로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활동을 안내하는 수업이라는 상황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특수한 언어 환경으로 인해 충분한 한국어 자극이 부족하여 기초적인 일상 어휘만을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러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보충 지도해 주는 체계적인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회적 맥락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초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활동과 자료를 이용한 다음과 같은 방법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사고도구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물론 사고도구어의 정확한 개념을 모두 학습할 수는 없어도 학습 내용과 학습 상황에서 소외를 겪지 않을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의 어휘 이해만이라도 이루어진다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 한국어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1. 초등학교 사고도구어 목록 개발

초등학교의 교과서 수록 어휘 및 교사들이 수업의 진행을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표현 어휘들을 수집, 분석하여 어휘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초등학교 사고도구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으로 굳이 다문화가정 학습자가 아니어도 학업 성취 수준과 어휘력의 상관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또, 다문화가정 학습자의 경우 일

반 학생들이처럼 어려운 어휘를 이해하기 위하여 맥락이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기초 어휘에 대한 이해도 함께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별도의 사고도구어 목록을 제작하여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한국어 보충 심화 지도에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분석한 사고도구어 외 상급 학년의 교과서와 수업 사용 사고도구어 분석을 통해 각 어휘별 빈도를 측정하여 초등학교 저, 중, 고학년의 3단계 사고도구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2. 어휘 교수 학습 방법 연구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발달심리학자인 Piaget와 Vygotsky는 고학년이 되어야 추상적인 어휘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사고도구어들이 학교의 학업 수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이들 어휘를 학습하는 것이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학습자의 발달 단계가 개별적으로 모두 다르며, 어휘의 학습이라는 것이 반드시 학습과 함께 완전한 ‘앎’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해당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앎’의 정도까지 안내할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맥락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 조작기에 알맞은 활동 중심의 학습 방법,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귀납적인 학습 방법, 또래와의 협동 학습 방법, 교사와의 대화 중심 학습법 등이 있다.

## 3. 어휘 교육을 고려한 교과서 개발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학습자와 귀국 학생 등 학습자의 변화에 맞게 교과서도 ‘국어’라는 관점에서 학습 대상의 폭을 넓혀 ‘한국어’라는 관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교과서의 일부분에 필수 어휘 목록을 둔다거나 해당 학년에서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어휘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교과서에서 제공한다면 다문화가정 학습자와 일반 학습자 모두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V. 맺는 말

지금까지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부진이 한국어 능력의 부진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의 학업 수행 환경에 중요한 요인인 교과서와 수업 어휘를 조사·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

지 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CALP)과 사고도구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업 수행을 위한 사고도구어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과 어휘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한국어 교육에서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사고도구어의 교육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춘기 이후의 시기인 초등학교 5, 6학년부터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 2학년 교과서와 수업을 분석하여 사고도구어의 출현 양상을 살펴본 이유는 초등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의 특징 때문이다. 즉,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개별 교과학습을 시작하게 되고 교과별 내용은 각 교과의 내용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협동학습, 자기주도적학습 등 창의적 사고 활동과 결과물 산출이 주된 학습 활동을 이룬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습 부진 현상은 통합교과⁷⁾ 교육이 많은 1, 2학년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3학년부터는 학습 부진이 누적될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3학년부터 교과 관련 내용 어휘⁸⁾가 많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사고도구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목록화 작업과 함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초등학교 1, 2학년 중심의 사고도구어 분석을 바탕으로 중·고학년의 사고도구어에 대한 추가 분석과 분석 어휘에 대한 등급화 및 과학적 통계 처리 작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언적으로 제시한 교육 방안의 효과성 검증을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안 구안 및 적용을 통한 지도의 효과성 검토 작업이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진숙(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력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해(2004).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광해(2008). 어휘 현상과 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 김광해(2008). 등급별 국어교육용 어휘. 도서출판 박이정.
- 김남예(2005). 학문 목적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 인문계열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초등학교 1학년의 교과의 내용 구성은 유치원 교육과 연계성이 매우 크며 2학년으로 가면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들어 점차적으로 개별적인 교육 내용을 갖게 된다. 1, 2학년의 교과와 교과서 구성은 국어(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수학(수학, 수학 익힘),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이다.

8) 성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인지 학술적 언어 사용 능력(CALP)을 신장시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초 어휘, 전문어, 사고도구어 중 전문어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 김선정·허용(2008).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방안”.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경상북도 교육청.
- 김종구(2002). 국어 교육용 어휘 선정 기준.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2009). 국어(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주)미래엔컬처그룹.
- 서울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9). 수학(수학익힘). 두산동아(주).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9). 슬기로운 생활. 두산동아(주).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9). 즐거운 생활. 두산동아(주).
-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09). 바른생활. 두산동아(주).
- 노구치 타카히로(2004). 한국어교육 전공자용 한국어 전문어휘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선희(2004). 초등학교 저학년 국어교육용 어휘 선정 연구: 의미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배(2002). 초등학교의 어휘 지도 요소 선정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욱(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과적응을 위한 학습언어 연구: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두원(2009).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휘 이해 능력 실태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영애(1992). “국어과 교육에서의 어휘지도”. 교육개발 제14권 제6호(통권81호).
- 신명선(2003). 지적사고처리어(academic vocabulary)의 특성과 그 국어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고찰. 어문학 제81호.
- 신명선(2004ㄱ). “어휘 교육의 목표로서의 어휘 능력(lexical competence)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제112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신명선(2004ㄴ). 국어 사고도구어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신명선(2006). 학문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의 내용 연구.
- 신명선(2008). 의미, 텍스트, 교육. 한국문화사.
- 안원석(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표현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연(2004).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02). 어휘 지도가 내용 교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욱(200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우(1994).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대표 어휘 선정. 국어 교육 85·86.
- 임수진(2007). 초등학생의 영어 어휘 학습 전략 연구.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지(2009). 중학교 국어교과서 사고도구어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성희(2004). 비고츠키의 언어발달이론과 초등 국어교육에의 시사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상심(2007). 농촌지역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 특성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